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1000-100036-01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출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출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2026.06.09.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발대식



대 준비위원회



2026.06.09.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2026.06.09.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6.06.25.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회의







2026.06.17.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방문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2026.06.22. 강삼영 도교육감 당선인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방문







2026.06.30.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





백운아트홀

민선9기 구자열 원주시장 취임식



원주시

시민의 뜻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민선9기 구자열 원주시장 취임식



2026.07.01. 민선9기 구자열 시장님 취임식



2026.07.01. 충렬사 현충탑 참배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첫걸음을 기록하며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구자열 시장님
그리고 민선 9기 원주시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원주시정은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라는 시정구호 아래
출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행정이 시민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곁에
서고, 시민의 삶을 시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시민을 민원의 대상이
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원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주체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옛말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역시 시민입니다. 시정의 조직도, 예산도, 정책도 결국 시민의 삶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선 9기 원주시정이 지향하는 시민주권
시대는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시정의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원주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민선 9기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을 검토하고, 부서 업무를 살피고, 시민의 제안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정운영체계를 모색했습니다. 선거의 약속을 행정의 과제로
바꾸고, 시민의 요구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 과정은 많은 토론과 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의 기록이자 민선 9기 원주시정에 드리는 제안서입니다.

시민주권시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요 현안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약은 부서별 계획과 예산, 성과평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행정의 실행력이 시민의 삶으로 돌아갈 때 시민주권은 비로소 제도가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의 관성, 제도의 제약, 의회와의 협치, 공직사회의 변화, 시민참여의 성숙이라는 여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원주의 미래는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지혜, 공직자의 헌신, 의회의 협력, 지역사회의 참여가 함께 모일 때 더 좋은 원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민선 9기 원주시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시정의 실행 과정에서 계속 점검되고 보완되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길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걸어갈 때 더 넓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준비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자료 제공과 검토에 함께 해주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새로운 원주를 기대하며 지혜와 의견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주권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를 향해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원주시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선거 과정에서 시민께 드린 약속을 행정의 언어로 정리하기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주권시대의 기치 아래 원주시가 시민 앞에 책임있게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정리한 첫 기록입니다.

저는 민선 9기 원주 시정을 세 가지 달라진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첫째,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민생이 중심이 되는 시정**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진 외형적 개발이나 일방적인 유치 실적에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리고 주거 부담, 의료 접근성, 공공요금, 일자리, 골목상권, 안전처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밀실과 독점이 아니라 광장과 속의로 나아가는 시정**입니다. 행정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과 갈등 현안은 숨기지 않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정보를 나누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사사로운 연고를 배제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세우는 시정입니다. 학연과 지연, 측근의 부당한 청탁과 사사로운 이권 개입은 시민의 공정한 목소리를 왜곡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임기 초부터 낡은 구태의 사슬을 끊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예외가 사라진 자리를 보통 시민의 목소리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저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공약들을 품고 있는 귀한 길라잡이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완수해 주신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열네 분의 위원 여러분, 자문위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원주의 미래를 기원하면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30일

원주시장 구 자 열

CONTENTS

제 1 장

발간사

준비위원장 발간사 · 14

시장 감사의 글 · 16

원주시 현황

제1절 시정여건 및 현황 · 22

1. 시정여건
2. 일반현황

제2절 재정 및 조직현황 · 24

1. 재정규모
2. 조직 및 인력 현황

제3절 원주시 현황과 과제 · 25

제 2 장

민선 9기 원주시정 비전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 · 28

제2절 시민주권시대의 의미 · 29

제3절 시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 구축 · 30

제3장

분야별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행정·조직 및 기획·예산·협치 분야 · 34

제2절 민생경제 및 첨단산업 분야 · 39

제3절 돌봄·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 · 46

제4절 관광·교통·환경·도시·농업 분야 · 55

제4장

시정목표별 이행과제

제1절 세부이행과제 · 76

1. 반값원주: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
2. 첨단원주: 미래산업과 도시성장 전략
3. 활력원주: 사람과 일자리의 도시
4. 매력원주: 문화·관광·도시재생
5. 안심원주: 복지·돌봄·안전·생활SOC

제2절 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추계액 · 220

제 5 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원주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의 결정 · 224

제2절 시민의 정책 제안 · 228

제3절 자문위원 정책 제안 · 239

부록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활동

I.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소개 · 244

1. 출범 근거
2. 운영 목적 및 주요 기능
3. 조직 구성

II. 활동 내용 · 248

1. 활동 사항
 - 가. 회의 및 업무보고
 - 나. 현장방문
2. 예산 집행 내역

III. 활동 기록 및 홍보 · 251

1. 언론으로 본 준비위원회 활동(언론보도 내역)
2. 사진으로 보는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제 1 장

원주시 현황

제1절/ 시정여건 및 현황

제2절/ 재정 및 조직현황

제3절/ 원주시 현황과 과제

제1장 원주시 현황

제1절 시정여건 및 현황

1. 시정여건

원주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혁신·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 36만 명을 돌파하며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인 저출생 및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AI,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발판으로 삼아 수도권 40분대 생활권이라는 혁신적인 도시공간 및 교통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문화·녹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시민들은 행정의 투명성, 시민참여 확대, 신속한 민원 처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민선9기는 이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시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일반현황

원주시는 1읍 8면 16동으로 구성되며, 문막읍과 소초·호저·지정·부론·귀래·홍업·관부·신림 등 농촌·도농복합지역과 중앙·원인·개운·명륜·단구·단계·무실·반곡관설 등 도시생활권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행정구역상 원주시는 원도심, 혁신도시, 기업도시,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공간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별 생활여건과 행정수요의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시정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생활SOC 확충, 교통·복지·문화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면적 및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구분	행정구역(개)
	총면적(km ²)	868.30km ²	읍면동	25
	남한 면적 대비	0.87%	읍	1
	서울특별시 면적 대비	약 1.4배	면	8
	강원특별자치도 면적 대비	5.16%	동	16

2026년 6월 30일 기준 원주시 인구는 370,603명, 세대수는 178,430세대이다. 남성은 183,927명, 여성은 186,676명이며, 전월 대비 전체 인구는 212명 증가하였다. 내국인은 364,811명, 외국인인 5,792명으로 집계 되었다.

읍면동별로는 반곡관설동, 단구동, 무실동, 지정면, 단계동 등 신도시·대규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대 생활도시이자 성장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 간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인구 현황 (6. 30. 기준)	구분	인구수(명)	구분	인구수(명)
	세대 수	178,430세대	전월 인구	370,391
	총인구	370,603	전월 대비 증감	212 ↑
	남성	183,927	내국인	364,811
	여성	186,676	외국인	5,792

제2절 재정 및 조직현황

1. 재정규모

원주시의 예산규모는 2024년 1조 6,741억 원, 2025년 1조 6,677억 원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일반회계는 1조 4,680억 원, 특별회계는 1,99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25년 기준 일반회계의 약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배분되어 있다. 이는 고령화,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수요가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민선 9기 공약 추진 과정에서는 복지지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반값원주, 첨단원주 등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 (억 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합계	16,741	16,677	64 ↓
	일반회계	14,545	14,680	135 ↑
	특별회계	2,196	1,997	199 ↓

2025년 일반회계 주요 세출	구분	예산액(억 원)	구성비(%)
	사회복지	7,245	49.4
	기타	1,595	10.9
	농림해양수산	900	6.1
	문화 및 관광	889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883	6.0
	일반공공행정	812	5.5
	환경	671	4.6
	교통 및 물류	649	4.4
	국토 및 지역개발	454	3.1
	보건	247	1.7
	교육	203	1.4
	공공질서 및 안전	58	0.4
	예비비	73	0.5

2. 조직 및 인력 현황

2026년 1월 1일 기준 원주시 조직은 8국, 본청 46개 실·관·과, 2개 직속기관, 9개 사업소, 297개 담당팀, 2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은 경제, 안전교통, 문화교육, 복지, 환경, 도시, 행정, 재정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시민 생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1,993명, 현원은 1,882명으로 파악된다. 조직 규모는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도시로서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민선 9기 핵심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주권, 공약관리, 첨단산업, 민생경제, 적극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

조직 및 공무원 현황	조직		공무원(명)			
	구분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차이
	국	8	전체	1,943	1,840	-103
	본청	46	본청	944	974	+30
	직속기관	2	직속기관	237	221	-16
	사업소	9	사업소	287	255	-32
	읍면동	25	읍·면·동	475	390	-85

제3절 원주시 현황과 과제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도시이자 중부내륙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해 왔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잇는 교통 입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의료기기산업 기반, 대학·병원·공공기관, 원도심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구조는 원주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여건은 단순한 성장 지속이 아니라 성장의 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우선 원주는 공간구조의 재편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원주를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공간구상과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원주가 더 이상 하나의 중심지만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아니라, 원도심·혁신도시·기업도시·서부권·농촌지역이 함께 연결되는 다핵적 도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도시와 성장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원도심 쇠퇴와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약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장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원주는 공공기관, 기업, 산업단지,

대학, 병원 등 성장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단순한 주거·이전 공간이 아니라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기업유치, 공공기관 협력, 대학·병원 연계가 결합된 실질적 성장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미래산업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도시안전, 교통, 재난 대응을 결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원주가 기존 의료기기산업을 넘어 의료AI,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도시, 공공데이터 활용을 결합한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갈 잠재력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을 넘어 산업공간, 기업유치, 인재양성, 국비확보, 규제특례, 도정·중앙정부 협력 등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통과 생활인프라의 재편이 필요하다. 원주는 광역교통망 확충, 서원주역세권 개발, 외곽순환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난, 보행환경, 생활권 이동권 등 다양한 교통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가 넓어지고 생활권이 분산될수록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통 정책은 도로 건설이나 노선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광역교통·대중교통·주차·보행·농촌 이동권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생활권 교통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안전·갈등 현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기후위기, 폭염과 한파, 도시재난, 수변·산림 관리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특히 소각장과 같은 갈등 현안은 일방적 행정 추진이나 단순한 찬반 구도로 해결하기 어렵다. 충분한 정보공개,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민 숙의가 결합된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전의 원주시정은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의 결정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반대 의견을 설득하며,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이 작동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민선 9기 시정은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 시민의 참여와 감시, 숙의와 책임이 존중되는 시민주권형 시정으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주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는 더 큰 도시가 되는 것을 넘어, 더 균형있고 더 신뢰받으며 살만한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도심과 신도시, 도시와 농촌, 첨단산업과 민생경제, 개발과 환경, 행정과 시민참여 등을 조화롭게 연계해 청년이 돌아오고 문화가 살아숨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진화하는 것이다.

제 2 장

민선 9기 원주시정 비전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

제2절/ 시민주권시대의 의미

제3절/ 시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2장 민선9기 원주시정 비전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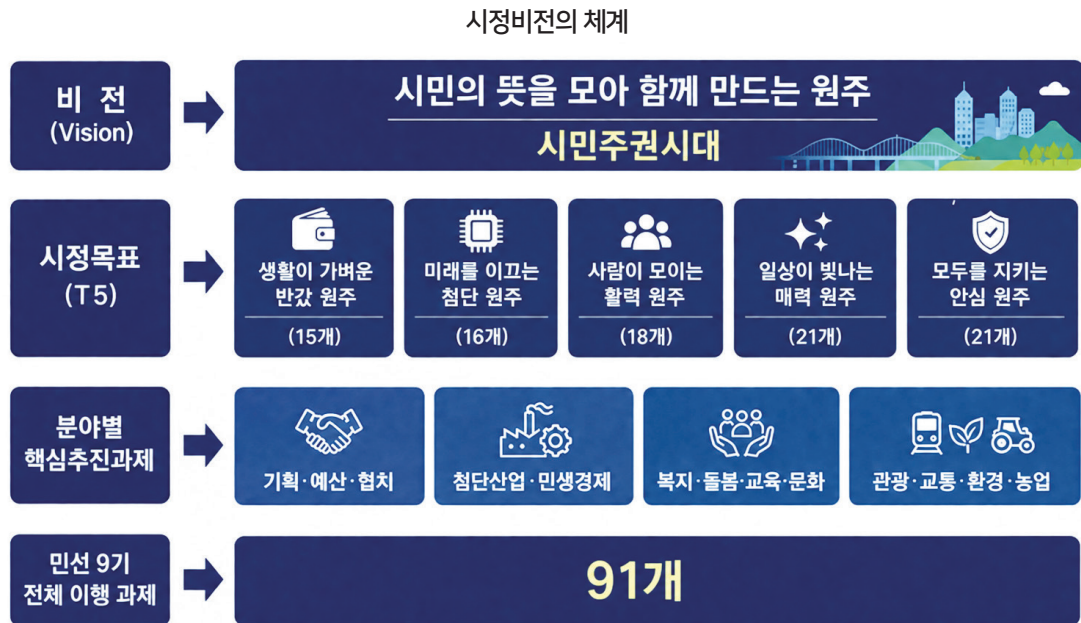
민선 9기 원주시정의 시정구호는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로 정하였다. 이는 민선 9기 시정이 시민 위에 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과 함께 원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정임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며 시민주권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시정목표는 구자열 시장의 원주의 미래를 위한 5대 비전(T5)을 토대로 5대 목표로 정리하였다.

민선 9기 5대 시정목표

01		생활이 가벼운 반값 원주	교통, 주거, 보육, 의료 공공요금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시정
02		미래로 이끄는 첨단 원주	의료AI, 첨단산업, 광역교통, 산업공간 재편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시정
03		사람이 모이는 활력 원주	청년, 신중년, 여성, 교육, 일자리,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시정
04		일상이 빛나는 매력 원주	문화, 관광, 체육, 도서관, 원도심 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시정
05		모두를 지키는 안심 원주	복지, 돌봄, 보건의료, 안전, 기후·환경 생활SOC를 강화하는 시정

5대 시정목표는 각각 별개의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된 민선 9기 시정의 지향이며 시민주권시대의 비전을 구체적 정책체계로 연결하는 표준이다. 향후 공약, 조직, 예산, 성과평가, 시민 참여제도는 이 시정구호와 5대 목표에 맞추어 정렬된다.



제2절 시민주권시대의 의미

민선 9기 원주시정의 기본 비전은 시민주권시대이다. 이는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나 민원인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정책의 집행과 결과를 직접 살피는 주체로 우뚝서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시민주권시대는 단순히 시민 의견을 듣는 행정에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의 제안이 접수만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검토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주권 시대는 공약관리, 예산, 민원, 주요 현안, 조직개편, 의회 협치, 강원도정 협력까지 시정 전반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기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 협치, 책임행정이 시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소통은 행정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대 의견까지 검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협치는 행정 내부 부서 간 협업, 시의회와의 협력,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한다. 책임행정은 시민에게 약속한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이다. 공약은 부서별 이행계획, 예산 반영, 추진상황 공개, 시민평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시민주권형 운영체계의 핵심은 시민제안, 공론화, 공약평가, 정보공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시민제안은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며, 공론화는 소각장 문제처럼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갈등 가능성이 큰 현안을 숙의하는 절차이다. 공약평가는 선거공약을 행정과제로 전환하여 담당부서, 이행계획, 예산, 일정,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정보공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신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결국 민선 9기 원주시정이 지향하는 시민주권시대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시정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시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해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한 생활불편은 신속히 해결하되, 갈등이 큰 의제는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 때 원주시는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시민주권형 지방정부로 나아갈 수 있다.

제3절 시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 구축

시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민선 9기 원주시정은 공약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원주시의 시민주권시대 실행을 위한 제도적 틀은 다음의 방식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시민제안, 주요 현안 공론화, 공약이행 점검, 시정평가, 제도개선 권고 기능 등의 제도화를 위해 “시민주권시대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행정이나 의회를 대신하는 결정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숙의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공론·제안·평가·권고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갈등 가능성이 큰 현안은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이 제안한 좋은 정책도 행정 내부에서 법령해석, 감사 부담, 부서 간 책임 회피, 소송 우려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면 시민주권은 실질화되기 어렵다. 적극

행정위원회는 기존 법정위원회의 지위를 유지하되, 공무원의 적극적 판단을 보호하고, 사전컨설팅과 면책지원, 부서 간 협업조정, 장기 미해결 민원해결을 지원하는 실행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시민주권 시대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장치라면, 적극행정위원회는 그 뜻을 행정성으로 전환하는 내부 실행장치가 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공약 실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민선 9기 공약은 교통, 주거, 복지, 산업, 문화, 환경, 안전 등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과제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주권, 공약관리, 예산, 성과평가, 민생경제, 첨단산업, 통합돌봄, 교통혁신,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을 행정조직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국을 민선 9기 공약 실행의 핵심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9기 시정은 ‘반값원주’와 ‘첨단원주’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기존 경제기능을 첨단경제와 민생경제의 양대 축으로 분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첨단경제는 의료AI, 의료AX, 디지털헬스케어, 드론·국방산업, 산업단지, 기업유치, 투자유치, 혁신 도시·기업도시 연계 등 원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당한다. 반면 민생경제 기능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청년·신중년 일자리, 여성경제활동,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경제를 담당한다. 두 기능은 추진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주시의회와의 협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시민주권시대는 시민과 행정의 관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약사업,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조직개편, 주요 현안 해결은 모두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조율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먼저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와 사유를 책임 있게 밝히는 방식이 민선 9기 협치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청 소속 위원회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 원주시에는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법령상 설치가 강제된 위원회, 장기 미개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대표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위원회가 함께 존재한다. 위원회 정비는 단순 축소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정위원회는 존치하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저활동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며, 중복 위축을 줄이고, 성별·세대·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시민참여·협치 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



제 3 장

분야별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행정 조직 및 기획·예산·협치 분야

제2절/ 민생경제 및 첨단산업 분야

제3절/ 돌봄·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

제4절/ 관광·교통·환경·도시·농업 분야

제3장

분야별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제 1 절 행정·조직 및 기획·예산·협치 분야

1 행정·조직 분야

민선 9기 행정·조직 분야 비전 설정	시민주권시대의 시정 체질 개선, 시민 중심의 조직 역할과 기능 강화의 발판 마련
----------------------------	---

1. 행정·조직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신속한 민원 처리에 있어 시스템 연계성 및 정보 아카이브의 부족으로 복수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고차원·복합민원 발생 시 책임 전가, 처리 장기화 등의 제약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민원 콜센터(☎033-742-2111) 운영 형태를 정보통신 기반 민원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및 기능 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서 칸막이 행정문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 대응과 고차원·복합민원 해결의 한계, 야간과 휴일 민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민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정보통신(ICT) 기반 디지털 민원 플랫폼 구축을 새롭게 검토하여 민원 대응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원주시정에서 2014년부터 약 10년간 시행된 다면평가제를 보완책 없이 2023. 10. 20. 폐지하여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신뢰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 조직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근무 평가 체계의 개선과 도입이 필요하다. 시청 조직의 인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상하관계의 균형 있는 수정보완형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현실에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 진단과 분석, 재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본청 8개국과 읍면동의 대동제 등 명칭 변경과 부서 업무 수행의 적합성 평가, 행정 시스템과 시민 편의, 신속한 정책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 및 예산 운용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책임 읍·면·동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체제로의 환원 및 기존 8개 국(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2. 민선 9기 행정·조직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기존 민원 콜센터(☎033-742-2111)의 역할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정부 정책에 맞게 설치하여 민원 사각지대의 해소 및 24시간 실시간 민원 응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다면평가제의 부활은 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지 승진 참고용 인사 제도가 아닌 인사·교육·승진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 제도로써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민관협의체를 활용한 시민 의견 수렴 후 책임 읍·면·동제의 폐지 및 기존 체제 환원 및 유연한 관서 신설로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3. 민선 9기 핵심 사업 제언

1) 핵심 추진 사업

① 시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한 첨단 민원플랫폼 설치 운영

- 민원의 단순 전송·이관 방식을 넘어 원스톱 방식의 복합민원 처리제 도입, AI 정보통신 기반 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② 다면평가제의 재도입 및 인사관리 체계 개선

- 승진 참고용 다면평가제의 운영이 아닌, 인사와 교육·승진 등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원주형 차세대 다면평가 모델’을 재설계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③ 책임읍면동제 폐지 및 일반동 체제 환원 추진

- 주민 혼란을 야기하는 책임읍면동제 폐지 및 기존 체제로 환원하고 기존 체제 환원 시, 인구 밀집도·민원 업무량·관할 면적 및 도농거리 등 지표화하여 인력·예산의 효율적 배분 실현

④ 기준인건비 내 고효율·유연 조직 설계

- 5급 국장(단장·실장) 직위 신설로 일부 국 비대화 방지 및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2 기획·예산·협치 분야

민선 9기
기획·예산·협치 분야
비전 설정

주권적인 시민 참여·제안, 행정의 책임과 보호,
적극 행정의 실현과 공개 시정 구현

1. 기획·예산·협치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단지 위원회 운영은 공무원의 태도 개선이나 우수사례 포상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법령 해석, 부서 간 책임 회피, 감사 부담, 민원 갈등, 예산·인허가·규제 문제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바꾸는 행정혁신 과제이다.
-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활동은 강원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전무한 상태이며, 25개 읍면동 가운데 2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법정 기구가 아닌 임시기구로서 주민자치 총회 및 위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재정 운용의 적시성·효율성 제고) 보수적이고 평면적인 예산 운영 형태로는 재정 운용 적시성,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기 중 재정 운용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중간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매칭 시에도 시비 비율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심의 대상 의무 지정·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는 관리 비용만 가중시킬 뿐, 시 재원 확보와 전반적인 시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유동적인 자산 중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민선 9기 기획·예산·협치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민선 9기 원주시정의 핵심 철학은 ‘시민주권시대’이다.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시민을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나 민원인이 아니라, 시정의 주요 의제 발굴, 공론화, 정책 제언, 공약 점검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한 시민참여 기반이다. 위원회는 행정이나 의회를 대신하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모으고 숙의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공론·제언·검토·평가·권고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적극행정위원회 역할 강화) 시장 직속 격상, 전담인력 배치 및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민선 9기에서는 시장 직속 핵심위원회로 격상하여 현안 해결, 공무원 보호, 부서 간 협업 조정, 시민체감형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 (주민자치회 전환) 타 지자체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도농복합 특성을 반영해 3단계 5년 로드맵의 순차적인 시행 및 확대 필요하다.

- (재정 운용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연말 정리추경 관행을 타파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필요한 민생·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이 필요하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단순한 기계식 매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전 심의 진행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공유재산 효율 운영) 매각 대상 행정재산 웹사이트 상시 공개, 보존의 필요성이 있지만, 미활용 중인 토지 자산 등에 대해서는 장기 대부를 통한 안정적 세입원 마련이 요구된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숙의하여 시정에 제안·권고·평가하는 시장 직속 시민참여기구를 설치하여 민선 9기 원주시정의 정체성을 제도화

② 적극행정위원회의 시장 직속 격상

- 적극행정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지위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면책 등 위원회 기능 강화

③ 원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 3단계 5년 로드맵(시범→확대→전면 전환)으로 단계적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④ 예산 환원제 및 부서장 책임제 도입

- ‘중간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예산 환원제를 도입 및 사업비 미집행, 대규모 불용액 발생 시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는 부서장 책임제 도입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⑤ 원주시 ESG 경영의 도입과 사업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을 도입하여 기존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에 더해 민간 영역까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이행 수단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통합 관리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숙의하고 제안·권고·평가하는 시장 직속의 새로운 시민참여기구 신설과 운영

② 원주시 ESG 경영의 도입

-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흡수·통합하는 동시에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체계 정립

제 2 절 민생경제 및 첨단산업 분야

1 민생경제 분야

민선 9기 민생경제 분야 비전 설정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화·관광·창업·생활형 AI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도시, 원주
---------------------------	---

1. 민생경제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그동안 원주시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원도심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면서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였고, 지속 가능한 상권생태계 조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성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원도심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빈집포 증가, 소비위축 등으로 상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또한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접근성과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활용도가 낮고, 창업부터 성장·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역시 시설정비와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관광·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향후 민생경제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과 개별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문화·관광·창업·생활형 AI가 융합된 체류형 경제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선 9기 민생경제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 민생경제정책은 지원중심에서 성장중심으로 전환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문화·관광·창업·생활형 AI가 융합된 체류형 경제공간으로 재편하여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을 실현한다.
- 원도심 재생정책을 시설중심에서 체류형 경제도시 조성으로 전환

단순한 환경개선과 물리적 정비를 넘어 역사·문화·관광·청년창업·골목상권이 융합된 복합경제 공간을 조성하고, 원주역(정지밭)~중앙시장~문화거리~원주감영을 연결하는 문화경제축을 구축하여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혁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경영·세무·노무·법률·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성장·위기대응·재도약까지 생애주기별 365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책안내, 교육, 금융·판로 연계, 디지털 전환을 통합·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정책을 구현한다.
-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생경제 혁신기반 구축
생활형 AI 리빙랩¹⁾과 AI 기반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스마트 마케팅, 관광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와 첨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원주시 사업체의 약 96%(약 45,000개)는 소상공인으로, 약 7만명이 종사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 시민 약 38%가 소상공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곧, 원주 경제의 경쟁력
- 현재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 경영, 금융, 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운영되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지원절차도 복잡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중복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
- 민선 9기에는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²⁾를 중심으로 창업·성장·위기극복·재도약까지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경영·세무·노무·법률·금융·디지털 전환·판로개척을 통합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
-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원도심 문화의거리 1층(예: (구)밝음신협 1층)에 설치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을 넘어 상담·교육·창업·디지털전환·네트워킹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민생경제 전문도서관, 북카페, 공유 오피스, 회의실, 교육공간, 라운지 등을 갖춘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배우며 협력하는 원주의 대표 민생경제 허브이자 「소상공인 365」의 중심 플랫폼으로 육성

1)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개선하는 ‘시민참여형 혁신플랫폼’입니다. 기술을 먼저 만들고 시민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문제를 제시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실생활에서 검증하는 방식.

2) 「소상공인 라이브러리움(Librarium)」을 조성하여 상담·교육·창업지원 기능과 함께 전문자료실, 북카페, 공유공간, 회의실, 디지털 체험공간 등을 갖춘 복합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원도심의 혁신거점으로 육성.

② 원주형 생활AI 시민확장사업

- AI는 산업·의료·행정·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를 혁신하는 핵심기술로, 앞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새로운 공공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재 AI정책은 첨단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
- 원주시는 AI 특화시범도시와 의료 AX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원도심 공동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격차 등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민선 9기에는 첨단산업 중심의 AI정책을 시민중심의 생활AI 정책으로 확장하여, 산업혁신의 성과가 원도심과 골목상권, 농촌지역까지 확산되는 포용적 AI 도시 구현이 필요
- 민선 9기에는 AI정책을 산업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확장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AI 리빙랩을 운영하고, 돌봄·복지·교육·교통·안전·문화·관광·골목상권 등 시민생활 전반에 AI 서비스를 확산함으로써 산업정책과 시민정책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AI 도시를 구현
- 원주형 생활AI는 「원도심 활성화 → 시민참여 → 생활AI 서비스 → 디지털 포용 → 지역 균형 발전 →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추진. 이를 통해 AI 혜택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농촌마을까지 확산하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AI 도시를 구현

③ 원도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원주형 성수동 프로젝트)

-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빈점포 증가, 노후 건축물,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시재생·문화·관광·경제 정책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추진되고 정책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에 한계
- 원도심을 서울 성수동과 같이 문화·역사·창업·예술·관광·상권이 융합된 복합문화경제지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과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민선 9기에서는 원도심을 단순한 도시재생 대상이 아니라 원주역사·문화·경제를 대표하는 핵심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직속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TF)」을 설치하고, 문화·경제·관광·도시재생 정책을 통합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
- “원주형 성수동 프로젝트”를 민선 9기의 대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원주역(정지뜰)-문화의거리-중앙시장-원주감영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상권 벨트를 조성. 이를 기반으로 문화시설 확충,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야간경제 및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여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합문화경제지구를 조성
- 「통합추진체계 구축 → 공간축조성 → 문화·경제융합 → 청년·창업활성화 → 민관협력 거버넌스 → 지속 가능한 원도심 경제생태계 구축」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TF)」 설치·운영

-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도시재생, 문화, 관광, 경제, 교통 등 여러부서에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서 간 협업과 정책조정이 어렵고, 통합적인 도시브랜딩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으로는 원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민선 9기 출범후 100일 이내 시장직속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TF)」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원주형 성수동 프로젝트’의 실행체계를 구축. 시장이 직접 정책을 총괄·조정하거나 전문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문화·관광·경제·도시재생·교통 등 관련 정책을 통합기획·조정

2 첨단산업 분야

민선 9기 첨단산업 분야 비전 설정	「의료AX 기반 디지털헬스 혁신생태계 선도도시 원주」 - 산·학·연·병·관 협력과 시민참여 의료AX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생명공동체 도시, 원주 구현 -
---------------------------	--

1. 첨단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시 의료기기산업 육성, 의료AI 기반조성, AI 실증사업, 공공형 GPU센터구축, 디지털헬스케어 허브조성, 반도체 기반구축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원주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국비확보는 의미있는 성과였으나, 사업이 개별과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서울·수도권 중심의 협력체계에 의존하면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의료기기기업, 대학, 병원, 연구기관, 행정을 연결하는 지역주도의 산·학·연·병·관 협력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가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 의료데이터 활용과 AI 전문인력양성, 임상실증, 기술사업화 등 혁신 전 주기를 연결하는 지원 체계가 아직 부족하며, 반도체 분야도 기반시설 구축 이후 운영전략과 기업유치, 산업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민선 9기에는 개별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AI를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산·학·연·병·관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기업성장, 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국가사업의 성과가 지역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2. 민선 9기 첨단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단순한 국비확보와 개별사업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대학, 병원, 연구기관,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연·병·관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협력의 성숙도와 연결성을 높여 국가사업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요구된다.
- 의료기기산업을 기반으로 의료AI, 의료AX,³⁾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융합하여 원주만의 특화산업을 고도화. 연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원주를 대한민국 대표의료AI 산업도시로 육성이 필요하다.

3) 의료 AX(Medical 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료 전반을 혁신(AI Transformation, AX)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료AX 특구, AI 특화시범도시, 서원주 제2관교, 첨단의료복합단지, AI 실증거점 등 핵심사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계하는 통합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장직속「원주시 첨단산업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조정하여 국비확보, 투자유치, 기업성장, 인재양성, 성과관리를 통합·추진하고 정책 간 시너지와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첨단산업정책을 기술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확장하고 의료AI와 의료데이터를 시민의 생활데이터(라이프로그, Lifelog)⁴⁾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돌봄·복지·교육·문화·예술기술(Art&Tech)⁵⁾ 등 생활영역으로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문제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AI기술을 실생활에서 실증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AI를 확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실천형 AI(Actionable AI)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성과와 이익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포용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양성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의료데이터활용, 임상실증, 기술사업화, 창업, 인증, 투자·펀딩, 시장진출,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성장으로 연결이 필요하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단 설치

- 민선 9기 원주시는 이미 확보한 반도체, 의료AI, 디지털헬스케어, AI특화 시범도시 등 미래 산업 국가사업을 기반으로 의료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특구를 조성하고,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 제2관교형 AI·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이 필요
- 이를 위해 개별사업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하고, 서원주역·기업도시·혁신도시를 연계한 기업유치, 인재양성, 연구개발, 투자유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 전략추진단은 국가 공모사업 발굴, 기업 유치, 대학 및 병원과의 협력, 전문인력양성, 규제 개선, 투자유치, 국비확보, 성과관리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원주시의 모든 첨단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역할도 담당
- 첨단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미래산업 정책 총괄하고 의료 AX 대전환 특구, AI 특화 시범도시, 서원주역 제2관교형 AI·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핵심 전략사업 총괄 추진

4) 라이프로그(Lifelog)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지속적으로 기록·축적하는 것을 의미. 의료 시정책에서는 단순한 건강기록이 아니라 일상생활 데이터와 의료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를 구현하는 핵심기반으로 활용. 라이프로그의 주요내용은 (1)건강데이터: 걸음수, 심박수, 혈압, 혈당, 수면, 체온, 체중 등, (2) 생활데이터: 식습관, 운동, 이동, 활동량, 스마트워치·웨어러블 데이터, (3) 환경데이터: 미세먼지, 기온, 소음, 생활환경, (4) 사회활동데이터: 돌봄이용, 복지서비스, 문화활동, 교육참여 등, (5) 의료데이터: 병원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처방정보 등.

5) 예술기술(Art & Tech)은 예술과 인공지능(AI), XR, 미디어아트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이다. 공연·전시·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도시의 문화 경쟁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원주는 의료AI와 문화자산을 연계한 예술기술 콘텐츠를 육성해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미래형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② 강원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

- 예타기획용역이 추진중인 「강원의료·웰니스 AX 대전환사업」을 민선9기 첨단산업분야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 본사업으로 연계하여 원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 서원주 의료AI 연구산업단지와 원주역·홍업권 의료AX 특구조성은 강원의료·웰니스 AX 대전환사업의 후속 핵심사업으로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AI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거점 조성
-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직속「원주시 첨단산업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기업·연구기관·행정이 참여하는 산학연병관 협력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 주도의 의료AX 혁신생태계를 조성
- 의료AI, 디지털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AI 특화시범도시, AI리빙랩 등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의료데이터를 돌봄·복지·교육·문화·생활데이터(라이프로그)까지 확장하여 시민 참여형 의료AX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비확보와 중앙부처 협력을 확대하여 원주를 대한민국 의료·웰니스 AX 선도 도시로 육성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시장직속「원주시 첨단산업전략추진단」설치

- 민선 9기 원주시는 반도체, 의료AI, 디지털헬스케어, AI 특화시범도시 등 기존 국가사업을 기반으로 의료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특구를 조성하고,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 제2판교형 AI·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 의료AI 혁신도시로 도약
- 이를 위해 개별사업중심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의료AX, 첨단의료복합단지, AI 특화시범도시, 서원주역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계하고, 기업유치·인재양성·연구개발·문화콘텐츠개발·투자유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시장직속 전략 컨트롤 타워를 구축
- 시장 직속「첨단산업전략추진단」은 첨단산업 정책의 종합기획·조정과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공모사업발굴, 국비확보, 기업유치, 투자유치, 규제개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병관 협력, 성과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실행력과 예산효율성 제고
- 첨단산업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AX 대전환특구, AI 특화시범도시, 서원주역 제2판교형 AI·첨단산업클러스터 등 핵심전략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하여 모든 사업이 동일한 비전과 전략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
- 산학연병관 협력기반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기업성장,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제 3 절 돌봄·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

1 돌봄 분야

민선 9기 돌봄 분야 비전 설정	사람을 돌보는 정책에서, 삶을 연결하는 정책으로
-------------------------	----------------------------

1. 돌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그동안 원주시 돌봄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 연장, 의료·요양 통합돌봄, 청년공간 조성 등 생애주기별 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저출생과 맞벌이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돌봄시간 연장사업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접근성을 높인 대표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 반면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체계는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였다. 돌봄인력 부족, 장기 대기, 야간·긴급돌봄의 부족, 권역별 시설 불균형 등은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한계로 나타났으며, 의료·복지·청소년·청년 정책 간 연계성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 또한 돌봄서비스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2. 민선 9기 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 돌봄정책은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돌봄은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 사회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앞으로의 돌봄정책은 저출생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돌봄은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기반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민선 9기 돌봄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을 양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영유아 시간제 보육료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아이돌봄마을 조성, 가족 중심 돌봄문화 확산,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강화 등 개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아울러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복지·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여야 한다.
- 공급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민관 협력 강화가 병행될 때 돌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민선 9기 돌봄정책이 단순히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청소년은 안전하게 꿈을 키우며, 청년은 지역에 정착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어르신은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민선9기 돌봄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기업도시 공공형 어린이 병원 신설

- 소아전문과 진료, 24시간 소아응급, 발달·재활 기능을 통합한 '서원주권 핵심 공공 어린이 병원' 설치로 원주가 강원권의 소아·모자보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
- 기존 건물 임대 + 리모델링 방식으로 신속하게 병원을 설립.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② 통합돌봄 전담조직 운영

- 본청 통합돌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통합돌봄과 신설(현재 통합돌봄팀 운영)하여 본청, 읍면동, 보건소 등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돌봄수요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③ 중단없는 생애주기별 교육·돌봄 성장 바우처

- 현행 꿈이룸 바우처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과 중등 청소년에게 각각 6만원, 7만원 지급(초등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

- 지급 방식 바우처에서 지역화폐 변경(사용처는 예체능 학원비에서 도서구입, 문화체험, 진로탐색, 자격증 취득, 대중교통비로 확대)

④ 아이돌봄·보육혁신 2-5-2 시간제·야간보육 확대

- 원주형 생활맞춤형 시간제·야간보육체계 구축, 아이돌봄 중심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지속 가능한 돌봄 운영기반 마련

⑤ 원주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 돌봄 수요 기반 생활권별 아이돌봄마을 조성 및 365일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연계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돌봄공백 해소

⑥ 청소년 마음지원관 운영

-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마음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위기지원의 지역 거점기관으로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예방교육, 부모상담 등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원주형 통합돌봄 사업 운영과 통합돌봄과 신설

-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사각지대(읍, 면 지역)에 균일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성
- 고령, 장애,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 복지국 산하 경로복지과 통합돌봄팀을 통합돌봄과 승격 신설

② 공공형 어린이 병원

- 소아 의료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권 어린이 거점 의료 기관 부재
- 기업도시 내 연세세브란스기독병원 제2병원 건립과 연계, 소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권역별 소아 진료 거점 기능 내실화
- 지역필수 의료 특별회계 재원 확보

2 교육 분야

민선 9기
교육 분야
비전 설정

교육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도시로

1. 교육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시 교육정책은 교육복지 기반 확대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꿈이룸 바우처, 교육특구 대응, 청소년 정책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유치와 지역대학 협력사업 등은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전략은 부족하였다. 청소년 참여 확대, 미래역량 교육, 지역대학과 산업계 연계, 시설 재구조화 등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 이에 향후 원주시 교육 정책은 교육·문화·복지·산업이 연계되는 교육생태계 구축과 청소년 중심 행정체계 마련 등 보완이 요구된다.

2. 민선 9기 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 교육정책은 기존 원주 교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을 지역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 교육은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학교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성장 기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국가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벌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 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일자리, 창업, 정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인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청소년 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참여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꿈이룸 바우처 등 기존 성장지원 정책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속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아이부터 청년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는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단순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이는 꿈을 키우고, 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청년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고, 시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성장전략이다. 민선 9기 원주시는 생애주기별 교육지원과 지역혁신을 연계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공약 수립과정에서 각각의 개별 공약으로 나누어 제시된 「50+센터 및 50+재단 설립」과 「인생 재설계 패키지」, 「신중년 인생 2막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단일한 영역의 구조 안에서 통합
- 물리적 거점이자 교육·상담을 집행하는 실무 조직인 「인생 2막 종합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개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주시의 고용 정책 기획과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원주 일자리지원 통합 플러스 센터」로 확대, 개편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지역대학과 연계·협력·지원과 인재양성체계 구성

- 국립대 1개소, 4개 사립대가 위치하고 있음. 대학 연구·교육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대학과 원주시가 협력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 RISE(앵커)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및 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확대

3 문화 분야

민선 9기
문화 분야
비전 설정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에서,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로

1. 문화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현재까지의 원주시 문화정책은 축제와 생활문화, 문화예술 지원, 그림책 특화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 특히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은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문화정책은 개별 행사와 사업 운영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 문화정책 연구,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문화산업 육성,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 또한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문화와 관광·교육·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민선 9기 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 문화정책은 기존 원주의 문화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를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 문화는 단순히 공연과 축제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경쟁력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따라서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 보장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안전망 구축을 문화정책의 기본 가치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문화행사 운영기관을 넘어 지역문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플랫폼으로, 문화원은 원주학 연구와 지역의 역사·정체성을 계승하는 기관으로,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콘텐츠와

디지털문화 창작의 거점으로, 역사박물관 및 전통문화교육원은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각각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문화예술인과 시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 기획과 연구 기능을 체계화하여 정책 중심의 문화행정을 구축하여야 한다.
- 특히 원주가 보유한 [법정 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WHO 건강도시] 등 국제적 도시 브랜드를 개별 사업이 아닌 시정 전반의 철학으로 활용하고, 그림책 특화도시와 [책세권 도시], 지역 고유의 [로컬 콘텐츠(IP)] 등을 문화·교육·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문화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히 민선 9기 의료 첨단산업 정책이 원주 특화콘텐츠 발굴·육성과 연계된 아트앤테크(Art&Tech) 사업으로 의료기술과 예술치유가 결합된 사회적 처방 콘텐츠, 관광 인프라와 의료 인프라가 연계된 관광산업 등 원주시 핵심 산업 내 문화산업 육성을 포함하여 문화로 발전하는 원주의 특화 전략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는 앞으로의 문화정책이 단순히 시민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정책을 넘어 시민과 함께 문화를 만들고, 문화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정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시민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인은 안정적으로 창작하며, 청년은 문화산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관광객은 원주만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9기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문화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경쟁력이다.
- 민선 9기 원주시는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문화와 교육, 관광, 산업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문화로 성장하고 문화로 기억되는 도시 원주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원주 도시브랜드 기반 정책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WHO 건강도시 이니셔티브: 의료-디지털헬스케어-복지-돌봄-체육-문화 사업의 가치체계 재정립 및 홍보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시민사회 - 그림책 - 한도시한책읽기운동 - 도서관 - 책세권 - 비엔날레 사업가치체계 재정립 및 홍보
- 법정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 - 문화예술생태계 - 문화 안전망 - 콘텐츠산업 등 사업가치 체계 재정립 및 홍보

② 「원주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연구를 통해 현황 진단 및 향후 추진 방향성 도출
- 도시문화 활성화 TF 구축 및 「원주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 영역별 추진기관·주체 구축 및 세부 추진

③ 책세권 도시 조성

- 구·원주역 강원대표도서관 유지, 작은도서관 확충, 미래·과학 테마도서관, 태장 북부 도서관 (키즈&스터디카페) 공약 전략적 통합 추진
- 시설 확충 등 시민 체감까지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기존 공간을 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부터 단계별 추진
- 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 브랜드, 생활문화, 문화안전망, 원도심 활성화, 교육도시, 미래인재 양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

④ 원주 정체성 기반 로컬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

- 지역 보유자원 및 시정변화에 따른 특화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로컬콘텐츠 산업화 기반 마련
- 원주의 문화·산업·관광 자원을 콘텐츠 IP로 전환하여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⑤ 창의문화도시 재도약(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26’ 구축)

- 문화정보 및 시민 문화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공유하는 디지털 문화거점 구축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도시문화 확장력을 강화

⑥ 문화데이터, 로컬콘텐츠, 로컬IP(원주아카이브 구축 기반 조성 사업)

- 「원주아카이브」 전담팀 신설을 통한 연구·수집 기능 확보
- 고품질의 원주아카이브 데이터를 지역 문화 기획자, 예술가, 관광 스타트업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원천 소스로 개방

⑦ 종축장 부지 문화창의산업 거점화

- 청년·예술·창의 콘텐츠 복합센터, 청년문화실험실·아트레지던시, 공연·전시·교육 공간, 도시숲·산책로·가족친화 문화공원, 협력플랫폼(대학·단체·사회적경제) 등으로 공간 활용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문화정책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고도화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재)원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 고유 기능 정상화 및 전문 경영체계 구축
- 축제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문화행정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및 예산 구조 개편
- 영상미디어센터의 소관부서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공공 영상미디어 플랫폼 기능 강화
- 지역문화 아카이브 체계 개편으로 지역문화 보존과 활용 체계 고도화
- 지역특화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강원콘텐츠 진흥원 유치 필요

② 도시 공간 실태조사 및 재구조화

- 문화 공간, 생활 SOC, 관광거점 등 공공공간 및 주요 민간 공간 활용 실태조사 및 시민 공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공간의 불균형과 비효율 문제를 진단하고 재구조화
- 공간 기능 재배치, 유휴·저활용 공간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권역별 핵심 거점 및 생활거점 재설정 등을 통해 시민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간정책 구현

제 4 절 관광·교통·환경·도시·농업 분야

1 관광 분야

민선 9기 관광 분야 비전 설정	경유 관광의 경쟁력 강화, 체재 관광의 기회 창출을 통한 「국민 여가 도시」 원주 실현
-------------------------	---

1. 관광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시의 관광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과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권자인 시민과의 소통과 교류 부족: 원주 관광 관련 정책 역시, 국민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사업은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 부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부서 간 수평적 소통과 협력 부족: 관광 분야는 하나의 부서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속성을 지닌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관광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과제는 관련 부서 간 철저한 협업 기반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정책적 소통 및 사업 효율성을 위한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수직적(시민)·수평적(부서) 소통과 교류가 부족한 관광 정책과 과제는 정당성 부족, 주민 반발과 갈등 증가,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 신뢰도 저하, 시민 체감도(수용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 원주 관광은 양호한 배후시장 및 물리적 접근성(시장과 교통)으로 관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오히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경유성 관광지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 체재형 관광 감소, 경유형 관광 증가는 관광지출 또는 소비의 감소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관광 경제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이러한 상황과 현재 원주 관광 관련 정책 방향성과 추진 업무(주요 과제 포함)의 검토 결과; 1) 원주의 관광정책성과 관광브랜드가 관광객에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원주 관광의 포지셔닝

문제), 2)축제의 정치화(전문성이 배제된 의사결정)로 사업의 지속성 또는 연속성 단절의 문제, 3)관광소비의 낮은 지역경제 흡수 수준과 지역주민의 관광편익에 대한 낮은 체감도, 4)지역사회의 원주 관광정책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5)「관광객-지역문화」 간 거리적(교통)·기능적(홍보·마케팅) 연계성·연결성 부족 등이 원주관광의 취약성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현재 원주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관광 정체성(Identity)이 불명확하고, 상호 연결(Connection)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관광객을 더 유치하자’가 아니라 ‘원주는 어떤 관광도시가 될 것인가?’와 ‘관광객을 관광거점과 지역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관 협업 기반의 정책적·행정적 노력과 시민·관광객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해법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원주의 물리적·입지적·산업적 변화와 특성에 기인한 원주관광의 한계(경유성과 체재성 관광의 변화)를 기회로 전환하는 “원주 관광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 기존의 강한 인구 유인력(치악산국립공원, 뮤지엄산, 소금산, 둘레길, 축제 등)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로 반나절 관광경제권(Half-Day Wellness Tourism Economy) 구축으로 경유형 관광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 원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 기반의 新 인구 유인력 확보로 연간 교류(경유)형 관광객 증대, 체류형 관광객 비중 확대(원주형 체재관광 발굴), 관광소비액 규모 확대 및 지역 확산, 웰니스 관광 특화 도시의 정체성 확립, 브랜드 가치 확보 등 원주의 新 관광 기반 도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 원주의 경유관광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체재관광의 기회의 창출을 통한 원주관광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 목표, 방안 등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회복과 재생의 특수목적관광(SIT) 체계 구축

-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과 경기침체, 기후위기와 재난, 고령화와 인구감소, 관계빈곤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와 번아웃, 높은 생활비와 스트레스 등 불확실성 위기와 국민의 회복력 위기 직면
- 과거 관광은 대규모 단체관광의 관광상품 소비 중심에서 미래 관광은 쉼(Recovery), 치유(Healing), 재생(Regeneration) 등을 통한 삶의 전환(Transformation) 관련 경험과 가치 소비의 관광 패러다임 변화 예상
- 세계 관광시장은 이미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치유 관광(Healing Tourism), 느린 관광

(Slow Tourism), 회복 관광(Regenerative Tourism) 등 특수 목적(Special Interests)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 중

- 원주는 수도권 1시간 접근성, 건강도시 브랜드, 치악산국립공원과 전통 사찰, 의료·교육 인프라, 안전한 생명 먹거리 등 건강과 치유 관련 재생과 회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회복형 SIT(Special Interest Tourism: 특수목적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경쟁력 확보
- 국민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자산의 잠재력으로 「쉽이 관광이 되고, 회복이 경쟁력이 되는 도시」 구현으로 국민 정신건강 회복, 국민 여가권 증진, 지역소멸 대응, 체재형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다각화, 건강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

② 원주형 웰니스 캠핑산업생태계 구축

- 광역교통망 발달에 의한 접근성 향상으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원주의 새로운 체재형 관광 유형 발굴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원주 관광의 가장 큰 약점은 ‘체류성 부족’이지만, 반면 캠핑은 본질적으로 1박 이상의 체류를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이고, 배후 대도시 인접성과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
- 최근 단순 야영 중심의 캠핑 수요는 줄고 있는 경향이지만, 웰니스·치유·반려동물 친화·위케이션·로컬푸드·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산업과의 연계되는 특수 목적형 캠핑은 새로운 여가패턴으로서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러한 추세는 자연 기반의 웰니스 가치와 강하게 연결되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주형 웰니스 캠핑산업생태계 구축은 최근의 건강지향형 관광·휴양 가치관, 배후 수도권 거대 시장 환경(약 2,400만 명), 원주의 입지적 경쟁력(교통), 원주의 자원 특성(자연환경, 로컬문화, 생명농업)과 장소 정체성(건강, 의료산업)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재형 관광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캠핑은 체류(최소 1박)를 전제로 하는 관광이며, 원주의 자연환경과 건강도시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 배후 수도권 시장 대상의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원주형 캠핑 산업 생태계 구축」은 관광정책을 넘어 건강·웰니스·농업·지역경제·구도심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원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기대

③ 원주형 도보관광 체계 구축(W-Walking Tourism Corridor)

- 최근 우리 사회의 도보문화는 돌레길 걷기나 트레킹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원주는 건강, 문화, 치유, 공동체 결합의 도보문화(체육)와 관광·휴양 융합의 새로운 경제 구조화가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
- 원주 전역의 주요 거점(상징적 장소와 소통·교류의 거점)을 보도(보행로)의 유기적 연결로

사람의 흐름과 경제의 순환으로 구조화하는 「원주의 도보관광 체계(Walking Tourism System)」는 독립적 관광정책으로 추진보다는, “관광+보건+복지+환경+문화+교통”의 통합 정책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 원주의 건강도시 이미지, 우수한 자연환경, 구도심 활성화, 체류관광 확대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원주형 도보관광시스템으로 이는 단순히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걷기를 통해 도시를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유형·체류형 관광 플랫폼’으로 전개
- 원주 도보관광 체계화는 로컬문화 중심 구도심(원도심) 활성화, 치악산둘레길 중심의 자연 트래킹 활성화, 섬강 중심 수변 도보문화(River Walking) 활성화 등 복융합적 접근으로 도보 기반의 문화와 인구 유인력을 경제 흐름으로 연결하는 경제 구조화 구현 수단
- ‘걷는 것이 관광이 되고, 머무름이 행복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웰니스 도보관광 도시 원주’를 지향하는 시스템화로 ‘걷는 문화’의 브랜드 가치 확보

④ 관광 순환교통체계 구축(W-Tourism Transportation Corridor)

- 원주의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역내 이동과 연결성이 취약하므로 관광객과 관광거점과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관광교통 구조 개선 필요
- 원주의 관광 순환교통체계는 단순히 관광버스(기존 시티투어버스 형식)를 운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광객의 이동 자체를 관광 경험으로 만들고, 관광 소비를 구도심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가치 순환형 시스템(Tourism Value Chain System)으로 고도화가 필요
- 새로운 관광순환 교통체계는 기존 시티버스(관광형 시티투어 버스)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의 관광교통망(Corridor)으로 재정의가 필요
- 원주 관광 순환교통체계는 원주 주요 관광거점들을 저탄소 스마트 모빌리티(관광 순환형 셔틀, 수요응답형 관광택시, 통합예약형 전세버스 등)로 다양하게 연결하여 관광객의 이동 자체를 건강·치유·문화 경험으로 전환하고, 체류시간과 지역소비를 증대시키는 차별적인 원주형 관광 시스템으로 정착(단순한 버스노선 개편이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원주형 관광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전개) 필요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운영

- 원주는 “축제를 많이 하는 도시”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기억되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축제 자체보다는 관광객 유입, 소비 확대, 공동체 참여, 도시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재설정 필요

- 특히, 민선 단체장 교체 후 기존 축제의 폐지, 예산의 축소, 신규 축제 신설, 축제 명칭 변경 등의 현상이 반복되어 그동안 축제의 브랜드 축적 실패, 관광객 혼란, 축제의 정치화, 행정 비용 증가, 관광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 경험
- 민선 9기에서는 ‘단체장에 의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과 도시의 자산으로 축제를 육성하는 체계’구축으로 원주 경유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축제를 “행사”가 아니라 ‘관광상품 및 문화상품’으로 재정의)
- 축제를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축제를 통해 머무름과 행복을 만드는 도시로서 원주 축제는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원주 축제를 효율적 관리(발굴, 운영, 평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통합 관리)하고, 축제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안
- 문제점(한계점)
 - 일부 효율성(효과성과 수용성)이 떨어지는 축제의 유지 타당성 문제
 - 축제의 난립에 의한 원주의 도시 정체성 혼란과 예산 낭비 위험
 - 체계적인 평가 체계 부재로 인한 축제의 효율적 성과관리 미흡
- 향후 대책 / 개선 필요사항
 - 원주의 경유성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축제, 이벤트 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지속 가능성 판단 필요
 - 축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광객 유입, 소비 확대, 도시 브랜드 강화’를 목표와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기존 관광·문화 축제 및 이벤트 등의 선별과 경쟁력 강화 필요
 - 축제 운영관리 담당 부서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축제 운영·관리·평가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

2 교통 분야

민선 9기 교통 분야 비전 설정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이 정책 수립부터 참여하는 「시민주권형 교통복지도시」원주 실현
-------------------------	--

1. 교통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는 사통팔달의 우수한 광역교통망으로 중부내륙 교통거점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내부(역내) 대중교통체계 관련 현안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난제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원주 대중교통 현안은 매번 단체장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중요하게 제시된 바 있으나, 정책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주의 내부 대중 교통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필수적 과제이나, 대중교통 관련 이해집단(일반 시민, 통학생, 통근자, 농촌거주자, 사회적 약자, 운수사업체, 지자체, 교육청 등) 간 이해관계 조율도 매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다.
- 민선 9기에는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의 체계적 검토, 간선버스·순환서틀·누리버스·부름버스·통학노선이 상호 연계된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 원도심·혁신도시·기업도시·서원주권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중심의 교통망을 조성 등 「교통혁신도시 원주」 실현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 시내버스, 누리버스, 부름버스, 통학버스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승 및 연계성 부족, 원도심·혁신도시·기업도시·서원주권역 간 통합 교통망 부재 등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생활권 이동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다.
- 읍·면지역, 농촌지역, 외곽지역 주민과 고령자·청소년·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교육지원청과 원주시 간 통합 교통정책 부재, 통학버스·시내버스·부름버스 간 연계가 부족하여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권역별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간 이동을 지원하는 효율적 교통체계 미흡, 환승 불편 및 이동 시간 증가되고 있다.
- 교통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시민, 학부모, 청소년, 교통약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2. 민선 9기 교통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에는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을「교통혁신도시 원주」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도심·혁신도시·기업도시·서원주권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중심의 교통망을 조성하여 시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원주시·교육지원청·경찰서·도로교통공단·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시민주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혁신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개별 교통수단 운영체계에서 간선버스·누리버스·부름버스·통학 노선이 연계되는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공급자 중심 교통행정에서 시민 이동 수요 중심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취약 지역 이동권 보장에서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확대하는 교통복지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 대중교통·보행·환승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 중심 정책에서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품질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형 교통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노선 개편과 교통복지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혁신 TF팀」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교통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교육, 복지, 관광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정책과 도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 교통 분야 전문인력과 임기제 전담 공무원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교통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대중교통혁신 TF팀」은 노선 개편, 원주패스, 교통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단계별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과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는 교통혁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1) 핵심 추진사업 제언

① 시민 거버넌스 기반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가칭) 구성

- 시민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설계하는 시민주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혁신 실현
- 원주시, 교육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가, 시민사회, 학부모, 교통약자 등이 참여하는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논의하고 추진
- 통학·통근·의료·상업시설 이용 등 시민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노선 운영
-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 의견과 교통 빅데이터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

하는 현장 중심의 역할 수행

- 시장과 대중교통 담당자, 교통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시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며 생활권별 교통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교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민참여형 교통체험을 정례적으로 운영

②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원주패스 도입

-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
- 원주패스를 단순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택시, 공유교통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복지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주형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
- AI 기반 교통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률, 이용자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를 증진
- 원주패스를 정액제, 교통 마일리지, 친환경 리워드와 연계한 통합 교통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이동권 보장,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원주형 교통혁신 모델 구축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시민주권 기반 대중교통 혁신 거버넌스 구축

- 노선 개편과 교통복지 확대 등 대중교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와 대중교통 혁신 TF팀을 운영
-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평가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통·도시계획·교육·복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행력 제고
- 교통 빅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분야 전문인력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혁신을 추진

② 친환경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 필요
-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상버스 보급과 무장애(BF) 정류장 조성,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농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 이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

3 환경 분야

민선 9기
환경 분야
비전 설정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며,
자연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후도시」 원주 실현

1. 환경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시 환경정책은 국가 목표와 제도를 반영하는 데에는 충실했으나, 원주의 공간구조와 교통·주거·산업 특성,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폭염·집중호우·에너지비용·이동 불편 등의 문제를 지역 실행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역시 태양광 설치량, 친환경차 보급량과 같은 사업량 중심으로 관리되어 냉난방비와 교통비 절감, 건강·안전 개선,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 기후적응 정책도 녹지·하천·공원 사업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폭염과 침수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생활권 전략, 물순환과 생태연결성 회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원주천과 지류 하천, 공원·녹지·가로수, 도시 주변 산림과 농경지가 중요한 생태기반을 이루고 있으나, 하천 둔치의 과도한 이용과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녹지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수질·소음·악취·폐기물 문제가 평균적인 관리지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과 시기, 취약계층에 환경위험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평균 수치뿐 아니라 시민 체감도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 역시 특정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발생 억제, 재사용, 재활용, 선별과 전처리, 최종처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순환경제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
- 또한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관계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산업단지, 도로, 관광시설, 하천 이용, 에너지 기반시설 등 주요 개발사업은 도시의 환경과 탄소배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지만, 계획 초기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대안을 비교·숙의하는 구조는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환경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권고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제도적 환류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민선 9기 환경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민선 9기의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는, 자연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후도시 원주’는 온실가스 감축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교통·건축·도시계획·복지·농업·산업·자원순환과 자연환경 보전을 하나의 실행체계로 연결하고, 탄소 감축과 함께 시민의 생활비 절감, 건강과 안전, 이동권, 녹지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종합적인 시정전략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관점이 중요하다.
- 첫째,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뿐 아니라 하천·공원·녹지·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환경정책의 핵심축으로 설정한다.
- 둘째, 사후 오염관리에서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전환한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산업단지와 주요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후위험과 환경성을 검토하고, 훼손 이후의 복원보다 훼손의 회피와 최소화를 우선한다.
- 셋째, 시민의 삶과 환경정의의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시설 조성량뿐 아니라 냉난방비와 교통비 절감, 보행안전, 폭염·침수위험 완화, 취약계층 보호, 녹지 접근성과 건강 개선을 함께 관리한다.
- 넷째, 시민참여와 환경정보 공개를 제도화한다. 주요 환경정책과 개발 현안에 대해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기획·숙의·실행·평가·환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기후도시 추진-기후·환경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며, 건축·주택, 교통·도로, 도시계획, 복지·보건, 재난안전, 농업, 산업, 에너지, 자원순환 등 관련 부서의 사업과 예산을 하나의 목표 아래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이 총괄하는 기후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후·에너지 담당 부서가 실무를 지원하는 범부서 실행체계를 마련. 추진단은 핵심과제별 주관·협업부서를 지정하고, 기존 공약·사업·예산을 기후도시 전략과 연계하며, 연차별 실행계획과 성과를 관리. 온실가스 감축 지표와 함께 생활비 절감, 이동권, 건강·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체감지표를 공동 관리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
- 행정의 실행체계와 함께 원주 기후시민회의를 시민이 기후도시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 갈등 의제를 함께 결정하는 상시 숙의기구로 제도화. 기후시민회의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지역의 기후위험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운영

- 참여자는 공개모집과 읍·면·동 인구를 고려한 층화추출을 결합해 구성하고, 성별·연령·지역·직업의 다양성과 청년·미래세대·기후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 추진단이 갈등 예상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나, 시민회의가 의제 워크숍을 통해 이를 검토·선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직접 발굴. 권고안의 제출처, 원주시의 공식 응답의무와 응답 시한, 이행상황 공개와 모니터링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 숙의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조치

② 건물·교통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기후복지 확대

- 에너지전환은 발전설비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에너지비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후복지 정책으로 추진. 공공건물과 노후주택, 임대주택, 경로당·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기후취약시설의 단열·창호·차양·냉난방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취약가구를 우선 지원
- 공공건물·학교·공영주차장·유희부지 등에는 태양광 설치 가능성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태양광,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주민합의형 햇빛소득마을 등 시민과 주민이 소유와 수익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동의, 입지 적정성, 계통연계, 환경성, 수익 공유와 마을공동기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 특히 사업량의 현실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에너지 부서의 확대 개편 및 인력 보강,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임
- 교통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정하지 않고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이동 체계로 전환. 안전한 학교거리, 생활권 자전거망,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연계하고, 주차장 공급과 관리정책이 자동차 이용과 녹지·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대중교통 강화, 자동차 이용수요 관리, 필요한 차량의 친환경 전환 순으로 설정

③ 기후적응형 녹색생활권과 자연환경 회복

- 폭염·집중호우·도시열섬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우선하여 생활권 단위의 녹색 인프라를 확충. 대규모 공원 조성뿐 아니라 주거지·학교·복지시설·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의 그늘, 가로수, 떠돌이, 빗물침투 공간과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
- 원주천과 지류 하천은 단순한 친수공간이나 시설 이용공간이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물순환, 홍수조절,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태기반으로 관리. 하천 둔치의 이용과 시설 설치의 자연성·홍수안전·생태연결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훼손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재자연화 추진
- 공원·가로수·하천·산림·농경지를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을 설정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생태정보를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 녹지사업의 성과는 식재 수량이나 조성 면적뿐 아니라 실제 열 저감, 불투수면 감소, 침수위험 완화, 생태연결성, 시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평가

④ 생활폐기물 감량과 원주형 순환경제 전환

- 생활폐기물 정책은 처리시설 중심에서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전환.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폐기물 발생량과 성장,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선별·전처리·재활용 능력, 잔재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생활계폐기물 처리 기반 원주형 순환경제화를 통해 효율적 자원순환과 산업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한 지역 분배로 당선자 공약(반값 원주)을 지원
- 자원순환 처리체계 설계를 제안하고, 시민숙의 기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생 억제 → 재사용 → 분리배출·회수 → 선별·재활용 → 전처리·에너지회수 → 적절한 최종처분 → 주민 보상」의 선순환 가치 기반 원주형 자원순환 전환 체계(원주형 순환경제 모델) 수립·적용을 추진

⑤ 환경성 검토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개발관리

- 산업단지, 관광시설, 도로와 주차장, 하천 이용, 에너지 기반시설 등 주요 개발사업은 계획 초기부터 환경부서가 참여해 기후·생태·생활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입지와 규모, 추진방식에 대한 복수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으로 운영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과 환경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법정 절차 이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갈등 가능성이 큰 사업은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숙의와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생태계 훼손, 온실가스, 건강·안전, 장기 재정비용을 함께 검토.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는 개발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후 갈등과 행정비용을 줄이는 원칙으로 운영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한 대안 비교와 시민숙의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기반의 적기 확보 필요. 그러나 소각 또는 매립 중심의 단일 대안으로 접근하기보다 감량, 재사용·재활용, 선별·전처리, 에너지회수, 최종처분을 포함한 복수 대안 비교가 필요
- 대안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성, 비용과 자원조달, 기존 시설 활용, 운영 안정성, 입지와 주민수용성, 지역사회 편익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시설 입지와 처리방식은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형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이 필요

② 기후도시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과 정책조정 체계 강화

- 민선 9기는 부시장 주재 기후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핵심

과제별 주관·협업부서, 연차별 계획, 감축·적응 및 시민 체감성과의 관리가 필요. 추진단이 일시적 TF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전담인력과 조정절차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후·에너지 전담 행정조직의 기능과 인력 보장을 검토

- 기후시민회의는 조례와 다년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시 숙의기구로 설치. 시민회의가 도출한 권고에 대해 시가 채택 여부와 사유를 공식적으로 응답하고, 추진단이 예산·사업 반영과 이행을 담당하며, 시민회의가 그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
-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법정 계획과 감축목표 심의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조사·연구와 성과분석을, 기후도시 추진단은 부서·예산·사업의 실행조정을, 기후시민회의는 시민 숙의와 정책 권고를 담당하도록 역할 명확화 필요
- 「시민 숙의 → 정책 권고 → 행정의 공식 응답 → 예산·사업 실행 → 성과 공개 → 시민 평가」의 환류구조가 정착되어야 기후도시가 선언이나 개별사업을 넘어 실제 시정 운영체제로 작동 가능. 시민회의는 취임 100일 안에 운영계획과 조례 제정 착수가 필요

③ 개발사업의 환경성·공공성 검토체계 확립

-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개발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거나 전임 시정의 결정을 일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 다만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장기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보공개 수준, 환경성·경제성, 기후정합성, 주민 의견수렴과 재정부담을 기준으로 점검 필요
-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적 숙의과정을 운영. 민선 9기는 개발과 보전을 대립적으로 다루기보다, 도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예방적 환경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4 도시 분야

민선 9기
도시 분야
비전 설정

도시의 공간과 사람, 문화를 연결하여
시민이 함께 성장시키는
「시민주권형 활력도시」원주 실현

1. 도시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는 성장보다 연결이 필요한 시점으로, 분산된 도시 기능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도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노후 건축물, 빈집,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도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한다.
- 생활권 도로와 교차로,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습 정체구간을 우선 개선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인다.
- 도시계획도로와 농촌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간 단절도로와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도로망을 구축한다.
- 스마트 가로등, CCTV, 스마트 안내시설 등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도시재생의 경우, 원도심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거점시설은 조성되었지만 운영 콘텐츠와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와 주민조직 지원체계 미흡하다.
- 원도심의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활력벨트 구축과 도시재생·문화·관광·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 간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 주민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 운영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형 운영체계가 부족하다.

2. 민선 9기 도시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원도심을 단순한 도시재생 대상이 아닌 문화·관광·창업·상권이 융합된 복합도시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운영·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도시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를 도시재생의 핵심 운영주체로 육성해 거점시설과 유희공간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주권형 도시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간 운영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형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장기 방치 건축물, 빈집, 노후주택, 골목길과 재난취약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 정기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CCTV·스마트 가로등·안내시설·비상벨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 외곽순환도로와 간선도로는 도심 통과 교통량 분산과 광역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촌 지역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정비를 병행한다. 도로사업의 시급성, 안전성, 이용 수요, 지역균형 효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인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태장동도시재생사업 추진

- 캠프롱 시민공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태장2동을 문화·관광·생활이 어우러진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
-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캠프롱의 역사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로컬 브랜드, 문화·관광 프로그램, 로컬푸드 등 지속가능한 운영·수익모델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
- 캠프롱 시민공원, 과학관, 미술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순환형 관광·상권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도시브랜딩을 추진
-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정착시키고, 단계별 성과관리와 운영 체계 확립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주민주도 도시재생 체계 확립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도시재생사업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도시 재생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
-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교육, 리더 양성, 컨설팅, 주민제안사업 등을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제고
-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관광·경제 콘텐츠를 확대하여 자립 가능한 지역 운영모델 육성
- 주민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

5 농업 분야

민선 9기 농업 분야 비전 설정	농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며, 농촌의 미래를 여는 원주푸드 2.0 기반 「생명농업도시」 원주 실현
-------------------------	--

1. 농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원주는 생명농업과 로컬푸드, 친환경 학교급식,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운동을 추진해 온 도시이다. 즉 농업과 먹거리를 단순한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지역공동체, 환경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공공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 감소, 농지와 생산기반의 위축으로 원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농과 고령농은 생산비 증가와 불안정한 판로, 농작업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의료·돌봄·교통·문화 등 생활서비스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원주는 로컬푸드와 지역 먹거리 운동의 선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 성과가 학교급식과 일부 직매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역시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해 왔으나, 공공기관·복지시설·돌봄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확대와 생산자 조직화, 먹거리돌봄, 식생활교육, 정책조정 기능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 농업·농촌·먹거리 관련 정책이 농업기술, 농촌개발, 복지, 보건,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에너지 등의 부서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이다. 개별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목표 아래 기획하고 조정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책임 있는 행정체계와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한편 고령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 불규칙한 식생활과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의 격차는 농업정책이 시민복지와 건강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제 원주시 농정은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민선 9기 농업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 원주푸드 2.0은 기존의 학교급식과 농산물 유통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의 생산과 소비, 공공급식, 먹거리돌봄, 식생활교육, 농촌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하는 원주시의

먹거리 전환전략이다.

- 정책의 중심은 시설의 추가 건립이나 개별 지원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공공영역과 시민의 일상에서 소비되며, 그 성과가 다시 농가소득과 농촌공동체의 유지로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민선 9기 농업정책은 다음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농업생산 지원 중심에서 농업·농촌·먹거리의 통합정책으로 전환한다. 둘째, 일회성 보조사업 중심에서 기획생산과 안정적 판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경제를 구축한다. 셋째, 학교급식 중심의 원주푸드를 공공기관·복지·보건·돌봄 분야로 확대한다. 넷째, 농민을 정책의 지원대상이 아니라 지역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세운다. 다섯째, 시민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농업과 먹거리체계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천 주체로 참여시킨다.

1) 핵심 추진 사업 제언

① 농업·농촌·먹거리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농업, 농촌개발, 공공급식, 복지, 보건, 사회적경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시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시장이 책임지는 범부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농민·시민·전문가·사회적경제 조직·먹거리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농정·먹거리위원회 운영 필요
- 위원회는 선언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원주푸드 2.0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예산 검토,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담당. 행정에서는 농정·농촌·먹거리의 종합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확보 필요.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보다는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부서 간 조정권한, 연차별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② 원주푸드 2.0 기반 생명농업·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 원주푸드의 공급범위를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기관 구내식당, 복지시설, 공공 병원과 돌봄기관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산·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늘리고, 지역 농가와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중요
- 지역의 중소농과 고령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량 다품목 생산과 공동출하를 지원하고, 품목별 수급계획과 물류체계의 병행 설계 필요. 생협, 로컬푸드 매장, 사회적경제 조직 등 기존 주체와 역할을 나누어 지역 먹거리 생태계 전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먹거리돌봄도 확대 필요. 먹거리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시민에게 식사나 식재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영양·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 보건소, 복지부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 필요

③ 식생활교육과 시민 참여 확대

- 원주푸드 2.0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이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때 확보가 가능.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성인,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먹거리, 건강, 기후위기, 자원순환의 관계를 시민이 일상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
- 시민이 먹거리와 영양 정보를 이해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조리하며 먹거리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 원주산 친환경 농산물과 원주푸드 인증 식재료를 활용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복지관·도서관·마을공간·생협 등 기존 시설을 교육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역별 공유부엌은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일률적으로 건립하기보다 기존 공공·민간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출발. 어르신 공동밥상, 장애인 식생활 지원, 청년 1인가구의 밥모임 등 지역별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역 농산물 소비를 함께 지원하는 먹거리돌봄의 거점으로 발전 도모

④ 농촌 미래전환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농촌정책은 주민의 삶과 일자리, 서비스, 에너지, 공동체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농촌협약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빈집·폐교·유희시설을 조사하고, 주민 수요와 운영주체가 확보된 지역부터 생활서비스와 돌봄, 청년창업, 사회적경제의 거점으로 전환 모색
- 농촌 유희공간 사업은 건물을 고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되며 운영주체, 재정구조, 수익모델, 주민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사전에 설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식품기업, 고령친화식품, 먹거리돌봄 서비스 등 원주의 농업과 건강도시 기반을 결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식품기업·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
- 햇빛소득마을과 농촌 RE100은 농민과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방식으로 추진. 농촌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농가소득, 마을공동기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와 연결하여 농촌소멸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전환모델로 발전. 기존 초안이 제안한 햇빛소득 마을, 농촌 RE100, 사회적경제의 연계 방향은 유지하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이익공유 원칙 등 사업의 명확한 전제가 필요

2) 민선 9기 쟁점 과제

① 농업·농촌 정책의 전환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 농업행정의 범위는 전통적인 생산지원과 기술보급을 넘어 농촌공간, 지역 먹거리와 공공급식, 친환경·스마트농업, 농촌인력, 기후재난 대응, 동물복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 민선 9기가 추진하려는 원주푸드 2.0과 농촌 미래전환 프로젝트 역시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종합정책

- 그러나 현재 원주시 농업·축산 정책부서와 농업기술 지도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함께 편제되어 있어 정책기획·조정 기능과 시험·연구·교육·기술보급 기능이 혼재. 또한 농업·농촌·먹거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신규 정책의 주관부서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
- 민선 9기에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주시 농업행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이 과정에서 정책 기능을 본청으로 재편하고 농정국 등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 필요. 다만 조직의 명칭이나 규모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원주푸드 2.0과 농촌 미래전환 등 핵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부서 간 조정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해 온 현장 기능 전문화가 필요.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신기술 보급, 현장 영농지도 등 본연의 기술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부서와 기술지도 부서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구축. 즉 정책 컨트롤타워와 현장 기술지도 기능을 구분하면서 두 기능의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
- 농업인이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접하는 읍·면과 농촌동의 현장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필요. 현재 읍·면 산업팀과 농촌동은 직불제, 농업재해, 친환경농업, 농업인수당 등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직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행정직과 기간제 인력에 의존하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 이에 따라 지역별 농가 수와 업무량, 농업 특성, 민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직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특히 읍·면 산업팀의 책임자와 실무인력에 농업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농촌동에도 업무 수요에 맞는 전문인 확보가 필요



제4장

시정목표별 이행과제

제1절/ 세부이행과제

제2절/ 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추계액

제4장

시정목표별 이행과제

제1절 세부이행과제

1. 반값원주: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

민선 9기 원주시정은 교통, 주거, 보육, 의료, 공공요금 등 시민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민의 일상이 여유로워지는 ‘생활이 가벼운 반값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행과제
반값원주 (15개)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원주패스 도입
	기업도시(서원주역)·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농업경영 안정 반값 농자재 지원
	원주형 성장 바우처 지급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시간제 보육서비스 부모 부담 반값 지원
	햇빛 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
	천원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어르신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 반값 지원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플랫폼 구축
	햇빛 소득마을 5개소 추진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문막 앞뜰 택지 조성
	부론 택지 정주 여건 개발
	원주종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1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원주패스 도입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공유자전거 등) 연계·환승을 통한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탄소배출 저감
- 원주패스 도입으로 원주시민 교통비 절감

□ 사업개요

-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MaaS⁶⁾ 구현)를 통한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 교통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탄소 절감 리워드 제공
- 원주패스 하나로 대중교통 통합 이용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원주형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DRT 및 공유자전거 등 대중교통 간 통합 연계
- 2028. 교통비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환승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탄소배출 절감
- 2029. 원주패스 도입과 대중교통 통합 이용
 - 정액제 및 K-패스 연계 환급 지원 등 이용자 현황에 맞는 최적 방안 결정
 - 패스 하나로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내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따른 도심 교통 혼잡 완화, 탄소배출 저감 등

6) MaaS(Mobility as a Service):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검색, 예약,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동 서비스로, 국내 MaaS 사례로는 카카오T, 티머니GO, EZL(이즐) 등이 있음

2

기업도시(서원주역)·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기업도시(서원주역) 및 혁신도시 시민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지역 간 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 사업개요

- 기업도시(서원주역) 및 혁신도시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 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 및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도입
 - 기업도시(서원주역) 및 혁신도시와 원주 생활권(터미널, 중앙시장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확대
 - 시내·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등 이용 수요 및 지역 여건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1.~3. 시민 버스 이용 조사 수행 및 분석
- 2027. 4.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수사 협의
- 2027. 5.~12. 교통수단 도입 추진
- 2028. 1. 버스 운행 개선

□ 기대효과

- 확장된 도시생활권 연결을 통한 도시 접근성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으로 대중교통 비용 절감 및 이동 편의 증진

3

농업경영 안정 반값 농자재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영세·중소농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전년도 말까지 2년 이상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내용: 영농자재 전품목 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기타자재 등(농기계 구입, 면세유 제외)

□ 추진경과

- 2023.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시행(5,342명)
- 2024.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시행(6,120명)
- 2025.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시행(6,722명)
- 2026.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시행(7,620명)
 - 추가예산 11.5억 원 확보 및 지원단가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경작면적 당 소요경비 및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면적 구간별 지원단가 상향 등 사업 개편 및 예산 확보
- 2027. 맞춤형비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단계적 지원단가 상향
- 2028. 이후 농업경영비 변동에 대응한 지원체계 지속 운영 및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기존 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예산 확대 편성하여 지원 정책 강화
- 실질적인 농가경영 비용을 지원단가에 반영하여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경영 안정화

4 원주형 성장 바우처 지급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공적 지원 공백 해소: 영유아기 이후 급감하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 발달주기 전체를 책임지는 단절 없는 보편적 복지제도 신설
-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학령기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가계의 교육·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별(월 5만~7만 원) 차등 지급 설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령기 청소년(7세~18세)
- 지원내용: 매월 1인당 연령대별 원주형 성장 바우처 지급

연령대	초등학생(7~12세)	중학생(13~15세)	고등학생(16~18세)
금액	월 5만원	월 6만원	월 7만원

- 지원방식: 지역화폐(원주사랑상품권) 지급

□ 추진경과

- 기존 바우처 사업은 2026년 종료 후 원주형 성장 바우처로 사업 재구조화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개정, 2027년 본예산 편성
- 2027. 원주형 성장 바우처 지급 개시

□ 기대효과

-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 기피 요인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
 - 발달 주기 전체의 공적 책임 완성
- [영유아 보육(국가·도 중심) + 청소년 교육(원주시 중심)]

5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반값 원주 비전에 발맞춰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원주시민
- 주요내용: 원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확대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착수·준공
(감면 유형별 예산 소요액 비교 산출, 재정 영향 분석 및 감면 타당성 분석)
- 2027. 조례 개정 및 반값 정책 시행

□ 기대효과

- 공공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건강 도시 원주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6

시간제보육서비스 부모 부담 반값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시간제보육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시간제보육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간제보육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자
 - ※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시간제보육 이용시 부모부담 보육료의 50% 지원
 - (시간당 2,000원 → 1,000원)
- 지원방법: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
- 소요예산: 20,000천 원(시비 100%)
 - 산출기초: 20,000시간×시간당 1,000원 = 20,000천원
 - ※ 최근 이용현황 및 제공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추후 수요 증가 반영

□ 추진경과

- 신규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의견 수렴
- 2027. 상반기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검토
- 2027. 하반기 시간제보육 부모부담 보육료 반값 지원사업 시행(시범운영)
 - 사업운영 성과 분석 및 향후 확대 여부 검토

□ 기대효과

- 시간제보육 이용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일시적인 보육 공백 발생 시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공백최소화

7

햇빛 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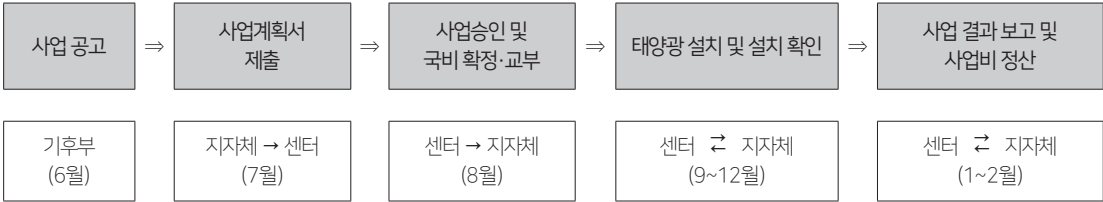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확대 보급으로 시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 정부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경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사업비 및 세부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 목표사업량 제시에 어려움이 있음(정부지원규모: 전국 10만 가구, 375억 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가정형(베란다) 거치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소유주 동의 必)
- 사업비: 미정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5:5)
 - ※ 강원특별자치도 국비 지원 규모(안) 10.4억 원
- 추진절차(안)



□ 추진경과

- 2026. 5. 아파트 대상 수요 조사
- 2026. 6. 현재 사업 공고 미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계획

- 2026. 7. 공고 이후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 홍보 및 참여가구 모집
- 2026. 8. 사업계획서 제출
- 2026. 9.~12.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 기대효과

- 공동주택(아파트) 태양광 보급 확산으로 시민의 전기요금 경감
-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

8 천원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주 택)

□ 사업목표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촉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모집 공고일 현재 만18~39세 이하 청년 및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기준: 청년 7천만원, 신혼부부 합산 1억원 미만
- 대상주택: 전용면적 59㎡(구 24평) 미만 주택, 전세자금 1.5억원 미만
- 추진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전세보증제도 활용을 통하여 미분양주택 우선 활용 주거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8. 천원주택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컨설팅(보건복지부)
- 2026. 9. 원주 청년 신혼부부 천원주택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10.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026. 12. 관련기관 업무협약(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 2027. 3. 2027년 1회 추경예산 반영
- 2027. 5. 사업 시행

(복지정책)

□ 사업목표

- 타지역 청년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활력화 제고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명: 원주 청년 웰컴하우스 지원사업(가칭)
- 사업근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 소요예산: 240,000천 원(시비)
 - 100명×200,000원×12개월 = 240,000,000원
- 지원규모: 100명 (※ 26년 상반기 인구통계 평균값 참고)

○ 지원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원주시로 전입한지 1년 이내 청년(18~39세)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신청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 지원내용: 생애 1회, 월세 실비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현금 지원)

○ 제외대상: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의 제외 대상자 준용 및 청년월세 지원 기지원 자 제외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대 상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 득	(원가구) 기준위소득 100%이하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 산	(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 원 이하
내 용	생애 1회, 월세 실비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현금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방을 함께 쓰는 전대차 •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이 사업으로 최대 지원기간(24개월)을 모두 받은 경우

□ 추진경과

○ 신규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 청년 웰컴하우스 지원사업(가칭) 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027. 2027년 1회 추경예산 반영 및 사업 시행

□ 기대효과

○ 연간 전입 청년 지원(100명)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속 가능한 청년 인구 유입 기반 조성 및 지역 활력화 제고

9

어르신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 반값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속적 치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65세 이상 원주시민
- 대상질환: 고혈압, 당뇨
- 지원방식: 약제비 청구용 처방전 발급하여 약국에서 약제비 일괄 감면, 감면 약제비는 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

□ 추진경과

-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 어르신(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최소화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에 내원한 관내 어르신 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 의약분업예외지역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 어르신 약제비 전액 무료 시행 중 (2025. 3. ~)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7. 1. ~4.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및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7. 5. 사업 시행

□ 기대효과

-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따른 생활 안정 및 건강 증진 도모
-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환경 조성 및 지역 공공의료 기능 강화

10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플랫폼 구축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원주형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 0세부터 18세까지 아우르는 ‘원주형 성장마우처’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원스톱 디지털 기반 마련
- 돌봄 정보·서비스 일원화
 - ‘원주아이온돌봄’ 홈페이지의 기능과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파편화된 돌봄·양육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플랫폼 구축
-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시민 체감형 행정
 -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정보와 자체 예약·신청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원주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원주아이온돌봄 홈페이지 확장을 통한 기능 고도화
- 추진방향
 - 복지, 교육, 아동, 청소년 등 영유아 및 학령기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행정수요, 현행 시스템, 정보 제공 범위를 전수 조사
 - 보육료 지원 등 정부 기구축 완료 사업은 정보 안내 및 링크로 간소화하고, 부서 취합 원주시 자체 필수 기능 위주로 시스템 확장

□ 추진경과

- 0세~18세까지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 지원 과제 확정
- 기존 인프라 및 정부 시스템 연계성 진단
 - 홈페이지 인프라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 통합 플랫폼 우수사례 벤치마킹
- 중복 개발 방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단계별 구축 로드맵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부서 의견 취합 및 기본계획 수립
 - 0세~18세 아이키움 관련 전 부서 행정수요 조사 실시
- 2026.~2027. 시스템 설계 및 원스톱 통합 서비스 개발
 - 부서별 수요가 반영된 통합 DB 및 UI 설계
 - 보육료 등 기구축 서비스의 대상별 정보 매핑 및 링크 체계 구현
- 2027.~2029. 플랫폼 개시 및 기능 개선
 -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부서별 추가 요구사항, 생애주기별 알림 등

□ 기대효과

- 중복기능 개발 배제를 통한 플랫폼 예산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
 - 신규 플랫폼 구축 예산 1~2억 소요
- 양육 정보 검색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소요 시간 단축
 -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통합플랫폼 구축

11 햇빛 소득마을 5개소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발전 수익(소득)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 소득마을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 사업내용: 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거나 마을 복지에 사용
- 설치용량: 300kW 이상 1,000kW 이하
- 설치장소: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 등 마을 유휴부지
- 설 치 비: 융자(기후부, 농협 등 금융기관) 85%, 자부담 15%
- 추진방식: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신청

□ 추진경과

- 2026. 2.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행정안전부)
- 2026. 3. 햇빛소득마을 현장지원단 구성
햇빛소득마을 사전 수요 조사
- 2026. 3. 31.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고(행정안전부)
- 2026. 4.~5. 햇빛소득마을 홍보 및 사업설명회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대상마을 발굴 및 햇빛소득마을 1개소 조성 추진
- 2027. 햇빛소득마을 2개소 추가 조성 추진
- 2028. 햇빛소득마을 2개소 추가 조성 추진
- 2029.~ 신규 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확대 검토

□ 기대효과

-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태양광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마을 기금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역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12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 난임시술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내용

구 분	임산부	난임부부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주 이상 등록 임산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여성
지원내용	진료 교통비 1회 20만원	진료 교통비 1회 10만원(최대 3회)
지급방식	현금 지급	
필요서류	임신헌인서,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 통장사본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 통장사본
신청기한	임신 16주 이상~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10.~2026. 12.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 2027. 1.~2027. 2. 조례 제정
- 2027. 2.~2027. 4.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7. 5. 사업 시행

□ 기대효과

- 관내 임산부(2,400명) 및 난임 여성(600명) 등 연간 약 3,000명에게 직접적인 교통 복지 혜택 부여
- 장거리 이동과 잦은 통원이 필요한 임산부 및 난임 여성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이어지는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13

문막 앞뜰 택지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조성
-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문막생활권을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 정주 여건을 갖춘 부도심으로 성장·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2035년
- 규 모: 약 23만㎡
- 사 업 비: 1,600억 원
- 추진근거: 도시개발법

□ 추진경과

- 2016. 6.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021. 2. LH 사업추진 검토 요청(투기 사태로 신규사업 중단)
- 2023. 1. LH 사업시행 건의(국회의원, 국토부장관, LH 강원지사장)
- 2024. 5. 공모사업(투자선도지구) 신청(미선정)
- 2025. 12.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 준공(지방행정연구원)

□ 세부 추진계획

- 2026.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실시설계 포함) 등 용역 착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 2027.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 보상 절차 착수, 착공(21구역)
- 2030. 준공(21구역)
- 2032. 착공(22구역)
- 2035. 준공(22구역)

□ 기대효과

- 신규 산업단지 및 기존 산업단지 기업 입주의 진행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용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기반시설을 완비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문막생활권 독자적 정주 여건을 갖춘 부도심으로 성장 발전 도모

14

부론 택지 정주 여건 개발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공간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구 정착 기반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2033년
- 위 치: 원주시 부론면 일원
- 사업면적: 약 20만㎡(추정)
- 사 업 비: 약 1,500억 원(추정)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개발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방침결정, 사업시행 건의(LH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 2028. 타당성조사 검증용역 추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착수
- 202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30. 착공
- 2033. 준공

□ 기대효과

- 부론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로 지역 정착 기반 마련
-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 및 도시공간의 체계적 개발

15

원주종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훼손된 터미널 시설 개보수
-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2026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키오스크 개선(BF 인증), 출입문 교체(1개) 등
 - ※ 기예산확보액: 57,800천원(도 17,340 시 40,460) / 자부담 별도 14,450
- 2027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대합실 환경 개선
 - 냉·난방 효율 개선, 화장실 개보수, 출입문 교체(4개), 대합실 의자 교체 등
 - 승강장 환경 개선: 승강장 조명 개선, 바닥 도색, 의자 및 락커 교체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8. 키오스크 개선 및 출입문 교체 추진
- 2026. 9. 터미널사업자 의견 수렴 및 2027년 사업 범위 확정
- 2026. 10. 2027년 본예산 확보
- 2027. 2.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 원주시 관문 역할을 하는 터미널 환경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2. 첨단원주: 미래산업과 도시성장 전략

민선 9기 원주시정은 의료AI,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및 산업공간 재편을 통해 도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내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로 이끄는 첨단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행과제
첨단원주 (16개)	소상공인 AI 마케팅 지원
	강원 의료·웰니스 AX대전환 사업
	서원주 의료AI 산업단지 조성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첨단모빌리티 정밀구동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시민체감형 AI 서비스 확대
	시장직속 원주시 첨단산업전략추진단 설치 운영
	GTX-D 서원주 연장 국가계획 반영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여주-원주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협력체계 강화(도 산하기관 유치)
	AI 기반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
	군부대 유휴지 개발 추진
	북부권 복합 신도시 조성
	원주 서부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

1		소상공인 시 마케팅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관내 소상공인 250개 점포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 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총사업비: 4.25억 원(시비)
- 사업기간: 2027년~2030년(4년간)
- 지원규모: 총 250개 점포, 연차별 확대
- 지원내용: 점포별 상권 데이터 분석 + 온라인 홍보상품화·AI 마케팅 컨설팅
- 추진방식: 산·학·관 연계 소상공인 지원
 - 관내 대학, 유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등 협업 추진

□ 추진경과

- ‘24년~’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 입점 실무 교육,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대관 지원 등

□ 추진계획

- 전문 사업 수행기관 선정(또는 협업)
 - 상권분석·AI 마케팅 지원이 가능한 관내 대학, 유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중 선정
 - 관내 AI 관련 학과 대학생·AI 도구 활용 컨설팅 가능 청년팀 선정, 교육 및 관리
- 대상 점포 모집
 - 점 포 수: 총 250개 ※ (1차년도) 30개, (2차년도) 60개, (3차년도) 80개, (4차년도) 80개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 전통시장, 상점가 내 소상공인 우대
- 지원내용
 - [1단계] 상권·매출 데이터 분석 및 진단
 - [2단계] 온라인 채널·콘텐츠 기획, AI 마케팅 도구 활용 컨설팅

- [3단계] 운영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 [기 타] 소상공인 대상 집체 교육, 상권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화 설계
- ※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수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사후관리: 연차별 성과 점검 및 차년도 계획 보완

□ 기대효과

- AI툴 활용 교육과 점포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및 경영 혁신 확산
- 데이터 기반 상권 진단과 AI 활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사결정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 AI 활용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2

강원 의료·웰니스 AX대전환 사업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를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 AX 산업화 Fast-Track 도시로 조성하고, 의료AI 연구·실증·사업화 기능이 집적된 의료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의료AI 연구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 공약이행 추진체계

민선9기 대표공약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
	↓
핵심 실행사업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
핵심 추진과제	AIMC 공동연구소 및 의료AI 혁신생태계 구축
	↓
최종 성과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 조성(원주형 판교모델)

□ 사업개요(예타사업 연계)

〈사업설명〉

본 사업은 민선9기 대표 공약인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의 원주권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며,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과 의료AI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사 업 명: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 원주권 사업명: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 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및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예타기획 2026년(1년), 사전검증 2027년(1년), 본사업 2028~2032년(5년)
- 총사업비: 1조 원
 - (예타기획) 10억 원(국비)
 - (사전검증) 46억 원(국 32, 도 4.2, 시 9.8)
 - (본 사업) 1조 원(국 6,000억, 지 2,500억, 앵커 1,500억)
-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중심)
- 사업유형: 비R&D

- 추진주체: 과기정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참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원주권)의료데이터 기반 의료 AX 산업화 Fast-Track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AI 산업 도시 조성
 - 예타기획: 강원권 특화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
 - 사전검증: 예타 본사업 이전 사전검증에 필요한 운영모델 설계 및 추진기반 마련
 - 본 사업: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 추진경과

- 2025. 11. 국회 및 기재부 사업 업무협의
- 2025. 12. 예타기획비 국비(10억 원) 확보
- 2026. 1. 예타사업 협의(과기정통부, 국회, 도, 시)
- 2026. 3. 주관기관 선정(원주미래산업진흥원)
- 2026. 4. 예타기획 사업 협약(NIPA - 원주미래산업진흥원)
- 2026. 5. 예타기획 킥오프 회의
- 2026. 5. 사전검증 사업 예산확보 업무 협의(과기부, NIPA)
- 2026. 6. 예타(마스터플랜) 기획 용역사 선정 및 추진
- 2026. 7. 추진전략보고회 개최 완료
 - 일시/장소: 2026. 7. 21. (화) 14:00 / 서울
 - 참석예정: 과기부장관, 도지사, 원주시장, 국회(송기헌 의원), NIPA(원장) 등

□ 추진계획

- [1단계] 예타기획(마스터플랜)
 - 사업개요: 예타급 사업 대응이 가능한 국가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의료AX 산업화 거점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마련
 - 사업명: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 마스터플랜 기획
 - 사업기간: 2026. 4.~12.
 -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 주요내용: 사업계획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및 예타 대응 로드맵 마련
- [2단계] 예타 브릿지 사전검증
 - 사업개요: 의료AX 산업의 디지털검증·임상·인허가·제조운영·시장진입 전주기를 디지털 기반을 단축하는 Fast-Track 운영체계를 선행 검증하고 예타 본사업 운영모델 설계 및 추진 기반 마련
 - 사업명: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체계 검증

- 사업기간: 2027.(1년)
- 총사업비: 46억 원(국 32, 도 4.2, 시 9.8)
- 주요내용: 의료기기 인허가·임상 AX Fast-Track 운영체계 검증 및 설계, 의료기기 제조공정 디지털트윈 기반 무인화 운영모델 검증 및 설계

○ [3단계] 예타 본사업

- 사업개요: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를 조성하여 의료AX 산업의 실증-인허가-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AI 연구·실증·사업화 기능이 집적된 의료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 조성
- 사업명: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 원주사업명: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 사업기간: 2028~2032년(5년)
- 총사업비: 1조 원(국 6,000억, 지 2,500억, 앵커 1,500억)
- 주요내용: (원주권)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도시 조성
 - 의료 AX 도시데이터 허브 구축
 - 의료 AX 산업화 Fast-Track 구축
 - 디지털 임상트윈·RWE 검증 플랫폼 구축
 - 시민 참여형 의료AX 도시 리빙랩 구축
 - 의료현장·의료기기 제조공정 특화 Physical AI 실증
 - AIMC 공동연구소 및 의료AI 혁신생태계 구축(기업연구소·글로벌 R&D센터·스타트업 집적을 통한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 조성)

□ 기대효과

- (산업적)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산업화 Fast-Track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AI 연구·실증·사업화 혁신생태계 조성
- (경제적) 의료AI 기업·기업연구소·글로벌 R&D센터 집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공공적) AI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 확산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향상과 시민 체감형 의료서비스 구현
- (정책·국가적) 원주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AI 연구산업도시이자 의료데이터 기반 의료AX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원주 의료AI 앵커연구산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

3

서원주 의료AI 산업단지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의료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원주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유치, 연구개발, 창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미래산업 성장거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원주시 지정면 서원주역 일원
- 면 적: 약 330만㎡(약 100만 평)
- 사업기간: 2024~2034년
- 사 업 비: 약 1조 8,100억 원(추정)

□ 추진경과

- 2023. 5.~11. 민간기업 미팅 및 투자 협의
 - 메리츠증권,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 등 10여 개 기업
- 2024. 2. 서원주역 일원 다양한 개발방식 검토 추진 결정
 -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파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검토
- 2024. 7. 서원주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2025. 12. 서원주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 2025. 12. 민간 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 사업 관련 협의(2회)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사업시행자(공기업, 앵커기업 등) 유치 및 업무협약
- 2027.~2028.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 2029.~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서원주역 일원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의료AI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집적 기반 구축

4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의료AI·디지털헬스케어 중심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국가 첨단의료산업 거점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년
- 사업위치: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일원
 - 서원주역세권: 핵심연구시설 및 컴퓨팅자원관리센터 구축
 - 신평농공단지, 태봉일반산업단지: 의료기기 신약, AI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기업 등 유치를 위한 기업입주 공간 및 지원 시설 구축
 - 원주기업도시: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존 인프라 활용

○ 세부내용

① R&BD	• 빅데이터·디지털 의료 플랫폼 고도화 • 커뮤니티 친화형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 개발 • 하이브리드형 임상·실증 지원체계 구축
② 기업지원	• 의료기기 규제 대응 거버넌스 및 규제 샌드박스 조성 • 현장 맞춤형 실증·고도화 분석공간 마련 • 지역 주도형 첨단의료기기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국제규격에 대응한 국제인증 컨설팅 제공
③ 기반조성	• 원주 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 수립 및 자립화 • 산학연병 연계형 클러스터 활성화 • 융복합 의료제품 핵심인프라 구축 (핵심시설 4, 컴퓨팅자원관리센터 1, 커뮤니케이션센터 1) • 137종, 243개 장비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추진경과

- 2025. 4.~10. 「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6. 3. 지정을 위한 산·학·연·병 업무협약 체결(19개 기관·단체)

□ 추진계획

- 침복단지 지정 필요성 공론화(시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정과제 반영)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국정과제 반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지속 건의
-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력 강화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2026. 4. 23.) 발의
 -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개념 신설을 통한 특화침복단지로의 정책 전환 가능(도지사 요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 법안 통과 즉시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정책제안 선제 추진

□ 기대효과

- 산·학·연·병 협력 기반의 의료AI·디지털헬스 의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의료기기·바이오헬스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글로벌 바이오헬스 거점도시이자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5

첨단모빌리티 정밀구동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앵커기업(HL만도)의 수요와 중소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한 '개발-실증-양산' 원스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모빌리티 정밀구동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기술과 생산기지, 수요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클러스터
- 추진현황
 - 1기('21년): 반도체(용인), 이차전지(청주), 디스플레이(천안), 정밀기계(창원), 탄소소재(전주)
 - 2기('23년): 반도체장비(안성), 전력반도체(부산), 바이오(오송), 모빌리티모터(대구), 자율주행(광주)

- 사업위치: 원주(문막·동화·부론·태봉·신평 등), 횡성(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 앵커기업: HL만도(조향·SbW·로봇 액추에이터) ※ 원주문막 조향공장
- 추진전략: 원주-횡성을 연계한 정밀구동 핵심부품 전주기 지원
 - 개발(원주) → 시험·평가·인증(횡성) → 비즈니스 모듈 상용화 실증(원주)
- 사업내용
 - 자동차 조향부품(SbW)→로봇 액추에이터 단계적 전환을 통한 모빌리티 정밀구동 핵심부품 (모터·감속기·제어기) 소부장 산업육성
 - 특화단지 지원사업
 - (기업유치) 생태계 기업유치를 위해 판로·R&D·규제 등 패키지 지원
 - (금융지원)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투자,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
 - (인력공급) 인력 미스매칭 해소,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경쟁력 제고
 - (AI기반구축) AI트윈랩 도입으로 소부장 디지털 전환(DX) 선도

□ 추진경과

- 2026. 1.~3. 소부장 특화단지(제3기) 신청 기획 및 예비검토 신청
- 2026. 2.~3. 앵커기업 참여 HL만도 협의

※ HL만도 투자 로드맵, 앵커 참여 불투명으로 특화단지 공모 미신청

- 2026.~ 관계부서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 기반 및 중앙부처 공모 대응 기반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와 R&D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I 기반 가상검증과 제조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기업 생산성 강화
-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수요기업의 관내 유입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대규모 고용 및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 앵커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소부장 허브로 도약

6

시민체감형 AI 서비스 확대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의 생명·협동운동 역사와 공동체 자산을 바탕으로, AI교육·돌봄·안전서비스와 시민 참여형 리빙랩을 연계하여 지역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생활AI 도시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설명: 생활권 기반 AI 교육과 AI 돌봄·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이 제안한 생활문제를 AI 기업·대학 등의 기술과 연계한 리빙랩 및 현장실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원주의 생명·협동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AI 서비스를 발굴·확산
- 사업명: 원주형 생활AI 확산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26~2030년(단계적 추진)
- 사업대상: 원주시민, AI·디지털 기업, 대학 및 유관기관 등
- 사업지역: 원주시 전역
 - ※ 신규 리빙랩 및 실증사업은 원도심·농촌지역 중심 시범추진 후 단계적 확대
- 추진부서
 - 주관: 첨단산업과
 - 협력: 복지정책과·경로복지과·정보통신과·도서관, 생활문제 분야별 소관부서,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추진방식: 시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생활AI 서비스 제공→생활문제·수요발굴→AI기술·기업 매칭→시민참여형 현장실증→시민 평가 및 성과검증→정책·서비스 확산
- 사업내용
 - 생활권 기반 시민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지속 추진 및 고도화
 - AI 안부전화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시민 체감형 AI 돌봄·안전서비스 지속 추진
 - AI 건강관리, 스마트돌봄, 고독사 예방 및 응급의료 연계 등 신규 생활AI 서비스 과제발굴
 - 원도심·농촌지역 생활문제 및 시민 수요 발굴
 - 시민·AI기업·대학·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AI 리빙랩 운영
 - 시민 생활문제와 AI기술·서비스를 연계한 현장실증 및 검증서비스 확산
 - 의료AX 및 AI 특화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람 중심의 원주형 생활AI 도시모델 구축

□ 추진경과

- (복지정책과 계속사업) AI 안부전화 서비스 운영
 -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360여 세대 대상 서비스 제공
 - 주 2회 AI 자동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식사, 투약, 외부활동 등 일상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 모니터링과 연계
 -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관리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복지담당자가 개입하는 AI 기반 사회적 안전망 운영
- (경로복지과 계속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고령부부, 조손가구 등 4,010세대 대상 응급 안전안심장비 운영
 - 대상 가구에 게이트웨이, 활동·화재·출입문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위험정보를 상시 감지·모니터링
 - 화재,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호출과 응급관리요원 확인·대응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관리
- (정보통신과 계속사업) 시민 대상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교육장 16개소(교육장 2개소, AI디지털배움터·체험존 14개소)
 - ※ 교육장 및 AI디지털배움터·체험존 등을 활용하여 고령층,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등 대상별 AI·디지털 교육 운영
 - ※ 생성형AI 활용, 컴퓨터 기초교육, 키오스크 활용 및 AI기기 체험 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 추진
- (도서관 계속사업) AI 디지털배움터 운영
 - 교육장 2개소(미리내, 샘마루)
 - ※ 성인·시니어·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성형AI, 디지털 콘텐츠 제작, 코딩·로봇 체험 등 맞춤형 AI 활용 교육 운영
 - ※ 도서관을 생활권 AI교육·체험 거점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AI 접근성 및 실생활 활용역량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2026~계속)] 시민 AI 활용 기반 및 생활AI 돌봄·안전서비스 확대
 - AI디지털배움터, 정보화교육장 및 도서관 등 생활권 인프라를 활용한 연령별·수요별 AI 교육 지속 추진 및 고도화
 - AI 안부전화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및 서비스 대기수요를 지속·발굴
 - 교육 참여자와 원도심·농촌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문제와 AI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인력·예산·운영체계 검토

- [2단계(2027.)] 시민 참여형 AI 리빙랩 기획 및 실증과제 구체화
 - 시민·AI기업·대학·전문기관 및 분야별 소관부서가 참여하는 과제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 원주의 생명·협동공동체 가치를 반영하여 시민이 생활문제 발굴과 해결모델 설계에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체계 마련
 - AI 건강관리, 스마트돌봄, 고독사 예방 및 응급의료 연계 등 시범실증 과제를 발굴하고 재원 확보방안 마련
- [3단계(2028.)] 생활문제 해결형 AI 시범실증
 - 시민 체감도와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실제 생활현장에서 소규모 시범실증 추진
 - 시민이 서비스의 기획·적용·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AI 리빙랩 운영
 - 시민 만족도, 생활문제 개선 효과, 기술적 안정성 및 서비스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단계(2029~.)] 성과검증 및 생활AI 서비스 확산
 - 실증성과와 시민 만족도가 확인된 생활AI 서비스를 분야별 소관부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
 - 의료AX, AI 특화 시범도시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 및 우수 생활AI 모델 확산
 - AI 교육·돌봄·건강관리·고독사 예방·응급안전서비스와 시민 공동체가 연결되는 사람 중심의 원주형 생활AI 도시모델 구축

□ 기대효과

- AI 교육과 돌봄·안전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시민이 생활문제 발굴과 AI 서비스 실증에 직접 참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체계 구축 및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
- 의료AX·AI특화 시범도시와 원주의 생명·협동운동 자산을 연계한 사람 중심의 원주형 생활AI 도시모델 구축

7

시장직속 원주시 첨단산업전략추진단 설치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시장 직속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첨단산업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심의·자문체계를 구축하고
- 산·학·연·병·관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민선9기 첨단산업 핵심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성 격: 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
- 추진근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추진방향: 첨단산업 정책의 종합 기획과 전략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산·학·연·병·관 협력 기반의 정책 실행체계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시장 직속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로 구성·운영

〈주요 개선내용〉

- 위원장 변경: 부시장 → 시장
- 위원 정수 조정: 25명 이내 → 20명 이내
- 운영체계 개편: 3개 분과위원회 → 단일 첨단산업전략추진위원회

○ 기 능

-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자문
-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축 및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 첨단산업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자문

○ 구성 기준: 20명 이내

- (위 원 장) 시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임 기) 2년 ※ 1회 연임 가능

- (위원자격)

1. 당연직 위원
 - 시장(위원장)
 - 첨단산업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 그밖에 시장이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성별기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 2027.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기대효과

- 민선9기 첨단산업 핵심 공약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첨단산업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심의·자문체계 구축
- 미래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8

GTX-D 서원주 연장 국가계획 반영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주요 수도권 거점 접근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
-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 개선으로 산업·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2035년
- 규 모: 연장 185km
- 사 업 비: 미정
- 내 용: 김포(장기)/인천공항~부천~강남~삼성~팔당/원주
 - ※ GTX-D 수서~원주 간 91.4km (복선, 전철)
 - 기존선 활용 19.5km(수서광주선 수서~광주 구간) /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승인(2026. 4. 17.)
 - 기존선 활용 41.4km (경강선 광주 ~ 여주 구간) / 운영 중
 - 기존선 활용 30.5km (경강선 여주 ~ 원주 구간) /공사 중

□ 추진경과

- 2022. 5. 국토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발주
- 2024.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통령 주재/의정부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GTX-D 반영(예정)]
- 2024. 3.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통령 주재/원주시)
[대통령 임기(2027년) 내 예비타당성 통과 목표]
- 2024. 5.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
- 2025. 6. GTX 조기개통(2030년) 건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건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노선 반영 추진
GTX-D 노선 해당 4개 시(원주·광주·이천·여주) 공동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2027.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8.~2034.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 2035. GTX-D 노선 개통

□ 기대효과

- 기업입지여건 강화
 - 강남권, 인천공항 등 주요 수도권 거점과 원주 연계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 개선 및 기업 투자 환경 향상
-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 기반 마련

9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HUB)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 견인
-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재배치와 혁신산업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
- 대 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공공기관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계획 수립
 - 혁신도시 및 인접 지역 이전 가능 용지(공간) 조사·확보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주 유치 홍보

□ 추진경과

- 2023. 4. 공공기관유치TF팀 구성 / 유치업무 대응
- 2023. 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원주 유치 등 추진계획 수립
- 2023. 7.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혁신도시 우선배치 기본계획 조속 발표 건의
- 2024. 8.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등 공동건의문 결의
- 2025. 2.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5. 4.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유치전략 계획 수립
- 2026. 2. 합동(임대)청사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026. 2. 강원혁신도시 기능 확장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6. 4. 혁신도시 등 공실조사 실시
- 연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대상 유치 홍보 활동 전개(총 33회)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혁신도시 기능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용역 결과 제공 및 정책 반영 협의
 혁신도시 등 공실 현황 조사 및 현행화 추진
- 2027. 합동(임대)청사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
- 2027.~ 선도 이전 기관 대상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조성

10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 경기전역 및 강남권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
-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근거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2016~2028년
- 구 간: 여주~서원주
- 총사업비: 10,934억 원(국비)
- 사업내용
 - 여주~원주 간 22km 복선전철 건설
 - 기존선 3개역 개량(여주역, 서원주역, 원주역)
 - 하남 축 보완 기능

□ 추진경과

- 2020. 12. 복선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완료
- 2023. 7. 실시설계 완료
- 2024. 1.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2024. 5.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 2028. 준공

□ 기대효과

-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철도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 경기전역 및 강남권 1시간대 진입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교통편의 증진
-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기업 유치 및 수도권 우수 인재 유입

11

여주-원주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수도권광역철도 원주 연결을 통한 수도권과의 연계성 제고와 광역 생활권 구축으로 지역 성장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여주역~서원주역~원주역 (30.7km, 복선전철/기존선 활용)
- 운행계획: 전동차 추가 투입 없이 여주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원주 운행
- 사업비: 공사비 67억 원(운영비 3억/년 별도)

□ 추진경과

- 2024. 7. 여주~원주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운행 협의(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연장 운행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요망, B/C값 1이상 필요
- 2024. 9.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25. 11. 코레일(철도운영 부문), 철도공단(철도시설 부문) 업무 협의
- 2025. 12. 사전타당성 용역 준공
 - 전동차 구매 無, 사업비 약 67억 원, 운영비 약 3억 원<B/C값: 1.41>
- 2025.12.~2026.06. 코레일 및 철도공단 보완 요청 사항 검토 완료 <B/C값: 0.4>
 - 사업비: 약 121억 원(중 54억 원: 시설 추가 설치 및 개량비)
 - 운영비: 약 5억 원/년(중 2억 원)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코레일 및 철도공단 업무 협의
 - 코레일 및 철도공단 업무 협의 완료, 철도운영계획 변경 건의 및 승인(국토부)

□ 기대효과

- 수도권광역철도 소외지역인 서원주, 원주 구간의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경제 교류 활성화
- 광역철도 연결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협력체계 강화(도 산하기관 유치)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도 경제정책 수행기관 집적을 통한 도-시 경제협력체계 강화
 - 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부 이전을 통한 원주본원과 기능 연계성 제고
 - 강원테크노파크 본원 이전을 통한 산업정책·기업지원 기능 강화
- 도 산하기관 유치를 통한 원주시의 경제·일자리 정책 거점기능 강화
 - 원주시의 도내 경제·산업 중심도시 기능 강화 및 기관 간 연계효과 창출
 - 유치 대상기관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경제·산업·일자리 협력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7.~2029. 6.
- 사업위치: 원주시 일원 ※ 세부입지는 기관 협의 후 확정
- 유치대상: 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부, 강원테크노파크 본원
- 사업주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유치 대상기관(2개소)
- 사업비: 미정 ※이전 규모 및 입지 확정 후 산정
- 사업내용
 - 기관별 유치 타당성 검토 및 이전 범위·입지·재원 등 협의
 - 이전계획 수립, 사무공간 조성 및 유치 대상기관의 원주지역 업무 개시

□ 추진경과

- 공약사항의 구체적 이행과제 설정
 - 도청 경제부서의 원주시 유치 공약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대상으로 도 경제 분야 출연기관을 선정
- 유치 대상기관의 조직·기능 및 소재지 현황 검토
 - 경제진흥원 본원과 일자리부가 원주와 춘천에 분리되어 있어 업무 협의와 사업 연계의 비효율 확인
 - 강원테크노파크 본원과 도내 주요 산업거점인 원주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산업현장과의 협력 및 기업지원 측면의 비효율 확인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기관 유치 전담 추진체계 구성 및 유치 대상·입지 기초조사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제안서 제출
- 2027. 기관별 조직·인력·시설·재정 영향 및 이전 타당성 공동검토
 이전 범위, 입지 및 재원 분담방안 협의
- 2028. 도 및 유치 대상기관의 이전방침 확정
 세부 이전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사무공간 조성
- 2029. 경제진흥원 일자리부 및 강원테크노파크 본원 이전
 원주지역 업무 개시 및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공동사업 발굴·운영

□ 기대효과

- 도-시 간 상시 경제협력 기반 구축과 기업·일자리 지원기능 강화
 - 도 경제정책 수행기관 2개소의 원주 이전을 통해 경제정책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체계 마련
 - 기업지원·고용지원 기능을 지역 산업현장과 근접배치하여 관내 기업·구직자의 정책 접근성 향상
- 도내 경제기능의 균형 배치와 기존 원주 소재 기관 간 상승효과 창출
 - 경제진흥원 본원·일자리부와 강원테크노파크의 원주 집적을 통한 경제·산업 정책의 집행력 및 기업지원 효율성 제고
 - 유치기관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기업지원·지역인재·일자리 사업의 연계 기반 구축

13

AI 기반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AI를 활용한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현행 민원콜센터 운영 한계 극복 및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명: 원주시 AI 기반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2026~2029년
- 소요예산: 3억 원(시비 100%)
- 주요내용
 - AI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반 보이스봇 구축
 -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서 매칭 및 생활불편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
 - 행정시스템 연계를 대비한 자연어 처리 분석 능력 고도화

□ 추진경과

- 신규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기본계획 수립
 - 원주시 데이터 분석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2027.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시스템 설계
 - 보안성 검토 등 관련 절차 이행
 - 답변 및 부서 매칭 시나리오 작업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
- 2028. 시스템 운영
 - AI 기반 원스톱 민원콜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 반영, 본격 도입

□ 기대효과

- AI 활용한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행정의 신속화, 정확화 도모
-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 업무 경감 및 시민 불편 해소

14

군부대 유휴지 개발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유휴 군부지의 종합적·단계적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반곡지구	학성지구
위 치	반곡예비군 훈련장	우산동 1군지사, 국군원주병원 등
사업기간	2019. ~ 2034.	2019. ~ 2036.
면 적	536,000㎡	664,000㎡
사업비	7,770억 원	6,860억 원
사업주체	국방부(LH위탁)	국방부(LH위탁)
개발방안	혁신도시 연계 산업 육성	학성저류지 연계 개발

□ 추진경과

- 2019. 1.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선도사업지 선정
- 2019. 11. 토지개발 사업계획 승인(기획재정부)
- 2021. 12. 원주반곡지구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 제출(LH→원주시)
- 2022. 4. 반곡지구 도시개발 지정 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
- 2023. 5. 민원으로 인한 주민의견 청취(유만/월운정 마을)
- 2023. 6. 반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재검토(LH)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반곡지구 경영투자심사(LH) 신청
 - 2027. 반곡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28. 반곡지구 도시개발 지정 제안 제출(LH→시→도)
 - 2030.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승인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31. 반곡지구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승인(강원특별자치도)
 - 2032~2034. 착공 및 준공
- ※ 1단계 반곡지구 우선 추진 후, 2단계 학성지구 병행 추진(학성지구 1~2년 추가 소요 예상)

□ 기대효과

- 군 유휴부지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및 도시 기능 확충
- 장기 미개발 군 유휴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15

북부권 복합 신도시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권의 성장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2035년
- 위 치: 원주시 북부권(태장1·2동, 우산동, 봉산동, 호저면, 소초면) 일원
- 규 모: 약 30 ~ 50만㎡(추정)
- 사 업 비: 약 2,000 ~ 3,000억 원(추정)
- 추진근거: 도시개발법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개발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방침결정, 사업시행 건의(LH공사 등) 및 협약 체결
- 2028. 타당성조사 검증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9. 실시계획 승인
- 2030. 착공
- 2033. 준공

□ 기대효과

- 원주시 북부권에 신도시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북부권의 지리적 이점(원주공항, 태장농공단지, 치안산 등)을 고려한 신도시 조성으로 북부권역 거점개발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따른 도시 경쟁력 확보

16

원주 서부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시/자체		

□ 사업목표

- 원주시 서부권 외곽순환도로 노선 구축 및 광역 교통망 접근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사업량: 도로 개설 L=4.3km
- 사업비: 1,464억 원

□ 추진경과

- 2022. 11.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원주시)
- 2023. 2. 사업조사 요청(강원도 도로과)
- 2023. 3. 사업 대상 제출(원주시→강원도)
- 2024. 11. 송기헌 국회의원실 방문
- 2025. 2. 제6차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4개노선)
- 2025. 5. 제6차 건설계획 KDI 예비타당성 현장조사(4개노선)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 기획예산처 분과위원회 개최
- 2026. 8.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심의결과 발표

□ 기대효과

- 서부권 외곽 순환망 완성으로 도심 통과 교통 분산
 - 문막·흥업·지정을 잇는 순환 노선으로 원주 도심 통과 교통량 분산 및 국도 혼잡 해소
- 고속도로·철도 연계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원주역(KTX), 서원주IC 등 광역교통 결절점과의 연결성 확보로 물류·여객 이동 효율화

3. 활력원주: 사람과 일자리의 도시

민선 9기 원주시정은 청년, 신중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일자리, 공동체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누구나 찾아오고 정착하는 ‘사람이 모이는 활력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행과제
활력원주 (18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구성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이전 및 원스톱 365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지역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캠프롱 어린이 과학관 건립
	무실동 청소년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추진
	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신설 추진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청년·대학생 대상 콘텐츠 교육
	건강이음매니저 양성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학교 운영
	기업도시 테마형 어린이 자연 놀이터 확충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 지원
	원주푸드 2.0 생태계 조성
	중앙시장 나동 화재 복구

1

시민주권시대위원회 구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운영 방향 및 원칙

-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시민참여·공론화·제안·자문 역할 수행
- 행정·의회·법정기구와의 역할 충돌 방지를 위해 권한·범위 명확화
- 시민의 정책 참여 실효성 및 체감 효능 극대화

□ 시민주권시대위원회 개요

○ 주요 기능

- 1. 시 주요정책, 현안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공론화·제안·자문
 - 2. 공약 및 주요 정책을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하여 정책 내용 보완·구체화
 - 3. 정책 기획부터 집행, 추진상황 점검·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 참여를 통한 시민 체감 효능감 극대화

□ 추진 방향

1. 조직 체계: 시민주권시대위원회 내 운영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가. 시민주권시대위원회

- 시민, 외부 전문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시민 위원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민 중심의 대표성 강화
- 시 주요정책, 현안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공론화·제안·자문의 역할 수행

1) 운영 회의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심의 및 분과 운영 총괄·조정)

-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참여
-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전체 운영을 총괄·조정하고 상정 안건과 분과 공동의제를 결정하며, 분과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과 특정 분과에 속하지 않는 안건을 논의

2) 분과위원회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전체 위원을 시의 업무 분야별(예시: 경제산업, 안전교통, 문화교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도시주택, 농업축산)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여 구성
- 각 분과는 공동의제에 대해 해당 분과별 관점 중심으로 심층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권고안을 마련

2. 위원 모집·선발

- 시민 위원: 공개 모집 후 추천 ※ 위원 자격: 무보수 명예직
- 전문가 위원: 국·소·원별 내부 추천
- 시의원: 시의회 추천
- 공무원: 각 분과별 소관 국·소·원장 (당연직)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위원회 조례 제정 및 조직 개편(시장 직속 위원회 총괄 부서 신설)

□ 기대효과

- 시민의 정책 참여 실효성 및 체감 효능 극대화
- 시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대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 제고

2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이전 및 원스톱 365시스템 구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소상공인 생애주기(창업-성장-위기-재기)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및 재도약 지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운영 * 소상공인지원팀 업무 수행
- 사업기간: 2026년~자금 소진 시(연례 반복)
- 사업대상: 예비 창업자 및 원주시 소상공인
- 총사업비: 1,446백만 원(시비)
- 사업내용: 센터 이전, 소상공인 대상 교육 및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1.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이전

- 원도심 문화의거리 중심에 센터 이전
- 센터 운영 전문인력 추가 배치(임기제 마급 1, 기간제 1)

2. 소상공인(예비창업자 포함) 대상 교육

- 총 4회(분기별 1회), 교육 주제(홍보마케팅, AI 활용, 세무관리 등)
- ※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공동주관 교육 운영 중

3.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신규)

- (지원개요) 소상공인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150백만 원
- (지원규모)
 - 전문상담(무료): 제한 없음
 - 컨설팅(기업당 3회 이내, 회당 자부담 5만원): 연간 300회 내외
- (지원방법)

- 전문상담: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www.wonju.go.kr>sbinfo)

- 컨설팅: 전문상담 연계 추천(전문상담 위원→시) 및 별도 신청(업체→시)

*비즈니스지원단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위원이 기업의 경영 애로를 인터넷, 전화·방문 등을 통해 상담
※ 전문위원: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위촉위원
- (컨설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 위촉위원이 현장방문, 경영 애로 해결

4. 기타 지원사업 연계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보증), 홍보·마케팅 지원(라이브커머스, 사진촬영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기관 포함) 사업 연계 폐업·재기 및 재도약 지원

□ 추진경과

-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운영
 - 지하상가 내 개소 및 운영(2023. 2.~2025. 9.)
 - 침수 및 센터 주변 시설·환경 문제로 시청 복귀(~ 現)
- 소상공인 상담
 - 2023. 1.~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운영(창업, 자금, 가맹점, 지원사업 등)
- 성장·위기 지원
 - 2020.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1,397명 498.31억 원, 보증 699명 231.36억 원)
 - 2023. 9.~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92개사, 270회, 평균 만족도 90점)
 - 2023. 11.~ 온라인 활성화 사업(라이브커머스)
- 폐업·재기(재도약) 지원
 - 2023.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안내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소상공인 상담 및 정보 제공(비예산), 소상공인 정책 통합 설명회
 원주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원주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이전(준비) 계획 수립

소상공인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 2027.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이전 운영(리모델링 포함)

원주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소상공인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전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포함)

유관기관 실무협의 및 간담회 운영

소상공인 정책 통합 설명회

□ 기대효과

○ 전문위원 상주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컨설팅 확대,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담-경영애로 해결-지원사업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연간 평균 30개 업체(90회) 이상 지원, 수혜업체 평균 만족도 90점 이상

○ 원주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창업 부터 성장, 재도약까지 연계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등 정례화(반기별 1회)를 통한 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소상공인 정책 통합 설명회 개최를 통한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정책 연계 강화

3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구조화
- 사회연대경제 공동서비스 및 플랫폼 활성화 지원단 설치

□ 사업개요

- 원주시사회적경제기업현황

(2026. 7. 1. 기준)

계	(예비)사회적기업(개)		협동조합(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	예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21	67		237		13	4
	55	12	175	62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직원현황: 3명(센터장 1, 직원 2)
- 위탁범위: 시설 운영·관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 주요사업
 - (설립·운영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및 컨설팅, 교육
 -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협업모델 발굴·육성 지원, 실무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가치 확산) 청소년대상 사회적경제 체험·학습 지원, 사회성과측정 지원
 -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경제유관기관협의회 운영,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추진
 - (판로지원 및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 온라인매체 및 언론 홍보 등

□ 세부 추진계획

- 신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담당 인력 보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이에 따라 「원주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 개정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확대
 - 사회연대경제 공동서비스 및 플랫폼 활성화 지원단 설치

- 창업 및 초기단계 소규모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법인 유지 운영을 위한 업무 역량 지원
- 회계·세무·노무·법률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단 운영
-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지정 관련 업무,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관련 업무 등 공공행정 상담 업무 담당 특화
- 공동서비스 제공가능 전문인력 발굴·운영 및 공공행정 상담 인력 배치
- 통합돌봄, 재생에너지, 지역순환경제 연계 가능 사업 조사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 센터 예산사업 외 협업과 네트워킹, 사회성과 증대, 소셜임팩트 강화 등 자원 연계 및 사회 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 원주시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연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ESG 연계 강화
- 사회연대경제 교육 활성화
 - 원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연대경제 이해 교육 정례화
 - 초·중·고등학교 진로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고도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공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4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신중년의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연계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애 설계와 사회참여를 위한 종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대 상: 신중년(50~64세) 구직자
- 운영방법: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기존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내 신중년 전담 창구 설치
 - 신중년 직업상담사 지정 운영
 -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
 - 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 상담

□ 사업 추진계획

- 2026.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경력 기반 일자리 플랫폼 운영
 - 원주시 홈페이지 내 「취업정보」 운영
 - 신중년 우대 기업 및 경력직 채용 정보 제공
 - 기업-신중년 매칭서비스 운영
 - 경력기술서 및 이력서 컨설팅 지원
 -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 생애 설계 상담
 - 재취업 컨설팅
 - 직업 심리 검사 연계
 - 자격증 취득 연계
 - 금융·노후설계 상담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 인생 재설계 패키지

· 기존 중장년 재취업 성공아카데미를 건강·재무·심리·재취업으로 확대

· 1:1 컨설팅이 필요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전문기관 연계

□ 기대효과

- 채용 정보와 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중장년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산업의 숙련인력 활용 확대
- 생애설계, 재취업, 직업훈련, 사후관리의 통합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5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청년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 연계를 통해 고용률 및 취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정착과 미래 산업 인재 육성 기반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대 상: 청년(18~39세) 구직자
- 운영방법: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연계
 - ※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복지정책과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연계 ※ 연계부서: 정보통신과

□ 기대효과

- 채용 정보 및 취업 지원사업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 계층의 고용률 상승 및 지역기업 인력수급 지원
- 일자리, 청년정책 통합 안내로 청년 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 정착 촉진

6		지역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기업지원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핵심 니즈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예 산: 50백만 원
 - 사업대상: 원주시 소재 기업(중견, 대기업 포함)
 - 사업내용
 - 지역기업 「원스톱 지원 창구」 구축 운영
 - 「기업 애로 해결단」운영 (인허가, 금융, 지원사업 연결, 자금/수출/판로/세무/ 등 상담 연결)
 - 전주기 기업 지원(창업, 성장, 사업전환)

- 추진경과
- 2024. 12. 기업SOS창구 설치
 - 오프라인 창구: 기업지원일자리과(16건)
 - 온라인 창구: 원주시 홈페이지
 - 2025. 12. 원주형 통합 기업지원협의체 구성
 - 참여기관: 16개 기관
 - 운영방법: 기업지원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원적 운영
 - 2026 상반기. 기업지원
 - 창업지원: 창업기업자금 동행 지원(10개 기업, 1,370백만원 융자 추천), 창업보육센터 지원(4개소)
 - 성장지원
 - (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34개 기업, 276억원 융자 추천)
 - (보험·보증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21개 기업, 40백만원)
화재보험 지원(34개 기업, 21백만원)
제조물책임보험 지원(20개 기업, 28백만원)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5개 기업, 125백만원)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1개 기업, 9백만원)

- (마케팅 지원) 원주물 운영(230개 기업 입점)
 -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28개 기업 입점)
 -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10개 기업)
- (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베트남 12개사 참여)
 - 수출바우처지원(18개 기업), 수출보험료 지원(12개 기업)
- (투자지원)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10억)

□ 세부 추진계획

- 2026. 하반기 지역기업 「원스톱 지원 창구」 구축 운영
 - 원주시 홈페이지 / 기업SOS창구 (개편)
 - 애로사항 접수/ 지원사업 안내/ 기업특채널 공유 / 유관기관 링크
 - ※ 정보통신과 협조
 - 기업 애로 해결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4명 (단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반원: 기업육성팀)
 - (운영) 분기별 간담회 실시 및 기업 현장 방문 요구사항 파악
 - ※ 원주형 기업지원협의체 연계 원스톱 해결 솔루션 제공
 - 전주기 기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자금, 보험·보증, 마케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2026. 10.)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026. 10.)
- 2027.~ 기업 전주기 지원사업 중 미비 분야 사업 보완
 - 사업전환(폐업/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 시 기: 2027. 3.~ 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시 프로그램 개설
 - 사 업 비: 50백만 원
 - 주요내용: 진로제시·재창업·사업정리 컨설팅
 - (재무분석, 기술사업성 분석, 세무·노무·법무분야 전문가 멘토링, 재창업 등)

□ 기대효과

- 기업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및 맞춤형 지원연계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기업의 성장과 투자·사업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 활성화

7

캠프롱 어린이 과학관 건립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어린이 과학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부지 내(북원로 2790, 구 캠프롱)
-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3,000㎡(지상 3층)
- 총사업비: 200억 원
- 사업내용: 생명·의료·건강 분야를 특성화한 국립전문 강원과학관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형 전시·교육·문화공간 구축
- 국립과학관별 어린이과학관 운영 현황

구분		국립과천 과학관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대구 과학관	국립광주 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과학관규모 (건립연도)		49,464㎡ (2008년)	58,354㎡ (1990년)	24,007㎡ (2013년)	17,325㎡ (2015년)	24,906㎡ (2017년)	7,005㎡ (2025.11.)
어린이 과학관	명칭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꿈나무 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
	건립	2017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22년	-
	사업비	310억(국)	149억(국)	257억(국)	157억(국)	157억(국)	-
	규모	3,315㎡ (지상 3층)	3,386㎡ (지하1층, 지상2층)	9,413㎡ (지상3층)	3,382㎡ (지상3층)	3,080㎡ (지상3층)	-

□ 기대효과

- 강원권 대표 어린이 과학문화 거점 조성
- 어린이 맞춤형 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미래 과학인재 육성 및 첨단산업 인재 기반 확대
-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의 연계 시너지 창출

8

무실동 청소년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 수요 맞춤의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 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무실동 청소년 문화체육 복합시설 추진
- 사업기간: 2027~2032년
- 사업비: 301억 원 예상
 - ※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사업 재원부담: 도 86%(균특전환 80+도 6), 시군 14%
- 위치: 원주시 무실동 353번지 일원 (구 원주교도소)
- 사업규모: 부지면적 (미정), 연면적 6,000㎡ 이하 (지하 1층~지상4층 2개동)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성평등가족부)
 -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청소년시설확충기본계획(강원도)
- 주요시설 배치안

구분	특화시설동	체육관동
지하1층	지하주차장, 종합상황실 등	
지상1층	청소년카페, 상담실 등	VR체육관, 공연장, 탈의실(남,여), 매점 등
지상2층	특수목적강의실(AI, VR, 코딩, 요리 등)	사무실, 단체작업실 등
지상3층	일반강의실, 특수목적 강의실(음악, 댄스 등)	다목적체육관 등
지상4층	사무실, 청소년활동공간 등	체육관 객석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구 교도소) 협의(지역개발과)
- 2027.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 2028년도 청소년시설확충 전환사업 신청(시→도)
- 202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준공
- 2029. 중앙투자심사, 설계 계약 심의 및 조달청 계약 의뢰
- 2030. 착공
- 2032. 준공

□ 기대효과

- 원주 남부권역 청소년이 중심이면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의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9

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신설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혁신도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교육청: 혁신도시 남고(도시형캠퍼스 포함) 설립 추진
 - 원주시: 적합부지 확보 및 도시계획·인허가 지원
- 추진주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추진경과

- 2025.~ 혁신도시 일반고 부족 및 원거리 통학 문제 지속 제기
- 2026. 6. 교육감-시장 당선인 간담회 개최
 - 혁신도시 남고 신설을 핵심 현안으로 공동 협의
 - 혁신도시 내 적합 부지 발굴 등 협력 논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실무협의
 - (시) 학교 신설 적합부지 및 (교육청) 유휴부지 검토
- 2027. 학교 신설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추진
 - 도시계획·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2028. 학교 신설 추진(공사 발주 및 착공)

□ 기대효과

- 혁신도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통학 여건 개선
-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한 교육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10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생활권 중심의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체육서비스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태장동 강원권 다이빙장 건립
 - 위 치: 태장동 1191 일원(캠프롱 시민공원)
 - 규 모: 공인2급 다이빙장 1식(다이빙풀(25×30×5M), 관람석 500석)
 - 사업비: 16,000백만원(국비 8,000 / 시비 8,000)
- 태장1동 체육관 개선
 - 위 치: 태장동 809-4(드림체육관 내)
 - 규 모: 다목적 체육공간 조성 등 드림체육관 개선
 - 사업비: 1,000백만원(시비)
- 신림면 복합체육 공원화 추진
 - 위 치: 신림면 일원(적정위치 선정 후 확정)
 - 규 모: 다목적구장, 간이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각 1식
 - 사업비: 1,800백만원(시비)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사업계획수립(주민수요 등 의견 수렴)
- 2027.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실시설계
태장1동 체육관 개선 사업 착·준공
- 2028. 신림면 복합체육 공원화 사업 착·준공
- 2029. 강원권 다이빙장 건립 착·준공

□ 기대효과

- 다이빙장 추가 확보를 통해 중부권 수영 거점시설 기반 마련
 - 50m 경영풀과 접목하여 중부권 전국수영대회 가능한 플랫폼 조성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기여
 - 생활체육시설 중심의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11

청년·대학생 대상 콘텐츠 교육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형 콘텐츠 인재 양성
- 콘텐츠 창작 및 창업 실무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창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청년 창업 아카데미
- 사업근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 소요예산: 22,000천 원(시비)
- 사업대상: 관내 거주 18세~39세 청년·대학생
- 사업방식: 전문기관 위탁운영
- 사업내용
 - 콘텐츠 트렌드 및 기획, 창업 실무교육(마케팅, 세무, 브랜딩 등)
 -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 창업 전문가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 추진경과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수료인원(명)	26	6	8	12
운영내역(회)	기본교육(12) 심화교육(10) 멘토링(7)	기본교육(4) 앱개발특강(2) 멘토링(3)	기본교육(4) 사업계획서작성(4) 그룹 멘토링(2)	기본교육(4) 사업계획서작성(4) 멘토링(2)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8. 세부실행계획 수립 방침 결정 및 위탁기관 선정
- 2026. 9.~10. 대상자 모집
- 2026. 10.~12. 교육 운영 및 성과보고회 등
- 2027.~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청년·대학생 대상 실무형 콘텐츠 교육을 통해 디지털 창작 인재 양성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여

12

건강이음매니저 양성 및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 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지역사회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기회 창출
-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통해 건강이음매니저를 양성·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채용인원: 8명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채 용	· 기간제근로자 모집 및 채용	
교육운영	· 건강이음매니저 양성 직무교육 및 업무 매뉴얼 배포	양성교육
배 치	· 면 행정복지센터 배치 및 관리	

- 건강이음매니저 업무 내용
 -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대상 교육 및 건강 정보 안내
 - 건강·보건·복지 분야의 정보 제공 및 사업 운영 보조

○ 세부교육내용

- 직무교육 및 실습 20시간 실시(교육명 및 교육 내용 변동 가능)

	교육명	교육내용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만성질환 예방 교육 ·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상담
2	구강보건사업	·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 구강보건 생활 습관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
3	신체활동사업	· 신체활동 관리 역량 강화
4	영양·비만예방관리사업	· 영양·비만예방관리사업 · 건강관리프로그램
5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 예방 교육
6	기타 관련 교육	· 건강 보건 분야 교육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1.~2027. 2.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
- 2027. 3.~2027. 4.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7. 5.~2027. 6. 기간제근로자 모집 및 채용
- 2027. 7.~2027. 8. 건강이음매니저 양성 직무교육 실시
- 2027. 8.~2027. 12. 면지역 행정복지센터 건강이음매니저 배치 및 활동

□ 기대효과

- 지역사회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 확대
- 면 단위 중심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 증진
- 주민 밀착형 건강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조기 발견과 건강도시 기반 조성

13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학교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교육 훈련 및 취·창업 연계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운영주체: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관장 임성희) ※ 2020. 6. 24. 도 지정
- 위 치: 시청로 22(무실동, 리젠트프라자 7층)
- 사업비: 309백만 원(도 133, 시 176)
- 시설현황: 836.7㎡(조리실, 컴퓨터실, 바리스타실, 강의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사업내용: 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향상 훈련, 취·창업 알선 및 상담 등

□ 추진경과

구분	직업능력 개발훈련 (일반과정 취업유망 직종)		직무능력 향상훈련 (고용노동부 지원)		취·창업 연계 (상담, 주민설명 회 등)		
	과정 수	수료자 수	과정 수	수료자 수	구인	구직	취·창업
2024.	29개	478명	44개	321명	39건	270건	53명
2025.	40개	478명	32개	227명	186건	545건	349명
2026. 5.	15개	130명	14개	93명	127건	238건	142명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8.~12.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재취업 교육과정 계속 추진 및 신규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예산 확보
- ※ 기존 운영과정
 - 바리스타, 부동산 공·경매, 노인여가문화지도자, 진로코칭 전문가 등 취업유망직종 인력 양성 과정
 - 지역특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의료기기 전문인력)

○ 2027. 1.~12. '재취업학교' 신규 추진

※ 추가 운영과정

- 기존에 수요가 많았던 개별 교육과정(아동돌봄전문가 양성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등) 을 '재취업학교'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하여 단기간에 여러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프로그램을 운영
- 취업의욕 고취 및 자신감 향상 교육 포함

○ 2027. 12. 사업운영 성과 분석 및 향후 확대 여부 검토

□ 기대효과

-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력 양성
- 교육훈련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14

기업도시 테마형 어린이 자연 놀이터 확충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자연의 감성을 느끼며 안전하게 놀이와 체험을 즐기는 공간 마련
-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 놀이시설을 체험하는 목재공간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어린이 실내놀이터 신축)
-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41(거울못 공원 내)
- 사업내용: 목구조를 활용한 친환경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조성
- 사 업 비: 150억 원(국 65, 도 19.5, 시 65.5)

□ 추진경과

- 2025. 6. 설계공모 추진 등
- 2025. 11. 실시설계, BF예비인증 용역 착수, 지반조사용역 시행
- 2026. 3.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용역 완료
- 2026. 3.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착수
- 2026. 6. BF예비인증 접수 및 인허가 접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실시설계 완료
- 2027. 건축공사 착공 및 실내놀이기구 제작설치 공모, 운영계획 수립
 - 실내놀이기구 제안공모 시 친환경, 자연소재의 컨셉 제시
 -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구조 건축물로 탄소중립 실천
- 2028. 준공 및 개관

□ 기대효과

- 따뜻하고 안전한 친환경 놀이환경 제공
- 자연소재를 활용한 정서발달 및 창의력 향상
-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탄소저장 효과 증대
- 지역 목재산업 및 목재문화 활성화

15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실질적 시장 직속 위원회 확립 및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시장이 직접 위원장 임선 및 위원 구성을 총괄하여 실질적인 단체장 소관의 독립성과 추진력 확보
 - 실무 부서 독단으로 판단하기 힘든 복합 규제 및 대립 사안을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흡수·결정함으로써 실무자 부담 경감
 - (추진방안)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해 온 ‘원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고도화를 통해 시정 전반의 능동적 행정 기반 마련
- 규모 확대 및 민간 전문가 비율 향상으로 투명성과 심의 공정성 확보
 -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운영

• 적극행정운영조례 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추진방안) 기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외 법률 전문가 및 민간 혁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심의·의결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 적극행정 면책의 실효성 제고 및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 혁신 가속화
 - 현재 실무 공무원들은 면책 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적극행정 제안·우수사례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
 - (추진방안) 새울 시스템 적극행정 제안 게시판 체계 구축 후 위원회 정기 월례 심의를 통해 사후 감사 문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면책 조치

□ 사업개요

- 적극행정위원 전문성 강화
 - 위촉 시 전문분야와 실무경력을 고려한 위원 구성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 우수직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우수부서 선정
 - (우수직원) 연 2회(반기별)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최우수, 우수, 장려)
 - (인센티브) 우수직원 선발 즉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S) 부여 의무화, 인사가점, 원주시 위케이선 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 총무과와 협조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수부서) 경진대회 포함 성과 평가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 및 포상금 지급
-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 개최: 연 2회(반기별 1회)
 -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반기별 서면 심사 및 본선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함

○ 추진체계

자치행정과	감사관	총무과
• 적극행정 업무 총괄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자치행정과·감사관·총무과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적극행정 지원, 공무원 보호 및 인센티브 부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 추진경과

- 2025. 7.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5개 부서 6명)
 - 최우수 사례: 소아 청소년 24시간 건강 안심 진료체계 구축(보건행정과)
- 2025. 12.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5개 부서 5명)
 - 최우수 사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연계(기업지원일자리과)
- 2026. 5. 원주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 수립 이후 시정 여건 변화 및 당선인 신규 공약 철학 반영 필요시 내부 방침 결정을 통해 변경 및 중점과제 추가·보완 가능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5개 부서 5명)
- 2026. 8. 2026년 원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변경 수립

- 2026. 9. 새울 내부 시스템 적극행정 제안신청 게시판 신설
 - ※ 간편하게 면책·의견제시 안전을 상정할 수 있는 창구 구축
- 2026. 12.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 2027. 1.~ 임기 내 상시 면책 거버넌스 안착 및 위원회 활성화 성과 확산

□ 기대효과

- 정량적 요인
 - 위원회 월례 정기 개최 체제 전환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제안 안전 심의·처리 기간 단축(30일 이내)
 - 적극행정 관련 새울 게시판 구축, 성공사례 벤치마킹 공모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의견제시 신청 건수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
- 정성적 요인
 - (조직·감사) 매월 정기 위원회 개최 및 감사관 사전컨설팅 연계 강화를 통해 강력한 사전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실무 공무원들의 감사 문책 두려움 원천 해소
 - (공정 인사) 파격적인 인센티브(성과상여금 S등급, 인사가점, 해외 벤치마킹, 위케이션 우선선발 등) 제공 및 실패 부담 없는 티 지자체 창조적 벤치마킹 장려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하는 활기찬 공직 문화 정착
 - (시민·시정) 실무 부서 독단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 규제 및 대립 사안의 적시 해결로 시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당선인의 공약 철학에 부합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구현

16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 지원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의 소득 기반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및 지역 정착 촉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여 농업인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사업기간: 2027년~계속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5년간 월 9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원
- 지급방법: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 추진경과

- 2022. 8. 「원주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3. 6. 「원주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시행
- 2023.~2026. 원주시 청년 농업인 13명 선정 및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민선9기 청년 농업인 지원 공약을 반영하여 지원기간(3년→5년)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포함한 2027년 사업 시행지침 수립
- 2027.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 사업 시행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안정화
- 2028.~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제도 보완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2028년 58명 → 2029년 70명 → 2030년 이후 89명)

□ 기대효과

-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 마련
-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 확대를 통해 농촌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강화

17

원주푸드 2.0 생태계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원주푸드 2.0 수립
 - 학교급식 중심 구조에서 공공급식 전면 확대 구조로 전환
- 기획생산, 생산자 조직화, 공공급식, 먹거리돌봄, 식생활교육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6년~2029년(단계별 확대)
- 추진주체: 원주시(로컬푸드과, 여성가족과·보육아동과 등 공공급식 및 복지사업 관련부서), 원주푸드종합센터
- 추진방향
 - 「원주푸드 2.0 기본계획」수립: 공공급식 확대, 기획생산, 생산자 조직화, 먹거리돌봄, 식생활 교육 통합 실행계획 수립
 - 기존 농산물 중심 인증 구조를 축산물·쌀·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공공 급식 통합조달에 필요한 물량·품목 기반 확충
 - 단계별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정착

□ 추진경과

- 2014년 원주푸드 육성 조례 제정 및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 학교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및 원주푸드 인증제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년
 - 「원주푸드 2.0 기본계획」수립
 -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공공 급식 통합 수요조사

- 관련 복지·기관·조합과 협업 등 먹거리돌봄 지원 체계 마련
- 공공기관·복지시설·돌봄기관 등 순차적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2027년

- 1단계: 공공급식 시범사업 도입(5~10개 기관)
- 생산자 조직화 등 농산물 확보 기반 마련
- 축산물·쌀·가공식품 분야 등 원주푸드 인증 품목 확대
- 원주푸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 식재료 우선공급 검토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 2028년 이후

- 2단계: 국공립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중심 확대(2028.~2029.)
- 원주푸드 클래스와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확대
- 3단계: 원주시 공공급식 통합조달체계 구축(2029.~)

□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탄소저감 실현
- 생산·유통·급식·돌봄·식생활교육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18

중앙시장 나동 화재 복구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중앙시장 나동 2층 건물분 및 1층 토지분 매입 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회복 기반 조성
- 화재구역 환경정비와 임시 가림시설을 활용한 시정 홍보로 안전한 시장환경 및 도시 이미지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2029년
- 총사업비: 19,400백만 원(추정)
- 대지위치: 원주시 중앙동 60-55 외 3필지
- 규 모: 대지면적 1,931.5㎡ / 시지분 194.3㎡(10.06%)
건축면적 1,761㎡ / 연면적 3,522㎡ ※ 시지분 없음
- 나동 점포수: 105개소(1층 63, 2층 42) *화재일시: 2019.1.2. 12:21
- 추진방법: 화재복구TF팀 구성(3명)
- 사업내용
 - 2층 건물 및 1층 토지분 매입 집중 추진
 - 나동 보수보강 및 2층 대수선·리모델링 실시
 - ※ 보수보강 전 가림용 플레이트 지역축제 및 시정 홍보 활용

□ 추진경과

- 2019. 1.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요청
 - 사유재산 및 화재건물에 대한 지원 불가(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수리만 가능)
- 2019. 3. 화재피해 관련 지원
 - 화재피해 응급복구(1.5억), 시·도 복지지원(0.9억), 성금모금(1.2억)

- 2019. 3. 정밀안전진단: 나동 D등급(주요부재 결함, 사용제한 조치 등)
- 2019. 7.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전통시장 간담회 개최
 - 강원지방중기청, 강원도 경제진흥과 근거 법령 없어 지원 불가
- 2019. 1.~2021. 나동 화재복구 추진위원회 구성
 - 피해 복구 추진방향(보수보강 또는 재건축) 논의
- 2022. 1.~ 화재복구를 위한 간담회 수시 실시(보수보강/재건축)
 - (중앙시장 화재복구 추진위원회 / 재건축 추진위원회)
- 2024. 5. 나동 보수보강 건축기획용역비 편성
- 2025. 1~ 나동 소유자 매도동의서 징구 중
 - 토지분 매입 대상자: 1층 상가 69칸 중 43칸 소유자 동의(63% 동의)
 - 2층 상가 소유주: 41명 중 26명 동의(64% 동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나동 화재복구 TF팀 구성, 민·관 합동 추진체계 운영
 - 나동 화재구역 가림용 대형 플레이트 활용한 시정 홍보물 설치
- 2027. 소유자 매도동의서 징구
- 2028. 매입절차 진행
- 2029. 보수보강 및 나동 2층 리모델링

□ 기대효과

- 화재 후 장기간 방치되어 온 중앙시장 나동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원도심 경제 회복 기반 마련
- 단순한 화재 건물 복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 제고

4. 매력원주: 문화 · 관광 · 도시재생

민선 9기 원주시정은 문화, 관광, 체육,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재생을 통해 시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풍성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상이 빛나는 매력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행과제
매력원주 (21개)	작은도서관 확충
	북원도서관(키즈&스터디 공간)
	미래·과학 테마도서관 운영
	원주 교도소 부지 개방 및 시민광장 조성
	원도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원주ON구축)
	로컬IP 100 프로젝트 추진
	문화기본권 도시 실현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 조성
	창의문화도시 재도약
	학성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드림랜드 부지 활성화 사업 추진
	반계리 은행나무 가치 증진 관광 활성화
	중앙선 폐철로 관광벨트 조성
	비법정 관광지 편의 시설 개선
	주포천 산책로 개설
	태장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강원대표도서관 유치
	반곡관설동 두물수변공원 활성화
	판부면 원주천담 둘레길 인도 설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활성화

1

작은도서관 확충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생활밀착형 '책세권' 인프라 완성
- 걸어서 만나는 문화 안식처 조성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7. ~
- 사업대상: 원주시 전역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 시민책방 조성: 지역서점 및 카페와 연계하여 도서 비치
 - 원주 책세권 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추진경과

- 2026. 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공모사업 신청
- 2027. 시민책방 운영
원주 책세권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기대효과

-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 독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으로 '책세권 도시' 완성

2		북원도서관(키즈&스터디 공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와 놀이가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
- 자료실을 스터디카페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고도의 집중이 가능한 차별화된 독서 및 학습환경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0. ~ 2027. 12.
- 사업위치: 태장동 1052-1(구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규모: 부지면적 2,637㎡ 연면적 1,615㎡(지하1층, 지상3층)
- 사업예산: 10,216백만 원(도비 5,611 시비 4,605)
- 사업내용: 연령별 자료실, 문화강좌실 등 조성

□ 추진경과

- 2020. 북원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25. 구청사 해체 공사 준공 및 임시주차장 조성
설계 공모 공고 및 부지 추가 매입 계획 수립
- 2026. 기본 실시설계 완료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건축공사 착공
- 2027. 인테리어 공사 착공(키즈&스터디 공간) 및 준공

□ 기대효과

- 지역 내 영유아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학습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

3		미래·과학 테마도서관 운영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혁신도시 거점도서관을 통해 미래·과학 교육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미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 사업대상: 원주시민
- 사업장소: 미리내도서관
- 사업내용: 세대별 맞춤형 미래 과학 콘텐츠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미래 기술, 우주, AI 분야 북큐레이션 추진
미래 사회 읽기 독서토론 동아리, 어린이 청소년 과학 독서 교실,
과학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및 강연 운영
- 2027.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연계하여 「과학 주간」 추진
- 과학전문기관 견학, 공연 및 강연,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미래·과학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과학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거점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지역 미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전 연령 시민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원주 교도소 부지 개방 및 시민광장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지역개발)

□ 사업목표

- 폐쇄되었던 교도소 부지를 민주·생명·인권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환원

□ 사업개요

- 위 치: 무실동 3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2032년
- 규 모: 114,000㎡(사업비 미정)
- 사업주체: 재정경제부(LH 위탁)

□ 추진경과

- 2019. 1.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 선정
- 2025. 7. 개발구상(안) 협의 완료 ※ LH지역균형계획처-2425(2025.07.22.)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시 개발구상(광장 반영) 협의(재경부, LH)
- 2027. 교정시설 위탁개발 경영투자심사(LH),
사업적정성 검토 의뢰(LH→재경부)
위탁사업계획 승인(재경부→LH)
- 2028.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및 승인(LH→시→도)
- 20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LH→시→도)
- 2032. 교정시설 위탁개발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교도소 부지 개발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및 열린 시민광장 조성
-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주 여건 개선

(공원녹지)

□ 사업목표

- 폐쇄되었던 교도소부지를 민주·생명·인권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환원
- 도심 녹지 인프라 확충 및 문화 콘텐츠 결합을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무실동 353번지 일원(원주교도소부지 일원)
- 사업기간: 2028년 ~ 2030년
- 사 업 비: 18억 원
- 사업내용: 수목 추가 식재, 보행로·녹지대 연결, 기존 보행로 정비, 경관조명 및 CCTV 설치 등

□ 추진경과

- 2008. 12. 만대근린공원 최초 조성(23,163㎡)
- 2020. 12. 이화근린공원 최초 조성(70,478㎡)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 교도소부지 이전
- 2027. 관계기관 협의 및 교도소 부지 개발 계획안 확인(LH)
- 2028.~2030. 개발 계획안에 따라 보행로 및 녹지축 연결

□ 기대효과

- 시민에게 개방되는 교도소 부지를 중심으로 만대공원-이화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및 보행로 확보
- 도심의 녹지축을 통해 터미널 및 도심은 물론 봉화산 근린공원까지 연결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관광·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5		원도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원주ON구축)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원도심 활성화 통합 플랫폼(원주ON센터)으로 기능 전환 역사·문화·상권·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시민주권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 원도심 거점시설과 역사문화자원, 전통시장,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시민주권형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관광·경제가 선순환하는 「원주형 성수 프로젝트」 실현

□ 사업개요

- 원도심 활성화 통합 플랫폼(원주ON센터) 설립
 - (현)‘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마을만들기+상권활성화+관광활성화 지원 기능을 보완하여 (가칭)『원주ON센터』 설립
- 원도심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재생과(센터)+경제진흥과(사경센터)+관광과(관광협의회)+문화예술과(문화원)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관리 거버넌스(시민주권형 운영체계) 구축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 거점시설(재생거점, 전통시장, 역사문화자원) 연계 운영

□ 추진경과

-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2018. 3.)
 - 도시재생특별법 및 국토부 도시재생 추진 가이드라인, 원주시 조례 근거
- 학성동, 우산동(일반), 중앙동(중심), 봉산동(주거) 재생사업(19~26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봉산동(24~29년), 명륜동(25~30년)
- 3개(학성, 우산, 봉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26년~)
- 태장2동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27~30년) 예정
-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7~31년) 예정

□ 세부 추진계획

○ 원도심 활성화 통합 플랫폼(원주ON센터) 구축 (2027.01. ~ 2028.06.)

- 타당성 조사 용역(27년 상반기 중, 강원연구원 등 전문 기관 위탁)
 - 통합 플랫폼 설립에 따른 조직 진단 경제적지방재정 타당성 검토
- 조례(안) 의회 상정(27년 하반기)
 - 「가칭 '원주ON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입법 예고 및 시의회 의결
- 설립 허가 및 등기(28년 상반기)

○ 신규 사업 준비 (27년 상반기)

- 중앙2지구(원주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27년 상반기)

○ 기 거점시설 및 역사문화시설, 전통시장 연계사업 추진(28년 하반기)

- ※ 통합플랫폼 타당성검토, 조례제정, 시의회의결, 설립허가(등기) 등 추진으로 통합플랫폼 구축 시,
- 시민주권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플랫폼 거점시설(학생갤러리 외), 역사문화콘텐츠(강원감영 외), 시장관광 플랫폼 등 거점시설 운영
 - 원도심 로컬 관광 프로그램 '청년 수학여행'운영
 - 청년인구의 원주유입과 정착을 위한 '원주살이'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원도심 통합 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문화예술가 활동빈도, 관광객 수, 도시재생거점시설 활용도 증가
-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6

로컬IP 100 프로젝트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지역 고유 문화자원 100개를 ‘로컬 100’으로 선정·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인지도 제고
-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거버넌스 구성
- 로컬IP 정보수집, 기록, 관리, 공유를 위한 아카이빙 구축
- 지역브랜드 강화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 사업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자원(명소, 콘텐츠, 명인 등)

< 로컬 100 >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무형의 로컬문화명소, 로컬문화콘텐츠, 로컬문화명인 등 100선 선정
 - (로컬문화명소)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극장, 생활문화시설,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문화활동 공간, 문화유산 장소, 건축물, 관광지 등), 문화 연계형 상권·거리(시장, 문화지구, 문화거리 등), 로컬문화스토어(지역 서점, 카페, 음식점, 호텔·숙박 시설, 기념품숍 등)
 - (로컬문화콘텐츠) 문화·관광·예술 상품, 브랜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및 이벤트,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출판·인쇄물·디자인 등
 - (로컬문화명인(人)) 지역문화·예술인, 지역문화인력, 인물, 기업가 등
- *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민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산업(문화예술 창작물, 문화예술 관련 산업 및 상품 등), 문화시설(공연 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복합문화공간 등), 관광(관광지, 관광 명소, 관광 상품, 숙박 등), 역사 등

○ 사업방법

- 로컬IP(지적재산) 대상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민 설문 조사, 선정
- 청년·대학생 대상 콘텐츠 창작·창업 교육체계 구축
- 지역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창작·제작·유통 통합지원 거점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로컬IP(지적재산권)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27. 로컬IP 대상 사업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로컬IP 선정을 위한 아카이빙 구축 및 특화콘텐츠 발굴

□ 기대효과

- 지역문화 매력 자산의 발굴 및 브랜드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강화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과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 구축
- 생활인구(방문객) 증가로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 기대

7		문화기본권 도시 실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보편적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실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맹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문화기본권 도시 실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시민
- 지원방식
 - 매년 대상자에게 15만 원씩 바우처 지급
 - 원주사랑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으로 확대
- 지원규모: 2026년 기준 약 19,647명
- 지원금액: 2,980백만원(국비 2,000 / 도비 196 / 시비 784)
- 관련 부서 검토: (경제진흥과) 원주사랑상품권 연계 방안 검토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가맹점 확대 및 홍보
 - 원주사랑상품권 연계 사용 가능 가맹점 확대 검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집중 홍보 및 숨은 대상자(사각지대) 발굴

□ 기대효과

- 지역 경제 및 문화 상권 활성화
 - 원주시 관내 도서, 공연, 전시, 관광 상권에 직접 투입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 ‘문화기본권 선도 도시’의 위상 확립
 - 문화취약계층까지 보편적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 도모
 - 민선 9기의 가장 성공적인 혁신 복지 공약으로 시민 만족도 극대화

8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혁신도시 인근의 종축장 유휴부지를 시민 친화형 문화·창의산업 복합 공간으로 전면 재생
- 방치된 국가·공공자산을 문화·예술·청년활동·창업·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재생 핵심 거점으로 전환
- 혁신도시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하여 ‘머물고 싶은 생활문화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2032년
-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554-4번지 일원
(舊 종축장 부지) / 29필지(60,133㎡)
- 사업주체: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총사업비: 1,451억 원 (부지매입 751, 복합센터 등 500, 공원조성 200)
- 사업내용: 시민(광장)공원 및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2026~2028) 시민공원화
 - 도시숲·산책로·가족친화 시민문화(체육)공원 조성
- (2단계 / 2029~2032) 복합문화공간 건립
 - 청년·예술·창의·콘텐츠 복합센터, 청년문화실험실·아트레지던시
 - 공연·전시·문화교육 공간(소공연장·블랙박스·야외무대, 기획전시 공간 설치)
 - 협력 플랫폼 구축(지역대학·문화예술단체·사회적경제와 결합)

□ 기대효과

- 시민(광장)공원 및 청년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혁신도시와 원도심 상권을 잇는 정주 여건 개선

9		창의문화도시 재도약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하여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도시 성장 도모
- 지역 고유문화가 자생력을 갖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 사업개요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 도시 고유의 문화적 자산 및 그 창의성에 기반 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함
 - 회원도시 간의 분야와 경계를 넘어선 교류와 협력(네트워크)을 강조함
 - 사업기간: 2020.~현재
 - 사업비: 1,105백만 원(2026년/시비)
 - 사업내용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교류 사업 추진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시민 사회 저변 확대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확장을 위한 행사 추진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홍보 추진
- 문화도시 조성사업
 - 지정연도: 2019년 ※ 국·도비 지원 기간: 2020.~2024. (5년)
 - 사업내용: 문화도시 글로벌 브랜드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문화연대 사업, 문화도시 추진시스템 구축
 - 지원예산: 14,772백만 원

□ 추진경과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

- 2020.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워크숍 개최
- 2020~202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추진

○ 문화도시 조성사업

- 2015. 4.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6~2019.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
- 2020~2024. .문화도시 1~5차 연도별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 2025.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
- 2026.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용역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협력 확대 및 세계 그림책 대표 도시 조성

○ 2027.~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계획」과 연계한 원주형 창의문화 도시 재도약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세계 그림책 대표도시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 문화도시 사후관리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		학성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도시재생공간 활용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 1.~
- 사업위치: 학성동 일원(학성갤러리 일원)
※ 학성갤러리: (1층) 전시공간, 사무실 / (2층) 공방3, 프로그램실, 사무실
- 사업내용
 - 학성동 도시재생 공간을 미술, 공예 중심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조성
 - 문화 전시·공연·체험 활동 지원으로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도모
- 예 산 액: 300,000천원
 - 시각·공예분야 전문 작가 입주 지원 3실× 20,000천원 = 60,000천원
 - 원데이클레스 등 행사운영비 1식×140,000천원 = 140,000천원
 - 기타 운영비(인건비2, 운영비) 1식×100,000천원 = 100,000천원

□ 추진경과

- 2026. 중앙동·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 완료(도시재생과)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학성동 도시재생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학성동 복합문화공간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2027. 학성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도시재생지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시각, 공예분야 지역예술인 육성 및 창작 기회 제공
- 원도심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주민 문화수요 충족

11

구)드림랜드 부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의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영화·드라마 촬영세트장 조성을 통하여 주변 지역 경기 활성화 견인
- 촬영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2027년
- 사 업 비: 비예산 사업
- 위 차: 소초면 학곡리 223-3 일원
- 사업내용
 - 영화·드라마 촬영세트 관광상품 운영 및 브랜드 개발
 - 실내 스튜디오를 활용한 관람·체험형 콘텐츠 확충

□ 추진경과

- 2025. M83영화종합촬영소 영화·드라마 촬영세트장 조성 및 운영
- 2026. M83영화종합촬영소 부지 임차 및 실내스튜디오 설치 착공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M83영화종합촬영소 실내스튜디오 준공 및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강원개발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 및 도시 인지도 향상
- 민간투자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공공재정 부담 완화
- 실내·외 촬영세트장을 통한 관광객 유치

12

반계리 은행나무 가치 증진 관광 활성화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반계리 은행나무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가치를 증진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운영
- 사업기간: 2026. 1.~12. ※ 본행사: 2026. 10.~11. (2주 예정)
- 사업장소: 반계리은행나무광장 일원(반계리 1495-1)
- 사 업 비: 57백만 원(시비)
- 주요내용
 - 자연 친화 공연 운영: 친환경 사운드, 친환경 메시지 마술, 풍년 기원제 농악 공연 등
 - 자원 순환 체험프로그램 운영: 황금잎 플로깅, 낙엽 활용 책갈피&엽서 만들기 등
 - 주민 참여형 지역 먹거리 및 농산물(기념품) 판매 등
- 주최/주관: 원주시(반계리은행나무 축제위원회 협조)

□ 추진경과

- 2026. 상반기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준비(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축제 운영 및 결과 평가
- 2027.~ 평가 결과 환류, 축제 운영 개선안 도출 및 반영 운영

□ 기대효과

- 친환경 공연 운영을 통해 반계리 은행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성 동반 상승
- 주민 주도형 축제와 직거래 장터 안착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적 이익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13

중앙선 폐철로 관광벨트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중앙선 폐철로 연계 관광 거점 구축
 - 금대리 파리굴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복합 관광 벨트화
-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
 - 반곡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혁신도시 상권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2. ~2027. 12.
- 소요예산: 금1,308억 원
 - 반곡지역 580억 원(보상비 300억 원, 시설조성 226억 원, 관광열차 54억 원)
 - 금대지역 728억 원(보상비 176억 원, 테마터널 160억 원, 기반시설 392억 원)
- 주요내용
 - 반곡지역
 - 공원 조성, 열차 스테이션 및 정비소, 진입도로 등
 - 반곡역 공원 등을 활용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버스킹 공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최 등 지원
 - 금대지역
 - 금대1터널(55m): 매표소, 안내 및 보관 시설 등
 - 연결로(270m): 야외 조형물, 콘셉트 갤러리 조성 등
 - 금대2터널(1,975m):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존, 휴게공간 조성
 - 금대주차장(총 500대): 보행타워, 중앙광장, 휴게시설, 판매점 등

□ 추진경과

- 반곡지역
 - 2019~2023. 사업대상지 보상 및 국유지 매입 협의

- 2022. 관광열차 스테이션 및 정비소 조성 추진
- 2024. 반곡역 공원조성 착공
- 2025. 반곡~금대 관광열차 시범운행

○ 금대지역

- 2021.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입지적정성 평가 완료
 파리굴 디지털테마터널 조성 용역 착수(*턴키방식)
- 202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 2023.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완료
- 2024. 원주금대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 2025. 원주 궤도2호 실시계획인가 완료
 원주 궤도2호 기반시설공사 착공
 기반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반곡~금대 관광활성화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자원 보존 및 자원화
 - 폐역 및 국내 희소 철도유산(파리굴)의 체계적 보존과 창의적 공간 재생을 통한 독창적 관광 상품 개발
- 정책적 정합성 확보
 - 원주시 「중앙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사업」등 상위·관련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 도시 균형발전
 - 도심 인근 여가·체험 인프라 공급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가능성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 증대 효과 유발

14

비법정 관광지 편의 시설 개선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천은사 계곡의 필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 홍원창 일원에 주차장 신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환경 조성(홍원창 일원은 국지도 49호선 4차선 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지도 개설 후 잔여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추진(2030년 전후))

□ 사업개요

- 사업 위치: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19-10, 부론면 홍호리 972-2일원
- 사업 내용
 - 천은사 계곡 화장실 및 휴게공간 쉼터 설치
 - 부론면 홍원창 일원 주차장 신설 검토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추진경과

- 2024.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준공(홍원창 조운선 전망대 및 화장실)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2027년 본예산 반영
- 2027.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공사 착수 및 준공

□ 기대효과

- 청결한 화장실과 휴게공간 쉼터 설치로 천은사 계곡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
- 홍원창 일원 주차장 신설 및 편의 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15

주포천 산책로 개설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주포천 뚝방길을 산책로(제방도로 포장)로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및 생활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신림1교(신림리 689-19번지) ~ 용암교(용암리 534번지)
- 내 용: 주포천 산책로(제방도로 포장) 개설
- 사업량: L=1.9km, B=3.0m
- 사업비: 4.2억 원

□ 추진경과

- 2026. 6. 10. 27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전환사업) 예산 수요 조사
- 2026. 6. 17. 주포천 제방도로 포장 사업 건의(신림면)
- 2026. 6. 22. 27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신청(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11. 27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가내시(사업 선정 시)
- 미선정 시 27년 1회 추경 자체 예산 신청
- 2027. 1~2. 실시설계용역
- 2027. 3~6.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산책로(제방도로 포장) 조성으로 신림면 주민들이 산책, 자전거 이용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으며, 비산먼지 등이 감소하여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생활환경 개선

16

태장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주한미군(캠프롱) 주둔 등 군사시설 입지로 개발제한 등 상대적 소외 및 쇠퇴지역인 태장2동에 대하여 캠프롱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태장2동의 지역성과 캠프롱을 연계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조성 등 도시브랜딩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54,000㎡
- 사업기간: 2027년~2030년
- 총사업비: 210억 원(국비 126, 도비 12.6, 시군구비 71.4)
- 사업내용
 - 거점시설 조성
 - 캠프롱 내 유희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놀이터 공간 조성
 - 캠프롱 관광객 웰컴캠프 및 로컬푸드 마켓 조성
 - 도로정비 및 재난대응형 정주여건 개선
 - ※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정비로 태장2동 브랜드 정립, 지역 이벤트 및 볼거리 형성
 - ※ 스마트 안내판, 가로등, CCTV 설치 등 재난대응형 정주여건 개선
 - 집수리 지원
 - 노후화된 집수리 지원으로 주민 정주환경 개선

□ 추진경과

- 2026. 1. 19. 주민 공청회 실시
- 2026. 2. 2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
- 2026. 3. 11.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출(공모 신청)
- 2026. 3. 19. 제264회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 2026. 4. 7. 현장실사 평가(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HUG, 강원도)

- 2026. 5. 13. 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HUG, 강원도)
- 2026. 6. 30. 태장2동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발표(국토교통부)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12. 중 지역주민,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계자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실화 보완 후 2027년부터 단계적 추진

□ 기대효과

- 캠프롱 시민공원 조성 및 과학관, 미술관, 수영장 신축 등 외지 방문객(유동인구)의 태장2동 유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태장2동 지역 활성화 도모
- 골목길 환경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17

원도심 강원대표도서관 유치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강원대표도서관 유치를 필두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독창적인 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쇠퇴하는 지역의 지식·문화적 성장을 견인
- ‘책세권 도시 원주’의 브랜드가치를 원도심 문화거점으로 연계·확대함으로써 유동 인구를 유입하고, 공동화된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년~2033년
- 사업내용: 강원대표도서관 원주시 유치
- 사업주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규모: 연면적 15,000~20,000㎡(부지면적 30,000㎡)
- 부지현황: 원주시 학성동 357번지 구)원주역 부지 일원(78,750㎡)
- 소요예산(안): 200억 원 이상(부지 매입비, 시비 100%)

□ 추진경과

- 전국 광역대표도서관 건립현황 조사
 - 전국 유일 강원특별자치도만 미 추진 중
 -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은 춘천시립도서관이 지정·병행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이 원주 방문 시 광역도서관 건립 요청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도심 개발계획 수립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협의 착수
 - 도서관 부지를 포함한 (구)원주역 일원 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과)
 - 대표도서관 유치 및 지정 권한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개시
- 2027. 부지매입 추진 및 도와의 지속적 유치 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코레일 소유 철도부지 매입 협의 진행

- 부지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 협의 및 유치 노력 전개
-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에 비해 원주 시민들의 지식·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핵심 거점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임
- 강원권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유치함으로써 균등한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

18

반곡관설동 두물수변공원 활성화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대표 휴식 공간 제공
- 친수공간 활성화를 통한 시민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2~9.
- 위 치: 두물수변공원 일원(반곡동 1894-1번지)
- 사 업 비: 8억 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교체(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재포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산책로 주변 식재 및 꽃밭 조성
 - 입춘내천 낙차공 개량사업을 통한 유량 확보

□ 추진경과

- 2026. 4. 산책로 일원 관·교목 식재
- 2026. 5. 공원 내 저류지 연꽃 및 초련 식재, 입춘내천 하상정비
- 2026. 6.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사업(1회차)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9. 입춘내천 낙차공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7. 3. 공원정비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7. 4. 착공
- 2027. 9. 준공

□ 기대효과

- 수변공원의 녹지경관 개선 및 이용객 휴식 공간 조성
- 시민 휴식 공간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
-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

19		관부면 원주천댐 둘레길 인도 설치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천댐 둘레길 데크산책로 조성(B=2m, L=1km) 및 이설도로 인도 설치(B=2m, L=1.9km)를 통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12.
- 총사업비: 49억 원(시비 100%)
 - 원주천댐 둘레길 데크산책로 설치(30억원), 이설도로 인도 설치(18억원)

□ 추진경과

- 2024. 7. 이설도로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10. 데크산책로 기본설계 용역 착수(토지측량)
- 2027. 3. 데크산책로 및 이설도로 인도설치 공사 착공
- 2027. 12. 원주천댐 둘레길(데크산책로, 이설도로 인도) 조성 준공

□ 기대효과

- 이설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 걷기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20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시민이 체감하는 반려동물 문화·복지서비스·교육·인프라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 반려동물 공공서비스와 산업을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초등학교 동물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보건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 사업기간: 2026.~(단계별 추진)
- 주요내용
 - 기존 반려동물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 이동식 반려동물 보건소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 추진

□ 추진경과

- 반려동물 여가 기반 조성
 - 아름들, 원주천댐, 원주천 반려견 놀이터
-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운영
 - 이동식 반려동물 보건소, 사회적 약자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및 입양비 지원
-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초등학교 생명존중 교육 운영
- 원주시 반려동물 행사를 통한 반려문화 교류 및 확산
 - 반려동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반려인 정보교류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2026년~2028년):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분야	현재	공약 추진내용
반려견 놀이터	놀이터 3개소 운영	운영시간 및 이용대상 확대 검토 편의시설 확충
이동식 보건소	건강검진 중심 운영	운영 확대 및 펫 응급케어 체험교실, 건강상담 등 서비스 확대
반려동물 교육	행동교정·생명존중 교육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운영
유기동물 보호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지원 확대 및 입양 활성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약자 진료비 지원	사업량(지원규모) 확대 검토

○ 2단계(2027년~2029년):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연도	추진내용
2027년	「원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2028년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2029년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 육성사업 추진

○ 3단계(2030년 이후):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 추진

연도	추진내용
2030년 이후	-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검토 - 사업부지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재원 확보 및 단계적 추진

□ 기대효과

-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현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구축

21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활성화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 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국도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상인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총사업비: 비예산 ※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시비 매칭
- 사업기간: 2026~2027년(2년간)
- 추진방법: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
 - 골목형상점가 컨설팅 지원 및 하반기 지정 추진
 - 주민·상인회 참여 간담회를 통한 사업 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 국도비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모 참여 우선지원
 -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물레방아거리 특화 브랜딩 추진

□ 추진경과

- 2026.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문의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골목형상점가 컨설팅 지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 상품권 가맹 지원
 - 시장경영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2027. 지역상권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신청

□ 기대효과

-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통한 소비 유입 증대 및 상권브랜드 특화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상권브랜드 개발과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상점가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성장 도모

5. 안심원주: 복지 · 돌봄 · 안전 · 생활SOC

민선 9기 원주시정은 복지, 돌봄, 보건의료, 안전, 기후환경 및 생활SOC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지키는 안심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행과제
안심원주 (21개)	기후적응 녹색 생활권 조성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농촌 미래전환 프로젝트
	시장직속 「농업·농촌 통합 거버넌스」 구축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
	원주형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강화
	통합돌봄과 신설
	원주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아이돌봄마을 확충
	기후도시 추진
	기업도시 공공형 어린이병원 확대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시니어 헬스케어 스마트 서비스 실시
	치매안심마을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봉산동 동부순환도로 조기 개통
	오페라웨딩컨벤션~중앙하이츠 도로 개설 추진
	시민 거버넌스 기반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가칭)」 구성
	원주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1

기후적응 녹색생활권 조성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생활권 단위의 도시숲·하천·공원·학교·보행로·공공시설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물순환 회복을 통해 폭염 등 기후 위험에 강한 공간을 조성
- 녹지 조성 목표를 면적 중심에서 체감도 중심으로 전환(그늘 접근성, 보행 편의성, 폭염저감 효과, 생태 연결성, 시민 이용 만족도 등)
- 원주시 도시 바람길숲 여건 분석을 통한 치악산 바람길숲을 중심으로 가로수, 반곡근린공원 및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을 결합하고 이를 원주시 전 생활권으로 확장하여 기후 위험에 강한 생활권 녹색 네트워크 완성

□ 사업개요

- 치악산 바람길숲 보완 사업 추진
 - 도심지 폭염 대비 수목 보식 및 휴게시설물(그늘막) 설치 등
 - 치악산 바람길숲과 연계한 봉산 노을언덕 조성
- 반곡근린공원 조성 추진
 - 잔디광장, 무장애숲길 및 비오톱정원 조성을 통한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 미세먼지 저감숲(문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대상지 내 녹지 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여가생활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이 가능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 학교숲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숲 확충 청소년 학습장 및 지역 주민의 쉼터로 활용

□ 추진경과

-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 준공
 - 2025. 10. 전 구간 개통하여 운영
 - 2025. 10. 바람길숲과 가로수 등을 연계한 녹색 네트워크(52.4km) 구축
 - 2026. 06. 봉산 노을언덕 조성사업 테크 전망대 추진
- 반곡근린공원 조성 추진
 - 2026. 4. 반곡근린공원 조성공사 착공
-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추진
 - 2025. 12. 미세먼지 차단숲(반곡역, 2ha) 조성사업 완료
 - 2025. 12.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가 대상지 확정 ※ 국도비사업

- 2026. 5. 실시설계용역 추진
-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 2007.~2022. 관내 학교숲 33개소 조성
- 가로수·띠녹지 결주구간 보식 사업
 - 가로수 이팝나무 40주 식재, 띠녹지 결주 구간 관목류 보식
 - ※ 식재 수량은 현장 확인 후, 추후 결정
- 완충녹지 수목 식재 사업
 - 느티나무 식재(R=20 ~ 30)
 - ※ 식재 수량은 현장 확인 후, 추후 결정

□ 세부 추진계획

- 치악산바람길숲 보완사업 추진
 - 2026. 9. 봉산 노을언덕 데크전망대 및 경관조명 설치
 - 2027. 3. 봉산동 구간 명품 메타쉐콰이길 조성을 위한 수목 추가 식재
- 미세먼지 저감숲(문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국도비사업
 - 2026. 9.~11. 공사 추진
- 반곡근린공원 조성 추진
 - 2026. 4.~12. 반곡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
- 치악산 바람길숲 인근 소공원 조성 추진
 - 2027.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 2027. 2. 2028년 지방이양사업(학교숲 조성)신청 ※ 도비사업
- 가로수·띠녹지 결주 구간 보식 및 완충녹지, 공한지 등 수목 식재 사업
 - 2026. 8. 띠녹지·가로수 결주 구간, 완충녹지 그늘목 식재 대상지 파악
 - 2026. 10. 결주 구간 보식 및 그늘목 식재 사업 발주

□ 기대효과

-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 위험에 강한 생활권 단위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단절된 도시숲·하천·공원·학교숲·골목 녹지의 연결을 통한 도시생태계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시민 참여형 생태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거버넌스 실현
- 도시숲(미세먼지 차단숲) 효과
 - 온실가스 흡수: 도시숲 1ha당 이산화탄소 6.9톤 흡수 산소 5.0톤 방출
 - 대기정화: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
 - 기후조절: 여름 한낮 평균기온 3~7도 완화하고 습도 9~23% 상승
 - 소음저감: 큰 교목들의 자동차 소음 75% 및 트럭 80% 소음 감소 효과
 - 휴식·정서함양: 휴식·공간 제공 및 심리적인 안정 효과

2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노후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순차적 개량으로 방류 수질 강화 및 처리시설 기능 저하 사전 대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 일원
- 사업내용: 유입침사지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 총사업기간: 2021. 1.~2029.12.
 - 2021.~2027.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 2026.~2029.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 총사업비: 676억 원
 -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426억 원
 -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약 250억 원

□ 추진경과

- 2021. 3. 실시설계용역 착공(유입침사지 증설사업)
- 2024. 3.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유입침사지 증설사업)
- 2026. 2.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환경부)

□ 연차별 추진계획

-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 2027. 12. 공사 준공
-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 2027. 실시설계용역
 - 2028.~2029.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노후화된 시설물을 신설 및 개량함으로써 원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방류 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하여 원주천 하류의 수질 개선 기여

3		농촌 미래전환 프로젝트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의 체계적 재편과 생활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형 농촌생활권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SOC사업 발굴 및 농촌공간 관리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 농촌개발사업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중앙공모 사업 필수 전제조건
- 생활권 중심 농촌협약 및 마을만들기 생활 SOC 확충 연계
 - 농촌공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읍·면 지역에 복수의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앙-지자체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 2020년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및 종합개발사업 예산 확보 및 소액사업을 통한 마을단위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수립 역량 함양
- 주민 참여 기반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 농촌지역 내 문화·복지·교육 서비스 공급 기반과 연계한 주민 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빨래·목욕·마사지·어르신케어 프로그램 등 농촌서비스 확대
-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정비와 미래전환 사업 발굴
 - 유희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돌봄·창업 등 복합 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미래전환 거점 조성

□ 추진경과

- 2024.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2025. 12. 「원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착수
- 2026. 1.~5. 행정 착수보고, 원주시의회 착수보고, 읍·면 설명회 및 인터뷰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중양·광역 심의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미래전환 사업 발굴
2027년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선정(자율개발 1개소, 종합개발 2개소)
- 2027. 원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수립 착수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지역 맞춤형 농촌재생사업 발굴
2027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2028년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선정(자율개발 1개소, 종합개발 2개소)
- 2028.~ 2029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 신청
빈 건물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미래형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원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수립으로 중·장기 농촌공간 미래전환 계획 수립
- 중앙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 농촌협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목표: 280억 원)
 - 유휴시설 리모델링과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 주민 참여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활력 회복

4

시장 직속 「농업·농촌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시장이 주재하는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농촌·먹거리 단체·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강화
- 현장 중심의 정책과 민관협력을 강화한 농정 로드맵 설계

□ 사업개요

-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확대 개편
 - 정책심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먹거리,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
-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야별 정책 심의 기능 개선
 -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심의 체계 운영
 - 주요 농정 현안을 분과별 검토·자문하여 정책 실행력 제고
- 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정 통합 거버넌스 운영
 - 시장이 주재하는 정책심의회를 통해 주요 농정 정책과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농업인·전문가·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 농정 추진

□ 추진경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정책심의회 구성
-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개편 방침 결정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야별 위원 위촉 등 정책심의회 개편
- 2027.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주요 정책 및 공약 통합 관리 및 정책 협의 강화
- 2028.~ 정책심의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정착
주요 농정 공약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환류체계 운영

□ 기대효과

- 시장 중심의 정책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 제고
-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의 유기적 연계로 부서 간 정책 시너지 창출
- 농업인·시민·전문가가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현장 중심 농정 실현

5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 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천 댐과 연계한 시가지 치수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조속 추진
- 원주천 학성지구 저류지 조성 이후 정지뜰 일원의 하천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친수·휴식·문화 기능을 갖춘 수변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학성동 ~ 호저면 주산리 일원
- 내 용: 저류지 1개소($A=33.9\text{m}^2$, $V=87.9\text{만}\text{m}^3$), 축제(보축) $L=2.373\text{km}$
- 사업추진: 원주지방환경청
- 사업기간: 2020~2030년
- 사 업 비: 1,793억 원(국비 100%)

□ 추진경과

- 2005. 3. 섬강수계(원주천)유역종합치수계획 반영 고시(국토부)
- 2019. 1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0.95→AHP 0.544)
- 2020. 1. 원주천 국가하천 승격 지정
- 2020. 4.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5.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11.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2. 총사업비 확정
- 2023. 3.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총사업비 10%이상 증가)
- 2024. 2.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재확정, 사업인정 주민 의견 청취
- 2024. 8.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24.08.30.)
- 2024. 9.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사 착공
- 2025. 10. 1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25. 11. 2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26. 7. 보상 30% 진행 중
 - ※ 현재 총사업비 변경 사전 협의 중(재정경제부)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12. 보상 완료
- 2027. 3. 학성저류지 공사 착수
- 2030. 12.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원주천 치수기능 향상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속히 완료
 -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조기 사업 완공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경제부와 진행 중인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이행률 변경 불가피
-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 정지뜰 친수공간 조성 추진
 - 재해예방사업 완료 및 우리시로의 시설물 인수 후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위한 친수공간(산책로, 쉼터, 주차장 등) 조성

6

원주형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강화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보육아동)

□ 사업목표

- 돌봄 공백 시간대(퇴근 전후·야간)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돌봄 취약시간대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7. 1.~계속

- 사업대상: 야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 사업내용

- 권역별 야간연장보육 운영 활성화
- 야간보육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야간연장보육 이용 홍보 및 수요 발굴

○ 지원내용

-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
- 야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 소요예산: 96백만 원(시비 100%)

※ 산출기초: 야간연장반전담교사 수당(200천원*16개소*12개월 = 38,400천원)

야간운영비(300천원*16개소*12개월 = 57,600천원)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9.~12.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 2027. 1.~2. 야간보육 운영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7. 2.~ 권역별 야간연장보육어린이집 지정
- 2027. 12. 사업운영 성과 분석 및 향후 확대 여부 검토

□ 기대효과

- 야간보육 접근성 향상 및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여성가족)

□ 사업목표

- 24시간 아이돌봄 체계 구축
 - 원주형 365 다함께돌봄 운영(1개소): 주말·공휴일 아동 돌봄
 -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 연장 운영(5개소): 18시~22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야간긴급돌봄 운영): 22시~06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 사업개요

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교
- 사업내용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 학기 중: 13:00~20:00 / 방학 중: 09:00~18:00
 -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원주형 365돌봄: 주말·공휴일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1개소) 08:00~19:00
- 소요예산: 3,278백만 원(국 908, 도 489, 시 1,880)

2) 지역아동센터 운영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사업내용
 - 운영비 지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 아동 급식(학기중 석식, 방학중 중식) 및 급식종사자 지원
 - 특성별 추가 지원(특화프로그램형/야간연장돌봄형/토요운영형)
 - 돌봄시간 연장 운영: 5개소 / 07:00~22:00
 - 시설 기능보강(환경개선) 지원
- 소요예산: 6,836백만 원(국 1,890, 도 1,213, 시 3,733)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야간긴급돌봄 운영)

-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야간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12세 이하 아동)
- 사업내용: (서비스 시간) 22시~익일 06시
- 소요예산: 8,783백만 원(국 6,148, 도 526, 시 2,107)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지정

-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
- 사업기간: 2027. 1~12.
-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추진
 - 2026 하반기 아이돌봄사 20여 명 추가 채용
 - 2027 아이돌봄사 50여 명 추가 채용

□ 연차별 추진계획

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027. 15개소 운영
- 2028. 신규설치 3개소 / 18개소 운영
- 2029. 신규설치 1개소 / 19개소 운영
- 2030. 19개소 운영

2) 지역아동센터 운영

- 2026. ~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운영(계속)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2026. ~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운영(계속)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지정

- 2026. 기존 기관 협의 및 추가 지정 검토 / 운영사례 벤치마킹
- 2027.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지정 추진
- 2028.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운영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여부 검토

- 사업내용: 아이돌봄 이용료 정부지원금 외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50%~20%) 시 지원
- 사업비: 850백만 원(시비)
- 검토사항
 - 아이돌봄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아이돌봄사 확충과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지정으로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예상
 - 본인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른 시 재정부담 증가
- ⇒ 기 이용자의 추가 지원보다는 대기자 감소를 위한 사업에 지원 필요

□ 기대효과

-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 등 양육 부담 완화

7

통합돌봄과 신설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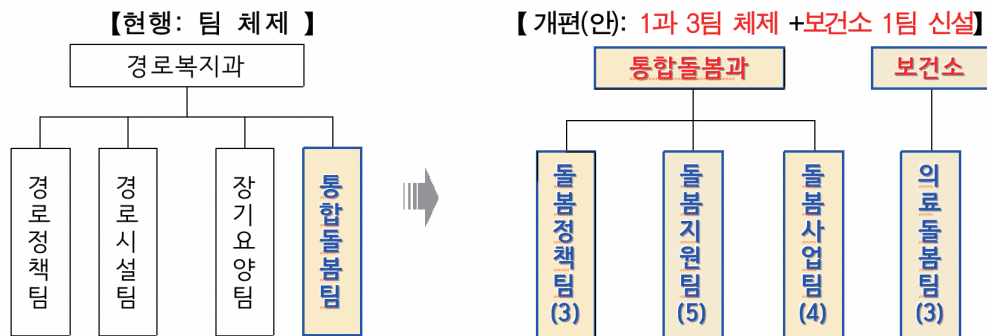
□ 사업목표

- 초고령화 및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25개 읍·면·동 전역에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전담 조직 신설 및 권역별 팀을 통해 보건·의료·복지를 아우르는 원스톱 맞춤형 돌봄 체계 완성
- 고령, 장애, 질병이 있는 어르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협업 및 보건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사업의 추진력과 완성도 제고

□ 사업개요

- 조직개편(안)
 - 현 복지국 산하 경로복지과 통합돌봄팀을 통합돌봄과 승격 및 신설
 - 보건소 산하 의료돌봄팀 신설

전담조직 구성(안)



○ 조직 구성

- (복지국) 1과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정책 및 사업 총괄, 권역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등 업무 수행
- (보건소) 의료돌봄 통합지원 총괄, 의료돌봄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업무 수행

○ 주요 기능

- 원주형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총괄, 농촌지역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 확충

- 보건의료 전문성 기반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 추진경과

- 2024. 의료·요양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025. 노인통합돌봄TF팀 운영
- 2026. 통합돌봄팀 신설(팀장 1, 팀원 3)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 조직개편(안) 방침 결정
 - 복지국 통합돌봄과 및 보건소 의료돌봄팀 신설
 -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 2026. 10. 조례 개정 등 개편 추진(조직담당)
- 권역별 지역특화사업 추진
 - 기능별 팀 구성을 통해 대상자 발굴관리 전담팀과 사업팀을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교통과 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이동 지원,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 체계 최적화
 - 전담인력과 읍·면·동의 체계적 관리로 현장 대응 속도 및 행정 효율 극대화

8

원주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 및 노인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원주시
- 사업비: 3억 원(시비 100%)
- 사업기간: 2027. 1.~계속
- 사업내용: 원주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 추진경과

- 2026. 문막읍 외 경로당 475개소 기능보강 수요조사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경로당 60개소 기능보강
 - 2028. 경로당 60개소 기능보강
 - 2029. 경로당 60개소 기능보강
 - 2030. 경로당 60개소 기능보강
 - 2031. 경로당 60개소 기능보강
- ※ 부지 확보 및 예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자 함.
- ※ 다만, 노후화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신축을 검토할 예정임.

□ 기대효과

-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복지 향상

9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소통·교류 및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 교육·문화·여가·상담, 장애인 단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구 태장도서관 활용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위 치: 체육과 소관 유희공간
- 사업내용: 기존 구 태장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소통·교류, 문화·예술·여가, 교육, 상담 및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 구 태장도서관의 관리부서를 체육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
- 2027.
 - 기존 구 태장도서관(지상 1층,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교육·여가 및 장애인단체 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
 - 소통·교류, 문화·예술, 교육, 상담, 장애인 단체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

□ 기대효과

-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육·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며, 장애인단체 간 협력과 참여 기회를 확대
- 기존 유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

10

아이돌봄마을 확충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신규 설치 및 운영
 -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의무 설치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 사업내용

가. 신규 설치

- 기 간: 2026년~2031년
- 대 상: 500세대 이상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및 임의설치
- 사업비: 595백만 원
 - ※ 개소당 설치비 50백만 원~75백만 원(국 50%, 도 25%, 시 25%)
 - 기자재 20백만 원~30백만 원(국 100%)
- 사업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민간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나. 시설 운영(민간위탁)

- 기 간: 2026년~2031년
- 사업비: 19,520백만 원
 - ※ 운영비(월 103만 원), 추가운영비(월 50만 원),
 - 인건비, 추가인건비(최고 20호봉), 이용료(아동당 월 10만 원)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 (학기 중) 13:00~20:00 / (방학 중) 09:00~18:00
-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당 월 10만 원 이용료 지원

□ 추진경과

- 2025.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운영
- 2026. 상반기 신규 설치 및 운영 2개소(12개소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하반기 신규 설치 및 운영 3개소
 - 반곡 롯데캐슬, 단구 자이센트로, 임의설치 1개소
- 2027.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 운영
- 2028. 신규설치 및 운영 3개소(의무설치 3개소) * 준공 예정
 - 무실A-1 공공임대주택(2028. 2.), 중흥S클래스(2028. 6.),
우미린 더스카이(2028. 8.)
- 2029. 신규설치 및 운영 1개소(의무설치 1개소,)
 - 우미린 더스텔라(*2029. 5.)
- 2030. 다함께돌봄센터 19개소 운영

□ 기대효과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7개소(의무설치 6개소, 임의설치 1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 19개소 / 돌봄아동 정원 436명 → 651명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11

기후도시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로 기후도시 조성
-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는 숙의 중심의 기후시민회의 가동
- 부서 간 협업 이행 기반 확립과 실행력 강화 위한 기후도시추진단 설치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사업기간: 2026. ~ 2030. ※ 지속 추진
- 소요예산: 11억 원(年)
-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강화)
 - 국가 NDC 및 기본계획 연계한 시(市) 기본계획 변경 수립·시행
 - 실효성 있는 부서별 신규 과제 발굴 확대 및 기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적응 대책 마련 및 시민 중심 거버넌스 활성화
 - 정책 추진 지원 기관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 (기후 시민 회의)
 -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학습·토론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 주도 기후 공론화 기구 설치·운영
 - 시민 선발, 홈페이지 구축 등 상시 운영 기반 및 지원 체계 마련
 - (기후도시 추진단)
 - 탄소중립정책 종합기획 및 컨트롤타워 구축
 - 기후환경에너지부 7대 역점사업 추진
 - ①에너지, ②폐기물, ③수송, ④주택·건물, ⑤흡수원, ⑥기후적응, ⑦시민실천·녹색일자리
 - 협업 부서 : 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일자리과 등
 - 성과평가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강화

- (탄소중립 교육·홍보)

-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경과

- '25. 4. 시(市)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수립
- '26. 5. 시(市)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이행점검 완료

□ 세부 추진계획

- 시(市)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변경 수립('27. 12.)
- 기후시민회의
 - '26. 8.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 '27. 1. 기후시민회의 계획 수립
 - '27. 4. 기후시민회의 홈페이지 구축
 - '27. 7. 기후시민회의 운영
- 기후도시추진단
 - '26. 8. 추진단 구성 계획 수립
 - '26. 9. 2025년 이행점검 결과 환류회 및 1차 회의 개최
- 탄소중립 교육·홍보 확대 운영 계획 수립('27.~)

□ 기대효과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및 기후 안전망 강화로 시민 체감형 기후 도시 도약
-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통한 시민 중심 거버넌스 활성화 및 탄소중립 교육·홍보 확대로 녹색 생활 실천 문화 정착
- 기후도시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유기적인 협업 체계 확립으로 기후 정책의 실행력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2

기업도시 공공형 어린이병원 확대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 소아 필수의료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원주형 소아의료 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소아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추진
 - 원주연세의료원 제2병원 내 어린이전문진료센터 기능 확보 추진
 - 소아청소년 전문진료 기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원주연세의료원 기업도시 제2병원 건립 현황]

- 위 차: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28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5~2028년
- 사업비: 약 550억원
- 건축규모
 - (대지면적) 17,982.77㎡(5,440평)
 - (연면적/층수) 11,934㎡(3,610평) / 지상 7층, 지하 1층
 - (병상수/진료과목) 50병상 / 건강검진센터 등 세부 진료과목 추후 선정

- 원주형 소아 필수의료 지원체계 강화

-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추가 지정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
-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 사업 지속 추진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 사업]

- 사업비: 600,000천 원(도비 20%, 시·군 70%, 자부담 10%)
- 사업기간: 2025. 7.~2027. 12.
- 사업목적: 평일 및 휴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중증 응급환자 진료
- 운영기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참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지원내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인건비 지원

□ 추진경과

- 강원 남부권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병원 확충 필요성 및 의료기관 협력방안 건의
- 원주형 소아진료 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구 분	수행 의료기관	진료시간		비 고
		평일	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우리들소아 청소년과의원	18:00~23:00	09:00~18:00	소아경증환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원주의료원	17:30~23:00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소아중증환자

□ 연차별 추진계획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공공형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 어린이전문진료센터 등 소아청소년 전문진료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 투입 등 자체 재원 확보 방안 수립 필요
- 공공형 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 협력 및 행정절차 추진

□ 기대효과

- 강원 남부권 소아 환자의 지역 내 진료 이용률을 높이고, 타 지역 의료기관 이탈 및 전원 최소화
- 소아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체계 구축

13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확대 추진
 - 원격협진 참여 협력의료기관 확대 및 장비 지원
 - 만성질환자 등 원격협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 사업비: 33,000천 원(군특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대상: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등록대상자 중 원격협진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 등
- 수행기관: (의뢰) 보건진료소 8개소 / (자문) 보건지소 1개소, 민간의료기관 8개소
- 사업내용: 의료인간 화상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을 통한 원격협진 예약·진료기록·처방 관리 및 의료 자문 등

- 「비대면 진료」이용 지원체계 마련
 -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약국 협력체계 구축
 -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 진료 이용 안내 및 지원

□ 추진경과

- 2025. 5.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확대 추진(민간의료기관 참여)
- 운영실적

구분	2024	2025	2026	비고
원격협진	923	920	303	2026년 의과 공중보건 의사 감소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연계 중심으로 원격 협진 추진

□ 추진계획

- 2026. 9~12.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수행기관 화상 장비 점검 등
- 2027. 1~3. 사업계획 정비 및 사업 자문의료기관 수요 조사
- 2027. 4~12. 민간의료기관간 업무협약 및 사업 운영

□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속적 건강관리 환경 조성
- 의사 자문 기반의 밀착형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14

시니어 헬스케어 스마트 서비스 실시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고령층의 건강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실시
- 헬스케어 신기술 실증(Testbed)으로 지역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9. 1.~2030. 12.
- 대상지역: 원주혁신도시(AI특화시범도시 우선지구)
- 사업대상: 고령층 등 200명
- 사업내용
 - 부착형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건강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심박수, 혈압, 혈중산소, 체온 등 측정 후 이상징후 안내

□ 추진경과

- 2026. 3. 6. 국토교통부 AI특화시범도시 사업 공모 공고
- 2026. 4. 1.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민간 컨소시엄 모집 공고
- 2026. 4. 21.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민간 컨소시엄 선정 평가
- 2026. 4. 23.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민간 컨소시엄 선정 공고
- 2026. 5. 22.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공모신청서 제출
- 2026. 6. 9. 현장 평가
- 2026. 6. 17. 발표 평가
- 2026. 6. 18. 원주시 AI특화시범도시 최종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 7.~2027. 6. 기본구상 수립(국토교통부)
- 2027. 7.~2028. 12. AI 인프라 구축
- 2029. 1.~2030. 12. AI 기술 개발 및 실증

□ 기대효과

- 생활공간에서 건강을 측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 마련
- AI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수용도 및 만족도 향상
- 지역기업의 기술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헬스케어 선순환 구조 마련

15

치매안심마을 조성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치매안심마을 지역주민
- 사업비: 비예산
- 운영절차

1) 지역 선정 및 조사

- (지역 선정) 주민 적극성,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역 자원 조사) 지역 내 협력 기관, 시설 등 참여 가능한 자원 파악
-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 치매안심마을 운영 전 지역주민 치매인식도 조사

2) 운영위원회 구성

- 치매안심마을의 기획·운영·성과분석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기관(공공기관, 민간 시설, 주민 단체 등), 지역주민(치매환자 가족, 개인 등)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 구성

3) 치매안심마을 등록(지정)

-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준비 기준(지정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ANSYS)에 등록
- ※ 지정 기준: 지역 선정(동 또는 리), 지역 조사(지역자원 조사,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지역주민 30명 이상 시행), 운영위원회 구성(최소 5인 이상)

4)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운영내용

- 운영위원회 운영,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추진경과

○ 치매안심마을 2개소(원인동, 태장2동) 운영 현황

구 분		원인동	태장2동
지정일		2019. 4. 24. (우수 치매안심마을)	2023. 8. 21. (우수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연 2회 운영	연 2회 운영
주요 실적	2025	• 치매인식개선 교육: 232명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544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224명 • 치매극복선도단체 1개소 지정	• 치매인식개선 교육: 756명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594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219명 • 치매안심가맹점 2개소 지정
	2026. 6.	• 치매인식개선 교육: 15명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300명	• 치매인식개선 교육: 254명

□ 연차별 추진계획

○ 신규 치매안심마을 1개소 지정·운영

- 2026년 하반기: 지역 선정(주민 적극성,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등 분석)
- 2027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
- 2027년 하반기: 치매안심마을 등록 및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내실화

- 치매안심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치매극복선도 단체 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속 확대

□ 기대효과

-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주민 참여형 치매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확대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돌봄 기반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16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신규여부	계속/신규	완료시기	임기내/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중기/장기
예산여부	예산/비예산	사업주체	국가/광역/자체		

□ 사업목표

-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 및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 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하고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 사업위치: 관내 어린이공원 12개소 연차별 추진
- 사업비: 6,500백만 원
- 사업내용: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자연관찰 공간 조성, 그늘목 식재 및 수목정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단계(평원·소망·하늘 어린이공원)
 - 단계동 평원·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
 - 단구동 하늘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추진
- 2028.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단계(어린이공원 3개소)
- 2029.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단계(어린이공원 3개소)
- 2030.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단계(어린이공원 3개소)

□ 기대효과

- 노후한 어린이공원 정비를 통해 단순 시설 교체가 아닌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놀이·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활권 가치 향상
-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놀이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개선

〈노후어린이공원 현황〉

구분	공원명	면적(m)	최초결정고시	조성년도	경과년수	비고
1	단구어린이공원	4,891	1986-12-16	1986	38	
2	단계어린이공원	4,229	1986-12-19	1986	38	
3	갈색어린이공원	1,666	1984-10-05	1986	37	
4	무지개어린이공원	2,313	1986-12-19	1992	32	
5	초롱어린이공원	1,487	1993-07-20	1993	31	
6	나리어린이공원	1,853	1993-04-21	1995	29	
7	건등산어린이공원	7,500	1993-04-21	1995	29	
8	나비어린이공원	1,500	1993-04-21	1995	29	
9	노랑어린이공원	1,815	1994-01-12	1997	27	
10	하양어린이공원	1,593	1994-01-12	1997	27	
11	보라어린이공원	1,614	1994-01-12	1997	27	
12	남빛어린이공원	2,740	1994-01-12	1997	27	
13	빨강어린이공원	1,509	1997-10-01	1997	27	
14	관설어린이공원	2,873	1999-07-07	1999	25	
15	나옹정어린이공원	2,888	1999-07-07	1999	25	
16	희망어린이공원	2,053	1994-07-26	2001	23	
17	구름어린이공원	1,501	1996-10-17	2001	23	
18	아름어린이공원	1,501	1996-10-17	2001	23	
19	기름어린이공원	1,516	1998-05-12	2001	23	

※ 시설물 노후상태 및 민원사항 등 종합적 검토 후 연차별 3개소씩 추진

17

봉산동 동부순환도로 조기 개통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번재소류지~백호정사 미개통 구간(L=1.98km) 조기 완공을 통해 봉산동 동부순환로 전 구간(L=3.74km)을 연결하여 원주시 동부 내부 순환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6년~2027년
- 사업량: 도로 개설 L=3.74km, B=35m
 - 구간별 사업 현황
 - 봉산~화실: L = 0.62 km(2017. 6. 시공 완료.)
 - 화실~번재소류지: L = 1.14 km(2020. 7. 시공 완료)
 - 번재소류지~백호정사: L = 1.98 km(금회 시행)
 - 번재소류지~백호정사 구간 공사비 현황
 - 총사업비: 88,700백만원(공사비 79,200, 보상비 4,000, 실시설계비 500, 감리용역 5,000)
 - 주요구조물
 - (터널) 행구방향 L=676m, 원주IC방향 L=686m, H=8.95m
 - (교량) 소초교(가칭) L=48m, B=36m

□ 추진경과

- 2023. 3.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3. 6. 착공
- 2025. 9. 소초터널 관통 및 소초교 하부공 완료

□ 연차별 추진계획

- 2027. 9 도로임시 개통
- 2027. 11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 기대효과

- 시 동부구간을 순환하는 내부 순환도로로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 비용 저감
- 혁신도시와 원주IC를 연결하여 수도권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지역개발 기여

18

오페라웨딩컨벤션~중앙하이츠 도로 개설 추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단절된 중로1-20호선(단구동~관설동) 구간을 연결하여 원주 남부 도시 내부 도로망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32년
- 위 치: 서곡리 433-3~서곡리 산54-4(판부), 단구동 산107-9~관설동 1556 (단구,관설)
- 사 업 량: 판부구간 (L=370m, B=20m)
 - 중로1-20호: B=20m, L=372m, A=8,122㎡
 - 중로2-30호: B=15m, L=157m, A=2,469㎡
 - 총사업비: 122억 원(시비)(공사비 84억, 보상비 38억) (판부구간)

□ 추진경과

- 2022. 10.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3. 10.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23. 10.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4. 1.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 준공
- 2024.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024. 6. 기본설계용역 준공
- 2024. 7. 중로1-20호, 중로2-30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5년연장)
- 2025. 1. 실시계획인가 완료

□ 연차별 추진계획

- 1구간(이편한프리모원) : 예산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 추진
- 2구간(중앙하이츠) : 민간사업자 사업 구간 포함

□ 기대효과

- 남부 지역 내부 도로망 연속성 확보
- 오페라웨딩홀~중앙하이츠 단절 구간(L=840m) 연결로 단구동~관설동 간 우회 통행 해소 및 이동 시간 단축

□ 사업목표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교통 혁신 실현
-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가칭)’ 구성
 -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 한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심의 역할 수행을 넘어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제안 및 조정 기능 강화
 - 원주시, 시민사회, 교통전문가 및 학부모, 교통약자,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 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형 현장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및 모니터링 추진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가칭) 「원주시민주권 교통혁신위원회」
1.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단가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승강장 및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7.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능추가】 ○ 시민 참여 기능 신설 ○ 시민 노선 제안 및 평가, 모니터링 기능 ○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향상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 마을버스 노선 조정 포함 ○ 시내버스 체계 개선 방안 등

※ 타 지자체 사례 * 대중교통 편의증진 관련 조례와 별도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세부 추진계획

- 2026. 7.~8. 위원회 구성 사전 준비 및 방침 결정
- 2026. 9. 법제심사,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 10.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6. 12. 의안 심의 및 공포
- 2027. 1. 위원회 구성

□ 기대효과(정량화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 특성상 정성화 기술 병행)

- 시민 의견을 연계한 정책의 실효성 및 시민 체감도 제고
- 시민주권형 교통복지 실현

20

원주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최소화 및 생활폐기물 처리 자립화한 원주에 특화된 순환경제 모델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2033년
- 사업비: 3,891억 원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운영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확대 등)

□ 추진경과

- 2013.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도입
- 2014. 폐기물종합처리단지(매립시설, 선별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 조성
- 2019.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 시행
- 2021. 재활용가능 폐기물 요일별·품목별 수거 시행
- 2023.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 시행
- 2025.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시행

□ 세부 추진계획

[단기]

-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 사업기간: 2026년
 - 사업비: 0.2억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고형연료제조시설 개선,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대안 마련
 -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 개최
 - 시민갈등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사업기간: 2026년~계속
 - 사 업 비: 324억원/년(전액 시비)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 사업기간: 2026년 ~ 계속
 - 대 상: 시청사 내 카페, 대표 축제장(만두축제, 라면축제, 댄싱카니발 등)
 - 사 업 비: 2억원/년(국 50%, 도 15%, 시 35%)
 - 사업내용: 다회용기 세척 등 재공급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운영관리
 - 사업기간: 2026년 ~ 계속
 - 대 상: 1,650대
 - 사 업 비: 4억원/년(전액 시비)
 -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유지보수
- 재활용품 보상 확대
 - 사업기간: 2026년 ~ 계속
 - 대상품목: 폐건전지, 우유팩
 - 사 업 비: 0.2억원/년(전액 시비)
 - 사업내용: 재활용품 교환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장기]

-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 사업기간: 2026~2033년
 - 사 업 비: 1,921억원(국 30%, 도 21%, 시 49%)
 - 사업내용: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선별시설 개선,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 기대효과

-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 마련
- 재활용가능폐기물 매각 대금 증가에 따른 시 세입 증대로 주민보상사업 확대

21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신규여부	계속 / 신규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 후	추진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여부	예산 / 비예산	사업주체	국가 / 광역 / 자체		

□ 사업목표

-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주권 실현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시민주도형 정책 발굴 추진
-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시정 기반 확립
- 국내외 지방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원주시를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모델도시로 육성

□ 사업개요

- 시민 속의 기반 정책 발굴 : 지역성·일상성·당사자성을 반영한 시민 속의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핵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1건 이상 발굴
- 시민 주도형 리빙랩 추진 : 시민이 지역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 주체로 참여하여 정책을 기획·실험·평가하고, 검증된 결과를 시정에 반영
- 법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내실화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연계하고, 지표에 근거한 이행점검·평가·환류체계 구축
- 국내외 모델도시 도약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교류와 우수사례 확산 추진
- 자발적 지역검토보고서(VLR) 작성·제출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UN 고위급정치포럼과 연계된 국제 플랫폼에 VLR 제출 추진
- 시민주권 기반 속의-정책 발굴-리빙랩 실증-시정 반영-성과평가-국내외 확산으로 이어지는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발전팀」을 설치하고, 부서별 정책을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

□ 추진경과

- 2001년: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현의회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참여,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등 지역 실천사업 추진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2023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와 시민참여형 정책 발굴 필요성 지속 제기

□ 연차별 추진계획

- 2026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정계획 이행현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표에 따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국내외 정책교류 기반 마련
 - 시민 숙의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굴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27년
 - 제1호 시민 숙의형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발굴
 - 제1호 시민 제안 정책과제 리빙랩 시범사업 추진
 - 평가결과를 반영한 관련 부서 사업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자발적 지역검토보고서(VLR) 작성 추진단 구성 및 기초자료 구축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도시 네트워크와의 교류·협력 확대
- 2028년 이후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모델의 국내외 공유 및 후속 실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시민이 정책 의제 발굴부터 실험·평가까지 참여하는 숙의형 시정 운영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수용성·실효성 제고
-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정책과제로 전환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
- 국내외 도시 네트워크 참여와 VLR 제출을 통해 원주시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의 대외적 위상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기후위기, 인구감소, 불평등,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위기에 대한 원주시의 중장기 대응역량 강화

제2절 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추계액

민선 9기 원주시정의 5대 시정목표 이행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 소요예산을 시정목표별로 집계하였다.

아래 예산액은 현재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산정한 추계액으로, 향후 사업계획의 구체화,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 투자심사 결과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총괄표

(단위: 억 원)

시정목표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74,090	57,558	1,440	15,092	
반값원주	4,776	-	2	4,774	
첨단원주	60,903	55,060	-	5,843	
활력원주	1,328	315	276	737	
매력원주	3,278	250	794	2,234	
안심원주	3,805	1,933	368	1,504	

2. 연도별·자원별 예산 추계

1) 반값원주

(단위: 억 원)

자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4,776	-	2	4,774	
2026년	35	-	-	35	
2027년	295	-	2	293	
2028년	871	-	-	871	
2029년	654	-	-	654	
2030년	929	-	-	929	
2031년 이후	1,992	-	-	1,992	

2) 첨단원주

(단위: 억 원)

자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60,903	55,060	-	5,843	
2026년	5,810	5,693	-	117	
2027년	13,512	13,392	-	120	
2028년	7,123	6,462	-	661	
2029년	7,080	6,462	-	618	
2030년	7,581	6,462	-	1,119	
2031년 이후	19,797	16,589	-	3,208	

3) 활력원주

(단위: 억 원)

재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1,328	315	276	737	
2026년	17	5	3	9	
2027년	220	30	10	180	
2028년	155	10	1	144	
2029년	214	30	10	174	
2030년	286	40	122	124	
2031년 이후	436	200	130	106	

4) 매력원주

(단위: 억 원)

재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3,278	250	794	2,234	
2026년	247	20	15	212	
2027년	548	54	24	470	
2028년	514	54	55	405	
2029년	563	74	107	382	
2030년	852	27	393	432	
2031년 이후	554	21	200	333	

5) 안심원주

(단위: 억 원)

재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합계	3,805	1,933	368	1,504	
2026년	1,063	252	235	576	
2027년	652	301	26	325	
2028년	431	280	26	125	
2029년	437	284	27	126	
2030년	670	502	27	141	
2031년 이후	552	314	27	211	



제 5 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원주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의 결정

제2절/ 시민의 정책 제안

제3절/ 자문위원 정책 제안

제1절 시정구호와 시정목표의 결정

1. 추진 배경

민선 9기 원주시정은 구자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시민주권시대’의 철학을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새 시정을 대표할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역시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민주권의 가치와 T5 공약체계를 시정 운영의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추진하였다.

시정슬로건은 향후 4년간 원주시정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 문구이므로 시민의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반면 시정목표는 구자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체계인 T5 비전을 행정목표로 전환하는 작업이므로, 준비위 내부 논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다.

2. 선정 과정

1) 후보작 선정

준비위는 민선 9기 시정철학인 시민주권, 시민참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원주, 함께 만드는 시정이라는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 6개의 시정슬로건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번호	후보작	핵심 의미
1	시민주권시대, 품격있는 원주	시민주권과 도시 품격 강조
2	시민주권시대, 살고싶은 원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도시 지향
3	시민주권시대, 함께 만드는 원주	시민참여와 협치 강조
4	시민의 마음을 열어, 함께 만드는 원주	시민 마음과 소통, 공동창조 강조
5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시민의 의사와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 강조
6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원주	시민주권과 시민행복을 직접 표현

2) 준비위 내부 투표

준비위는 6개 후보작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투표를 실시하였다. 검토 기준은 시민주권시대의 상징성, 시민 공감도, 행정구호로서의 적합성, 향후 시정목표와의 연계 가능성이었다.

내부 투표 결과, 시민투표에 부칠 후보작으로 다음의 4개 안을 선정하였다.

구분	시민투표 대상 선정작
1	시민주권시대, 살고싶은 원주
2	시민주권시대, 함께 만드는 원주
3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4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원주

3) 시민투표 실시

준비위는 선정된 4개 후보작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시된 후보작 외에도 시민 스스로 더 적합한 시정슬로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별도로 포함하였다.

이는 민선 9기 준비위가 추진한 첫 번째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절차로서, 새 시정의 출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시민주권시대의 취지를 실천한 사례이다.

투표 방식	주요 내용
투표 대상	준비위 내부 투표로 선정된 4개 시정슬로건 후보작
투표 기간	2026.6.15.(월)~6.19.(금) 5일간
투표 창구	원주시 홈페이지
참여 대상	원주시민
기타 항목	시민이 직접 새로운 슬로건을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 포함
결정 방식	시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정슬로건 결정

3. 투표결과

순위	문항	득표수(건)	득표율(%)	비고
1위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	180	37.1	
2위	시민주권시대, 함께 만드는 원주	107	22.1	
3위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원주	99	20.4	
4위	시민주권시대, 살고싶은 원주	60	12.4	
5위	기타 의견	39	8.0	
계		485		

투표 결과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가 전체 485표 중 180표 37.1 퍼센트를 득표하여 1위로 선정되었다. 시민주권시대를 보다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한 시민의 뜻을 모아와 역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시민주권시대의 과정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슬로건이 시민들에게 가장 어필한 것으로 해석되며 역시 시민들이 구자열 당선자의 시민주권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는 결과였다.

4. 시정목표 선정

1) 기본 방향

시정목표는 시정슬로건과 함께 민선 9기 원주시정의 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는 문구이다. 준비위는 시정목표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T5 공약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시정목표는 “원주의 미래를 위한 구자열의 비전”인 T5의 다섯 가지 키워드, 즉 반값 원주, 첨단 원주, 활력 원주, 매력 원주, 안심 원주를 활용하여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시정목표 후보안

준비위는 T5의 다섯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버전의 시정목표 후보안을 마련하고 내부 투표를 진행하였다.

구분	반값 원주	첨단 원주	활력 원주	매력 원주	안심 원주
1안 기본안	생활이 가벼운 반값 원주	미래로 이끄는 첨단 원주	사람이 모이는 활력 원주	일상이 빛나는 매력 원주	모두를 지키는 안심 원주
2안 공식형	시민 부담을 낮추는 반값 원주	미래 산업을 여는 첨단 원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활력 원주	문화 관광이 빛나는 매력 원주	돌봄 안전이 든든한 안심 원주
3안 시민 체감형	생활비 걱정을 덜어 반값 원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원주	청년과 상권이 살아나는 활력 원주	머물고 다시 찾는 매력 원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 원주
4안 기존안 설명형	삶의 여유를 더하는 반값 원주	내일의 기회를 여는 첨단 원주	사람과 일이 모이는 활력 원주	보고 머무는 즐거운 매력 원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안심 원주

3) 선정 결과

준비위 내부 논의와 투표 결과, 시정목표는 1안 기본안으로 결정하였다. 1안은 문구가 간결하고, 다섯 개 목표 간 리듬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며, T5의 핵심 키워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 시정목표 |

생활이 가벼운 반값 원주
미래로 이끄는 첨단 원주
사람이 모이는 활력 원주
일상이 빛나는 매력 원주
모두를 지키는 안심 원주

5. 선정 과정의 의의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선정 과정은 민선 9기 원주시정의 출발 방식과 운영 원리를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이다.

첫째, 시정슬로건 선정 과정은 시민주권시대의 철학을 절차적으로 실천한 첫 사례이다. 준비위가 후보작을 마련하고 내부 투표를 통해 시민투표 대상작을 선정한 뒤, 이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는 방식은 새 시정이 시민과 함께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시정목표 선정 과정은 선거공약을 행정목표로 전환한 사례이다. T5 공약의 다섯 가지 비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를 향후 4년간 원주시정이 지향할 정책목표로 정리함으로써 공약과 행정 사이의 연결성을 높였다.

셋째, 슬로건과 시정목표를 분리하여 설정함으로써 상징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하였다. 시정슬로건은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목표는 T5 공약체계에 기반하여 행정 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6. 향후 활용 방향

최종 선정된 시정슬로건은 민선 9기 원주시정의 공식 구호로 활용하고, 시정목표는 각 부서의 업무 계획, 공약이행계획, 예산편성, 성과관리 체계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T5 기반 시정목표는 부서

별 업무보고와 공약 매칭, 100일 과제 선정, 중장기 로드맵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 분야	활용 방향
시정 홍보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시정소식지, 주요 행사 등에 시정슬로건 반영
공약관리	T5 시정목표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상황 정리
부서 업무계획	각 부서 사업을 5대 시정목표와 연계
예산편성	시정목표별 중점사업과 재정 우선순위 설정
성과관리	시민체감도와 공약이행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시민소통	시민투표 과정을 시민주권시대의 첫 실천 사례로 홍보

7. 종합 평가

민선 9기 원주시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선정은 단순한 문구 결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주권시대의 철학과 T5 공약체계를 시정 운영의 언어로 정리한 과정이다. 시정슬로건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시정목표는 내부 논의를 통해 T5 비전을 행정목표로 전환함으로써 상징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하였다. 이 과정은 민선 9기 구자열 시장이 시민과 함께 출발하고, 공약을 실제 행정체계로 전환하며, 향후 4년간 일관된 방향 속에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제도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시민의 정책 제안

1. 추진 배경

민선 9기 원주시정은 구자열 당선인이 제시한 ‘시민주권시대’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이에 시정 수립 과정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고자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여론 청취를 넘어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세우고 새 시정의 정책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시민 뜻 최우선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2. 분야별 주요 제안 및 검토 사항

시민 제안은 교통 인프라, 주거 환경, 복지, 균형 발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접수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검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 분석 총괄표

• 제안내용별

※ 제안 218건에 대해 333건 부서 답변 완료

분류	주요 내용	건수
도로·주차 환경 개선	도로 개설 및 확장	18
	구도심·재개발지역 노후도로 정비	8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14
	교통신호·횡단보도 개선	6
복지·돌봄·보육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복지(노인·장애인)	20
	아동보육·요양 복지 연계	17
	통합돌봄	6
혁신·기업도시 지역 균형 발전	혁신·기업도시 생활 인프라 확충	17
	주택·재개발·도시계획 개선	11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8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	6
대중교통·터미널·교통약자 이동 불편	시내버스 노선 조정	20
	원주종합버스터미널 개선·이전	10
	특별교통수단 관련	7
	저상버스, 정류장 환승 편의 개선	5
약취·쓰레기·소음 등 생활 환경 문제	소초면 양돈단지 및 기업도시 축산시설 관련	17
	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9
	약취 관련	7
	소음·대기오염·하천 관련	6
일자리·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지원	10
	기업 유치 관련	8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7
	허가 민원절차·제도 간소화	8
	공원·놀이터 등 휴식공간 확충	9
문화·관광·체육 여가 인프라 확대	체육시설·생활체육 확충	8
	지역콘텐츠 확대	7
	관광·축제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6
	구도심 유휴공간 창작플랫폼 활용	3
학교·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8
	통학·시내버스 개선	7
	꿈이룸 예체능 바우처 지속 확대	5
	청소년 활동·성장바우처 지원	4
원도심·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중앙시장·전통시장 상권 개선	6
	빈상가·유휴공간 활용 관련	4
	중앙시장 나동 화재건물 복구	3
	원도심 주차·도로·보행환경 개선	3
기후·안전 등 생활 불편 개선	폭염·한파 등 기후 취약계층 보호	5
	친환경·에너지 정책 강화	4
	재난·생활안전·시설물 안전관리 등	6
합계		333

• 제안성격별

구 분	분 류	건수	비율(%)
제안성격	정책제안	150	44.2
	단순환기	68	20.1
	진정민원	48	14.2
	불만표시	43	12.7
	기타	30	8.8
	합계(중복포함)	339	100

• 추진계획별

구 분	분 류	건수	비율(%)
추진 계획	기추진중	157	46.3
	즉시추진	125	36.9
	향후추진	35	10.3
	추진불가	22	6.5
	합계(중복포함)	339	100

• 공약 관련 여부

구 분	분 류	건수	비율(%)
공약 관련 여부	O	273	80.5
	X	66	19.5
	합계(중복포함)	339	100

2) 분야별 검토

제안명	30년 원주시민이 제안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공공기관 유치 건의
검토부서	민원담당관
제안요지	-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국가기관 및 공공행정 서비스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설치 추진)
제안 검토 의견	- 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 답변(2026. 4. 8.) 결과, 원주시·세종시·상주시·사천시가 출장소 및 민원센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특히 원주시의 경우 직제 정원 증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추천출입국 관할 시군의 전체 등록 외국인 수가 지정된 최소 기준치를 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미치지 못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 향후 공단 및 기업 유치 등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안명	원주 기업도시 관련입니다
검토부서	자치행정과
제안요지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및 접근성 문제로 공공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 도시 내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해 달라는 제안.
제안 검토 의견	- 기업도시 지정면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으로 판단됨. - 시에서는 기업도시 주민들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최근 기업도시 현장민원실 기능을 확대(의료기기산업 진흥원 1층)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다만, 행정복지센터 신설은 행정구역 관리, 조직 및 정원 확보, 청사 확보, 예산 투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기업도시 인구 증가 추이와 행정수요, 현장민원실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시 제안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음.

제안명	원주시 주요 정책과 행사를 짧은 영상으로도 쉽게 알려주세요
검토부서	시정홍보실
제안요지	- 원주시의 주요 정책이나 행사 안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숏 폼 영상이나 짧은 안내 영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람.
제안 검토 의견	-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시정홍보실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과 행정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원주시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X 등)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및 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정책 및 행사 안내는 카드뉴스, 이미지 콘텐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와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 취재를 통한 영상 콘텐츠도 함께 제작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도와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숏폼 영상 등 영상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고,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안명	구도심을 살려야합니다
검토부서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제안요지	- 무실동 중심의 신도심 편중 개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요청
제안 검토 의견	○ 경제진흥과 - 본 의견은 무실동 등 신도심 위주의 개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중앙시장 및 원도심 일원의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요청하는 제안으로 이해됨 - 원도심 활성화를 시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임. 먼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장활성화 구역 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아울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운영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 전체로 낙수효과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과 야시장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이 신도심과 상생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제안 검토 의견	○ 도시재생과 - 우리 시는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 4개 지역에서 총사업비 약 86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학성동은 2026년 완료 후 사후관리 중이며 중앙동·봉산동·우산동은 2026년 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 이를 통해 학성문화공원, 문화공유플랫폼, 어울림센터, 꿈드림센터 등 주민 거점시설 조성 및 집수리 지원, 보행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봉산동과 명륜1동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여 골목길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 주택 집수리 등 낙후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2026. 6. 태장2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특화)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도로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개운동도 지방시대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이 예정되어 있음 -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차별없는 지역 균형발전에 더욱 힘을 예정임
----------------	---

제안명	기업도시 공실 활용, 기업 유치 및 서원주역 인근 활성화
검토부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제안요지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혜택을 늘려주고 대기업 유치 노력 요청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일자리 확대

제안 검토 의견	○ 투자유치과 - 본 제안은 기업도시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매년 전략산업 중심의 우량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기업 유치 활동과 국내·외 산업박람회를 통한 원주시 투자환경 홍보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지원사책을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음. ○ 기업지원일자리과 - 본 제안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 의견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보험·보증료 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창업·성장 및 투자 지원, 수출 및 마케팅·판로 지원,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청년·중장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시행 중임.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

제안명	원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부서	경제진흥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제안요지	- 중앙시장 화재 부분 수리 요청 - 비효율적 중복노선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선 -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원주역 인근으로 이전 - 보도블럭 설치 시 우수 경사로 개선

제안 검토 의견	○ 경제진흥과 - 본 의견은 중앙시장 나동 화재 건물의 장기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시장 이미지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이해됨. - 현재 시에서는 화재 건물의 조속한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나동화재 복구TF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화재구역에는 임시적으로 가림용 대형 플레이트를 활용한 시정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할 예정임. - 앞으로도 화재 건물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대중교통과 - (원주종합버스터미널 개선)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은 민간사업자의 재산권, 부지 확보, 도시계획, 교통 체계, 자원 조달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임. - 현재 터미널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추진을 준비중임. - 향후 터미널의 기능 개선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및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시내버스 노선)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선 조정 및 배차간격 축소, 생활권 간의 연결을 위해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노선을 개선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운수업체, 지자체, 교육청 등 대중교통 이해집단 간 협업체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정책과 평가 등을 논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시내버스 배차간격, 노선 조정, 통학 개선 등 현안들을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도로관리과 - 본 질의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주의 환기 의견으로 이해됨. 기존 보도 설치 구간의 경우 도로 및 주변 건축물의 현황, 출입구 높이, 배수 처리, 도로 횡단구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 부분 경사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 높이와 도로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보도 설치 시 불가피하게 종단 또는 횡단 경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음. - 보도 정비 및 신규 설치 시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행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경사 확보 및 장애 요소 개선을 반영하고 있음. - 향후 보도블록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시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차도 경계부 및 보행 공간의 경사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행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	---

제안명	제안드립니다
검토부서	문화예술과, 역사박물관, 자원순환과
제안요지	-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맞춰 미술관, 전시관 통합 관리 타워 가동 및 통합패스 신설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1회용품 줄이기 정책 강화
제안 검토 의견	○ 문화예술과 1. 미술관, 전시관 통합 관리 타워 가동 - 원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시 안내 전시, 교육, 행사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할것음 - 사립 미술관 등의 확대는 기관별 운영 주체와 관리 범위, 참여의사,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장을 추진 하겠음

제안
검토
의견

-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등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확대 또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음

2. 통합패스(관람권) 신설

- 향후 시립미술관 운영 시 뮤지엄 산을 비롯한 주요 문화시설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통합 관람권(패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 역사박물관

- 원주 강원감영, 반계리 은행나무 등 관내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팀에서는 매년 보수 정비사업, 활용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음

- 원주 강원감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시비),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도비보조 사업), 강원감영 풍류음악회(시비), 강원감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시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원주 국가유산 야행(국도비), 강원감영 전통화예프로그램(도비)을 추진하여 강원감영을 찾는 관람객과 시민 분께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로 물임형 역사 추리극 '원주 강원감영: 그날의 진실', '관찰사 성장학교-오덕관' 등 강원감영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발굴 및 기획에 힘써 향후 관광자원화하여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원주 사료총서, 학술총서, 역사 시리즈, 역사 그림책 등의 연구·발간사업을 통해 원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연구와 자료 제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원주의 역사·문화·인물을 통해 지역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자원순환과

- 시청사 내 카페에 다화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화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과 대표 축제(만두축제, 라면 축제, 댄싱카니발 등)에 친환경 축제 조성을 위한 축제장 다화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을 기 추진 중임

제안명	원주교도소 이전 자리에 공원과 시민 체육센터 건립
검토부서	지역개발과
제안요지	- 교도소 부지 내 체육시설 등 시민편익 조성 요청

제안
검토
의견

- 무실동 교도소 이전 부지는 지난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기획재정부, LH와 함께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교도소 부지 개발의 목표는 교도소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공원벨트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시민광장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임

- 또한, 교도소 부지는 무실동과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규모 공연장과 각종 활동룸 등 시민편익시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원주시의 명품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겠음.

제안명	인구 50만 자족도시 원주를 위한 방향성
검토부서	여성가족과
제안요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보육 인프라

제안
검토
의견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원주역세권 및 개발 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준공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설치를 계획 중임.

-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제안명	꿈이룸 바우처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건의
검토부서	교육청소년과
제안요지	- 원주시 아동·청소년 바우처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제안 검토 의견	- 기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 및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대비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개편한 '아이키움 성장바우처'를 현재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임. 향후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사업 운영에 꾸준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안명	원주시 무형유산 활용정책을 제안합니다
검토부서	역사박물관
제안요지	- 문화유산과 설치를 통한 무형유산 업무 체계적으로 보전·활용 필요 - 원주매지농악 중심의 시립 전통예술 연희단(비상임)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모
제안 검토 의견	- 현 부서에서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 및 다양한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무형유산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기준 선정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등을 통해 보유자·보유단체와 무형유산의 지속적 인 전승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현대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원주매지농악의 경우 매지농악전수관 위탁운영, 원주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 육성(교육 경비) 관련 시비 사업을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원주시 무형유산 진흥과 공연·교육·관광 등 다방면으로 무형 유산을 활용한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제안명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검토부서	문화예술과, 보육아동과
제안요지	-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요구
제안 검토 의견	○ 문화예술과 - 사 업 명: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 사업기간: 2024. 4. ~ 2028. 12. - 규 모: 연면적 2,209.22㎡, 지하 1층~지상 1층 -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실, 프로그램실, 대기실, 조정실, 사무실 등 - 위 치: 단구동 985-1번지 일원(단구동행정복지센터 옆) - 사 업 비: 141.7억 원(도비 20, 시비 121.7)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24. 4.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4. 7.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부지변경계획 수립 · 2024. 9. ~ 11.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 9. ~ 2025. 1. 건축기획 용역 · 2025. 4. ~ 6. 정기2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강원도) · 2025. 9. ~ 11.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 2025. 10. 2026년도 전환사업 선정

제안 검토 의견	·2025. 9.~12. 설계공모 ·2025. 12.~2027. 4. 기본 및 실시설계 ※ 계획설계 완료(2026. 5.), 현재 중간설계 진행 중 ·2027. 5.~2028. 12. 착공 및 준공 ○ 보육아동과 - 원주시 공공 놀이 시설 현황 ·원주시어린이복합체험관 : 놀비숲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3개소 ·물놀이장: 보물섬 물놀이장 외 6개소 ·도서관: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 ·경제 및 환경 체험시설: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 유료 키즈카페 현황 ·키즈카페: 22개소(실내놀이터) ·키즈풀: 6개소(실내 물놀이터) - 건립예정 시설 ·원주유아놀이체험장: 2027.3월 ·어린이예술회관: 2028.1월 ·꿈이룸커뮤니티센터: 2029.12월 ·목재문화체험관: 2028.11월 ·국산목재어린이놀이터: 2028.11월 - 아동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및 기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서 시설(놀비 숲, 장난감도서관)은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아동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안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지원해 주십시오
검토부서	장애인복지과
제안요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지원을 건의함.
제안 검토 의견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시는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도록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제안하신 참여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및 인건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 강화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으로 이해됨. - 다만, 전담인력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원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데에는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있음. - 원주시는 현장의 업무 여건과 중증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현행 10명당 1명에서 7명당 1명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안명	기후위기 시대, 기후복지와 통합돌봄 사업 제안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제안요지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구축 및 폭염, 한파 대응사업 - 기후건강돌봄서비스,주거환경개선,지역협력네트워크,기후위기교육 - 사업검토요청

제안 검토 의견	- 하계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대책(노숙인, 고독사 위험자 등)을 추진 중. 또한,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하여 시안부확인 강화, 자체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저소득층 난방지원(개 보수사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모금회 재원으로 별도의 여름철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겨울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

제안명	우리의 삶터, 인구 3만 원주기업도시 23개 현안 제안 간현 레일바이크 재운영으로 지정면 상경기 활성화
검토부서	관광과
제안요지	- 간현 레일바이크 재운영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제안 검토 의견	- 해당 부지는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 개발사업 대상지로, 민간제안 공모를 완료하고 제안사업을 선정하였음. - 레일바이크 사업은 선정된 민간제안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주관자 선정,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및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임. - 사업주관자 선정 이후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제안명	구도심, 태장동을 비롯한 북동부 원주지역의 남원주, 중원주, 서원주 수준의 균형발전
검토부서	도시재생과
제안요지	- 태장2동 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제안 검토 의견	- 본 사업은 캠프롱 시민공원 조성 및 연계하여 태장2동 지역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202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임 -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캠프롱 방문객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캠프롱과 태장2동의 지역성을 연계한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제안명	자원순환·탄소중립 도시환경 개선 제안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제안요지	-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일괄 설치
제안 검토 의견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태양광에너지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현재 원주시 에너지과에서 공영주차장과 청사부지에 대한 종합적 태양광에너지설비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 1,000㎡ 이하의 경우에도 부지 여건이 적합할 경우 적극 도입하고자 함.

제안명	원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시설 개선 요청
검토부서	대중교통과
제안요지	- 원주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청결 및 난방 개선 요청
제안 검토 의견	-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 유지관리의 주체는 민간사업자이나,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안 검토 의견	-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키오스크 설치, 출입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준비중임. - 향후에도 터미널 내 화장실 청결 유지, 터미널의 냉·난방 효율 기능 개선 등에 대해서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환경개선을 검토하겠음.
----------------	---

제안명	학생 통학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보행환경 개선 제안
검토부서	도로관리과
제안요지	- 무실동 일대 노후·불량 보도 정비 요청
제안 검토 의견	- 본 질의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주의 환기 의견으로 이해됨. 현재 보도 정비는 현장 여건 및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음.

제안명	원주형 기후행동 시민 플랫폼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부서	기후대응과
제안요지	- 기후행동 시민 플랫폼 구축(시민이 만든 행동 우수사례 등 원주시 정책에 반영)
제안 검토 의견	- 본 제안은 민간에서 이미 추진 중인 우수 기후행동 사례(온기동행, 감탄워크 등)를 시의 공식 정책으로 흡수 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플랫폼 모델을 도입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됨. - 우리 시는 시민 중심의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연내 '원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시민 참여형 상설 공론장인 '원주기후시민회의(가칭)'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 향후 '원주기후시민회의'가 출범하면, 제안해 주신 '원주형 기후행동 시민 플랫폼'등을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기후 정책 의제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시의 정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안명	원주형 공영전자전거 확대 운영을 제안합니다
검토부서	도시정보센터
제안요지	-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영전자전거의 운영 지역을 원주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요 공원 및 관광지, 대학가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대
제안 검토 의견	- 원주시 공영전자전거 'e바퀴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도 시 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재 흥업면을 중심으로 원주역까지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정보센터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영전자전거의 운영 지역을 원주 주요 거점과 연계하여 체계적 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시민 이동 편의 제고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는 의견으 로 판단됨. - 공영전자전거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장비 확충, 운영관리 방안, 예산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가 필요하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전자전거 운영 사업의 관리 책임 부서인 도 로관리과와의 협의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확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제3절 자문위원 정책 제안

제안자	최덕순
소관 분과	관광교통환경농업/농업
제안명	농업부문 종합 제안
핵심 제안 내용	반값 농자재 확대, 벼 무상 드론방제, 영농 승계인력 유지, 공공형 농촌인력 중개센터, 농업인단체 운영비 근거, 토토미 소비처 확보, 농산물 통합물류센터,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이전, 농촌 행정력 강화

제안자	지은희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
제안명	2027~2036 원주시 복지발전계획(안)
핵심 제안 내용	통합돌봄도시, 고독사 없는 원주, 100세 행복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도시, 가족친화 도시, 금융돌봄 복지도시, 그늘그림 확대, 천사운동 시즌2, 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행복도시

제안자	박승환
소관 분과	민생경제첨단산업
제안명	청년·소상공인 현장 제안
핵심 제안 내용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 운영, 중앙시장 나동 활용 청년공간, 성수동형 이 아닌 원주형 문화성장지구, 청년공간 야간 운영, 청년창업 유지 지원, 소상공인 돌봄·육아·건강·심리 지원, 적극행정 시스템

제안자	김진호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교육
제안명	교육분야 세부 검토 및 실행 방안
핵심 제안 내용	교육청-원주시 교육협력 거버넌스, 교육협력관 파견, 원주형 교육기금, 지자체-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안전한 통학로, 학생 전용100원 택시·통학 순환버스, 에듀패스, 원주교육·문화이음터, PM·이륜차 통학로 안전대책

제안자	이승현
제안명	가로수·녹지 정책 전환 및 로컬 청년 일자리
핵심 제안 내용	강전정 방지 기준, 아보리스트 기반 수목관리 시범구역, 공익단체·산림형 사회적경제·환경단체·대학의 거버넌스, 청년 아보리스트 양성, 해외 선진지 연수, 녹색 창업 인큐베이팅/안심원주(도시숲·기후위기 대응), 활력원주(청년일자리), 매력원주(녹색도시 브랜드), 시민주권(민관학 거버넌스)

제안자	이승현
제안명	가현동 선사유적 보존 및 역사공원 조성
핵심 제안 내용	옛 국군원주병원 부지의 청동기·철기시대 유적 보존, 선사역사공원 조성, 유적 보존구역 확대, 선사체험 공간, 역사문화 숲, 디지털 아카이브/매력원주(로컬P·역사문화 관광), 안심원주(도시숲·휴식), 활력원주(아동청소년 역사교육)

제안자	이승현
제안명	원주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핵심 제안 내용	공익활동 교육, 시민·단체·행정 협력 플랫폼, 공익활동 단체 발굴·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상담가능, 연7억 원 규모 운영/시민주권시대 핵심 실행체계, 기획행정협치, 활력원주(시민참여)

제안자	이승현
제안명	도시숲·트리맵 구축 및 바이오매스 기반 녹지관리
핵심 제안 내용	GIS 기반 온라인 트리맵, 수목DB, 생태계서비스 가치 정량화, 바이오매스 총량 중심 가로수 관리, 생활권 녹지 확대, 낙엽·부산물 자원화, 꿀벌정원·도시양봉·조류충돌 저감/안심원주(기후·도시숲), 첨단원주(데이터 기반 행정), 매력원주(생태도시), 활력원주(시민참여 교육)

제안자	박종현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체육
제안명	공공 체육시설 통합관리 및 안전 운영체계
핵심 제안 내용	체육시설 관리주체 분산 해소, 동부복합생활체육지원센터·수영장 관리 일원화, 체육시설사업소 기능 확대, 전산예약 시스템 통합, 안전관리·민원처리 기준 표준화, 장기적으로 국·본부 단위 단독 컨트롤타워

제안자	김은영
소관 분과	민생경제첨단산업
제안명	지역 건설업 경기 회복 및 기업 자금난 해소
핵심 제안 내용	소규모 공공공사 조기·균형 발주, 공사대금 신속 지급창구, 지역업체 하도급·자재·장비·인력 우선 참여, 공사비 현실화, 보증 중심 자금지원, 공사계약서 기반 운전자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안자	윤일호
제안명	자원봉사 활성화 및 발전 방안
핵심 제안 내용	우수 자원봉사자 지역상품권 지급, 공공형 일자리 가점, 우수 활동·단체 홍보 확대, 우수 봉사자 간병비 지원 확대/시민주권(참여와 공동체), 활력원주(시민참여), 안심원주(돌봄·복지안전망)

제안자	윤일호
제안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 계획
핵심 제안 내용	민관경 합동 실무간담회, 조례 제정, 피해방지위원회 설치, 피해자 상담·법률지원·금융프로그램 연계, 포상금 제도, 홍보·교육, 금융기관·경찰·공공기관 협력체계/안심원주(생활안전), 반값원주/복지(금융피해 예방), 시민주권(민관경 협치)

제안자	윤일호
제안명	소상공인119 긴급 알바 기동대
핵심 제안 내용	갑작스러운 질병·사고·가족간병 시 전문 긴급 알바 기동대 즉시 투입, 24시간 대응, 취약 소상공인 우선지원, 사업대행·운영지원, 연8억 원 규모 시범사업/ 반값원주(소상공인 생존지원), 활력원주(가족돌봄·일자리), 안심 원주(긴급복지 안전망)

제안자	이동욱
소관 분과	민생경제첨단산업/노동
제안명	원주시 노동인권센터 설립
핵심 제안 내용	권리 밖 노동자 안전망,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노동통계 생산, 무료 노동법률 상담, 체불임금 진정 지원, 육외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인권 교육, 연4~5억 원 규모, 현실적으로 센터 설립이 어려울 경우, 전담조직(과 또는 팀 단위)

제안자	안서영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문화예술
제안명	문화예술 정책 개선 제안
핵심 제안 내용	지원사업 평가결과 반영, 평가의견 공개, 우수·부실사업 차등지원, 시민참여 축제평가, 문화예술DB 리뉴얼, 심사위원 반복 제한, 생활예술협회 인정, 공연장 및 문화시설의 운영편의 위주의 관리 개선, 야외공연장의 소음기준 및 민원기준 명확화를 통한 활성화, 지역예술인 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형평성, 국제문화 교류 지원

제안자	윤영돈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문화예술
제안명	문화예술 균형발전 제안
핵심 제안 내용	읍면 지역 찾아가는 공연, 작은 공연장·문화공간 활성화, 전통춤·국악 브랜드화, 청소년·청년 예술인 육성, 전문예술단체 운영비·창작공간 지원, 문화관광 연계,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장애인·노인·다문화 프로젝트, 원주예총·민예총·문화원·생활예술단체 균형 지원

제안자	조은희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교육·복지
제안명	교육돌봄·안전·건강 프로그램
핵심 제안 내용	원주형 교육돌봄 네트워크, 학원·교습소·체육시설·지역아동센터 연계, 학생 유출 방지와 지역교육 경쟁력, 학교폭력·아동범죄 예방 호신술, 어르신 낙상예방·건강교실

제안자	조국인
제안명	시민주권형 뉴미디어 시정소통 개선
핵심 제안 내용	원주가 답입니다 브랜드, 시민 질문형 콘텐츠, 정책 설명형 콘텐츠, 후속 확인형 콘텐츠, 원주 시민질문단, 생활 권 기반 읍면동 정책미디어, 뉴미디어 전담체계와 운영기준/ 시민주권시대 핵심 실천, 기획행정합치, 첨단원주(디지털 행정), 활력원주(청년참여)

제안자	조국인
제안명	행복원주 인스타그램 매거진 확장
핵심 제안 내용	기존 행복원주의 종이소식지 유지와 인스타그램 매거진 병행, 캐러셀·영상·인터뷰·마을아카이빙, 시민참여형 편집구조, SNS 서포터즈·영상미디어센터 연계, 조회·저장·공유 데이터 활용/ 시민주권(시민참여 소통), 첨단 원주(디지털 전환), 매력원주(도시콘텐츠), 활력원주(청년층 접근성)

제안자	김원호
소관 분과	민생경제첨단산업
제안명	소상공인 분야 종합 제안
핵심 제안 내용	소상공인 밀집지역 아이돌봄센터, 소상공인 회관, 원스톱 상담센터, HACCP 공동 식품가공센터, 로컬 굿즈 메이커스페이스, 지역기업-소상공인B2B 매칭 플랫폼, 상생한마당 박람회, 웰니스 체험형 상권, 구도심 유흥 자산 재생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제안자	윤석영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
제안명	① 원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② 원주시 전국체전 유치 방안
핵심 제안 내용	생활체육 분야는 명륜권 시설 집중과 무실·기업도시의 시설 부족, 낮 시간 유희와 야간 피크의 미스매치를 문제로 보고, 민간체육시설 공유 바꾸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책임관리제, 야간·새벽 세션 확대, 지역 쿼터제, 찾아가는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순환서클을 제안하였다. 전국체전 분야는 무리한 단독 신축형 유치가 아니라 원주-횡성 공동 개최, 기존·신설 시설의 전략적 활용, 횡성 야구·레저 인프라 연계, 초·중·고 효율 체전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자	홍기철
소관 분과	복지돌봄교육문화
제안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포용도시 원주 실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제안
핵심 제안 내용	원주시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이동·학습·고용·체육·문화·안전·정책참여의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하자는 종합 제안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 체육복지 종합센터 건립 및 반디바(체육센터) 기능 확대, ②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강화, ③ 공공기관 우선고용·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④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⑤ 가족 돌봄휴식·상담·부모교육, ⑥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확대, ⑦ 무장애 관광코스와 관광지 접근성 개선, ⑧ 재난·응급 안전망, ⑨ 시장 직속 장애인정책협의회 정례화, ⑩ 4년 단위 장애인 권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이다. 특히3대 핵심과제로 체육복지 종합센터, 일자리·자립지원, 시장 직속 협의체 설치를 제시하였다.

부록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활동

I.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소개

II. 활동 내용

III. 활동 기록 및 홍보

I.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소개

1. 출범 근거

민선 9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및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6월 9일 공식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는 원주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민선 9기의 시정 기조와 비전을 성공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 운영 목적 및 주요 기능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행정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정 공백을 방지하는 동시에,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시민주권시대’ 기틀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시정 운영 현황 및 주요 현안 파악

- 행정 현황의 객관적 진단: 각 부서의 공식 업무보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원주시의 행정 조직 구조, 기능 배분, 재정 상태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

- 당면 현안 및 리스크 선제 관리: 진행 중인 주요 대형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기 초기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재난 안전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안정적인 시정 인수 도모

• 민선 9기 시정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

-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 정립: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가치를 집약하여 민선 9기 원주시가 지향해야 할 시정 목표, 비전, 슬로건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
- 중장기 정책 청사진 제시: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문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 로드맵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

• 공약 실행계획 검토 및 우선 추진 과제 발굴

- 공약의 실효성 및 이행 가능성 검토: 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공약사항을 대상으로 법적 타당성, 재원 조달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실현화·체계화함
- 핵심 우선 추진과제 선정: 민선 9기 출범 초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정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함

•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시정 운영 기반 마련

- 소통과 참여 중심의 시정 설계: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의 취지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민주적 시정 운영 기틀 구축: 수렴한 시민 제안과 현장의 요구를 정책 과제에 적극적으로 녹여냄으로써,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 체계와 열린 시정의 기반을 구축함

•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 분과별 전문 정책 도출: 기획·행정·협치, 민생경제·첨단산업, 복지돌봄·교육문화, 관광·교통·환경·농업 각 4개 분과의 분과위원회별 심층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 과제를 발굴함
- 미래 지향적 정책 제안: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 환경 및 정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혁신 과제를 정립하여 제안함

3. 조직 구성

가. 준비위원 명단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구분	성명	분과	소속 및 직책
1	김기석	위원장(기획·행정·협치)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2	황도근	부위원장(민생경제·첨단산업)	전) 상지대학교 교수
3	김재수	기획·행정·협치	전) 원주시청 공무원
4	김장기	기획·행정·협치	전) 한국능력개발교육연구원 원장
5	안현희	기획·행정·협치	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대표
6	고상백	민생경제·첨단산업	연세대학교 교수
7	송미희	민생경제·첨단산업	전국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
8	김규일	민생경제·첨단산업	연세글로벌헬스센터 선임연구원
9	유만희	복지돌봄·교육문화	상지대학교 교수
10	김시동	복지돌봄·교육문화	원주시민기록단 대표
11	김선애	복지돌봄·교육문화	문화기획(다정해도) 대표
12	김윤희	복지돌봄·교육문화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
13	유기준	관광·교통·환경·농업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14	제현수	관광·교통·환경·농업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15	서연남	관광·교통·환경·농업	도서출판 이음대표
총괄간사	정유선	총괄간사	전) 강원도의원
간사	김남균	간사	전) 국회의원 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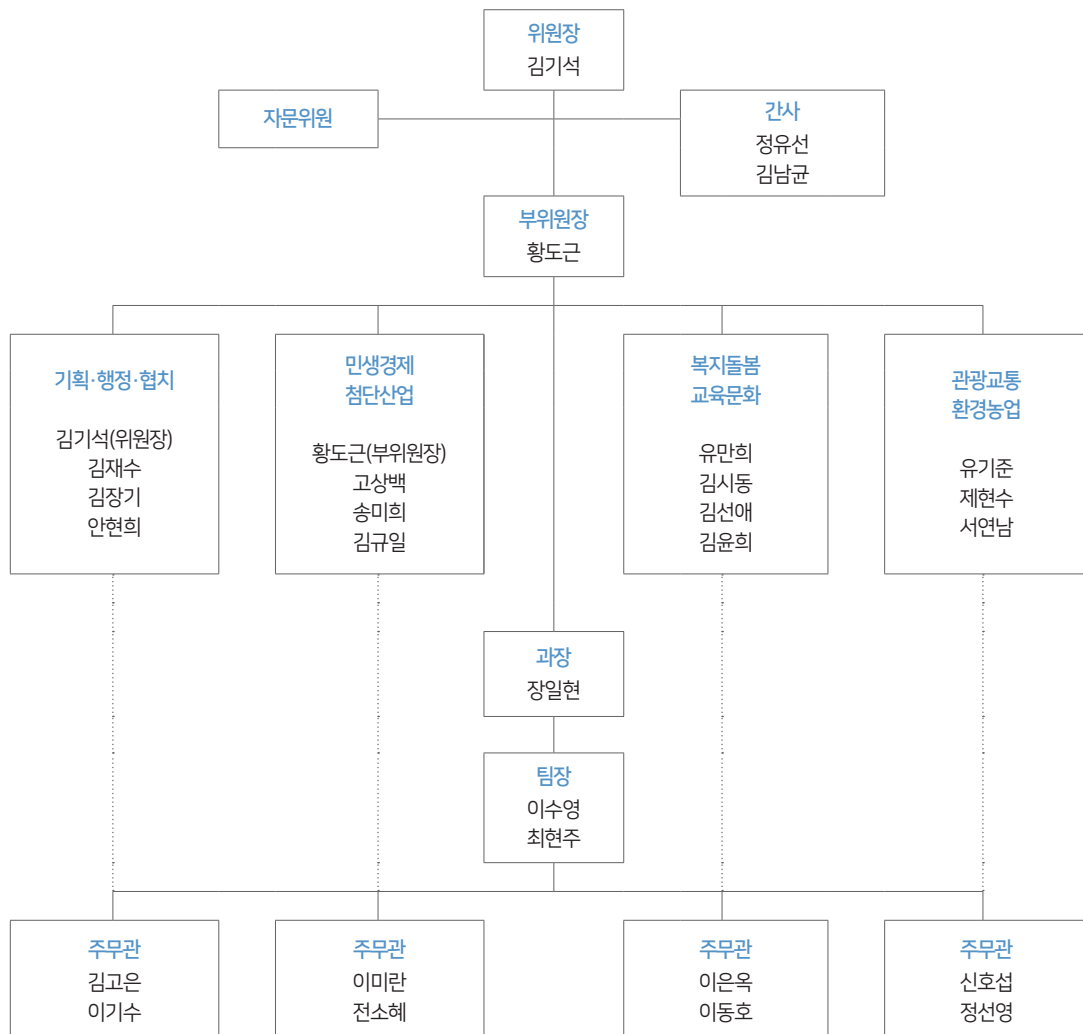
나. 자문위원 명단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

구분	성명	분야	소속 및 직책
1	최덕순	농업	전) 강원도청 공무원
2	지은희	여성·복지	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3	박승환	청년	원주청년소상공인협회 회장
4	홍기철	장애인	원주시장애인연합회 회장
5	김진호	교육	원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6	이승현	시민사회	무위당학교 숲학교장
7	박종현	체육	전) 원주시 교육협력관
8	김은영	기업	전) 원주여성기업인협회 회장
9	김성호	AI(산학협력)	상지대학교 공과대학장
10	윤일호	봉사	원주시나눔봉사단 단장
11	이동욱	노동	노사민정 사무국장
12	안서영	문화	원주시민오케스트라 예술감독
13	윤영돈	예술	원주시사진작가협회 회장

구분	성명	분야	소속 및 직책
14	서현곤	미래산업	한라대학교 교수
15	조은희	아이돌봄	원주시학원연합회 회장
16	조국인	뉴미디어	원주아는척 운영자
17	김원호	소상공인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8	황동훈	경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실장
19	박성빈	경제	연세대학교 교수
20	정금자	농업	원주식생활교육네트워크 대표
21	박준영	농업	원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22	박수영	농업	원주생명농업 상무
23	구경모	농업	원주생협 상무
24	오세영	농업	원주한살림 사무국장
25	정대규	기획	한국ESG파트너스 대표컨설턴트
26	윤석영	행정	전) 육군 중령

다. 조직도



II. 활동 내용

1. 활동 사항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민선9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 출범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원주시 전체 업무보고, 주요 현안 사업지 방문, 시정 구호 및 목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선 9기 시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주요 활동 내용	장소
2026. 6. 4.	민선9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칭 확정 및 인선 발표	당선인 사무실
2026. 6. 9.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 위촉식	준비위 사무실
2026. 6. 15.	원주시 전체 업무보고	준비위 사무실
2026. 6. 17.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간담	준비위 사무실
2026. 6. 22.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간담	준비위 사무실
2026. 6. 23.	주요 현안 사업지 현장 시찰	서원주역 일원, 원주의료기산업진흥원 등 7개소
2026. 6. 24.	민선9기 시정 구호 확정	준비위 사무실
2026. 6. 30.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회 및 분과보고서 전달	원주시청 다목적홀
2026. 7. 1.~ 2026. 7. 20.	이행과제 최종 검토 및 백서 발간 준비	준비위 사무실

가. 회의 및 업무보고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원주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체회의, 분과회의, 시정 업무보고 및 부서별 미팅 등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자	주요 내용	장소
2026. 6. 9.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9.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제1차 전체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0.	기획행정협치분과 제2차 분과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2차 분과회의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제2차 분과회의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2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1.	준비위원회 제1차 운영회의(분과장 회의) 기획행정협치분과 제3차 분과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3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2.	기획행정협치분과 제4차 분과회의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3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5.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원주시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준비위 회의실
2026. 6. 16.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4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7.	준비위원회 제2차 운영회의(분과장 회의) 기획행정협치분과 제5차 분과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5차 분과회의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제3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8.	기획행정협치분과 제6차 분과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6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19.	기획행정협치분과 제7차 분과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7차 분과회의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4~6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21.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제4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22.	준비위원회 제3차 운영회의(분과장 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8차 분과회의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부서 미팅(문화예술과, 보육아동과)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7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23.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8~9차 분과회의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부서 미팅 - 경로복지과, 보건행정과, 문화예술과, 장애인복지과	준비위 회의실
2026. 6. 24.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현장 방문	환경사업소
2026. 6. 24.	준비위원회 제4차 운영회의(분과장 회의) 민생경제첨단산업분과 제9차 분과회의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부서 미팅 - 교육청소년과, 재산관리과, 시립중앙도서관	준비위 회의실
2026. 6. 25.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제2차 전체회의	준비위 회의실
2026. 6. 26.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제12~15차 분과회의	준비위 회의실

일자	주요 내용	장소
2026. 7. 3.	백서편찬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원주시청 7층 회의실
2026. 7. 3.	복지돌봄교육문화분과 제5차 분과회의	백서편찬소위원회 회의실
2026. 7. 6.	기획행정협치분과 부서 미팅(시정홍보실 미팅) 관광교통환경농업분과 부서 미팅 - 자원순환과, 대중교통과, 에너지과	백서편찬소위원회 회의실
2026. 7. 9.	백서편찬소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원주시청 7층 회의실
2026. 7. 16.	백서편찬소위원회 분과장 회의	백서편찬소위원회 회의실

나. 현장방문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총 7곳의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서원주역 중심의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현장의 제언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거점 역할 재정립, 옛 원주역 부지 활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중앙시장 화재 현장 복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과 여론을 청취하였다.

2. 예산 집행 내역

구분	세부내역	집행금액	비고
합계		80,037천 원	
사무기기 등 임차	책상, 서랍장, PC 등	14,735천 원	
사무용품 등 구입	현수막, 배너, 현판 등	4,252천 원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41,050천 원	
자료제작	활동보고서	20,000천 원	

III. 활동기록 및 홍보

1. 언론으로 본 준비위원회 활동(언론보도 내역)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9.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출범 시정 운영 방향·비전 제시 구체화	강원도민일보

민선 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출범

▲ 권혜민 | © 승인 2026.06.10 | □ 12면

시정 운영 방향·비전 제시 구체화



▲ 민선 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준비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이 9일 명륜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권혜민 기자

민선 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9일 출범했다. 준비위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준비위원 위촉식 수여 및 현판식이 이날 명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구자열 시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김기석 위원장(강원대 명예교수), 황도근 부위원장(전 상지대 교수)을 비롯한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기획·행정·혁신', '민생경제·첨단산업', '복지돌봄·교육문화', '관광·도시·교통·환경'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한 준비위는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 구체화, 주요 공약 실행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12.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시민의견수렴 게시판 개설	강원일보

지역

원주시 민선9기 '시민주권준비위', 시민의견수렴 게시판 개설

하남윤 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6-06-14 10:32:46 수정: 2026-06-13 16:50:01 지면: 2026-06-15 (11면)

가자의 다른기사 보기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통해 정책 제안 접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시정·예산 반영 추진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

【원주】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 본격적인 시민 참여 행정에 나선다.

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 게시판을 개설해 정책 제안과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시판은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시정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선9기 시정에 바라는 정책 제안은 물론 일상 속 불편사항 개선 방안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기획·행정·협치 △민생경제·첨단산업 △복지돌봄·교육문화 △관광·교통·환경·농업 등 4개 분야에서 검토한 뒤 정책화 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민선9기 시정방침 수립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도 실시해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시민 의견을 담은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공약의 추진 방식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15.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 첫 업무보고 민선9기 방향 설정 착수	강원일보

지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 첫 업무보고… 민선9기 방향 설정 착수

허남윤 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6-06-15 16:00:27 수정: 2026-06-15 16:00:19 지면: 2026-06-16 (11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공항 국제선 취항 등 각국 현안 점검
민선8기 사업 연속성·공약 연계 논의…시정 우선순위 검토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15일 명륜1동주민자치센터 2층 준비위 사무공간에서 구자열 시장 당선인과 김기석 준비위원장, 준비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원주=허남윤기자

【원주】 민선9기 원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5일 명륜1동주민자치센터 2층 준비위 사무공간에서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구자열 시장 당선인과 김기석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장, 준비위원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는 이날 16개 국·실·사업소로부터 주요 현안사업과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준비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예타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의료·웰니스 AX대전환, 엔비디아와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허브 조성', 서원주역 개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 추진 등이 핵심적인 역점 추진사업을 파악했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17.	우상호 강원지사·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원주 현안 '맞손' 종축장 부지 활용·의료AI 육성 합의	연합뉴스



우상호 강원지사·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원주 현안 '맞손'

송고 2026-06-17 16:58

종축장 부지 활용·의료AI 육성 합의...도·시 원팀 협력 강화



우상호(왼쪽)·구자열 당선인 전격 회동...원주 핵심 현안 '도정 반영' 물꼬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원주 핵심 현안의 도정 반영과 공동 공약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22.	구자열·강삼영 당선인, 원주 '교육 현안' 논의	국제뉴스

 GUKJENEWS

HOME > 전국 > 강원

구자열·강삼영 당선인, 원주 '교육 현안' 논의

✎ 이현복 기자 | ⓒ 승인 2026.06.22 18:55

**원주 교육 현안과 비전 공유하며 정책 협력 방안 논의
혁신도시 남고 설립 등 과밀학급 문제 해결 집중 논의
교육 평등과 기회 균등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약속**

(원주=국제뉴스) 이현복 기자 =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이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22일 오후 4시 명륜1동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원주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22일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좌측에서 두번째)이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만나 원주 지역 교육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인수위 언론팀.

위원회는 이번 회동이 원주 지역 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23.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주요 현안 사업장 점검 “현장에서 답 찾는다”	서울경제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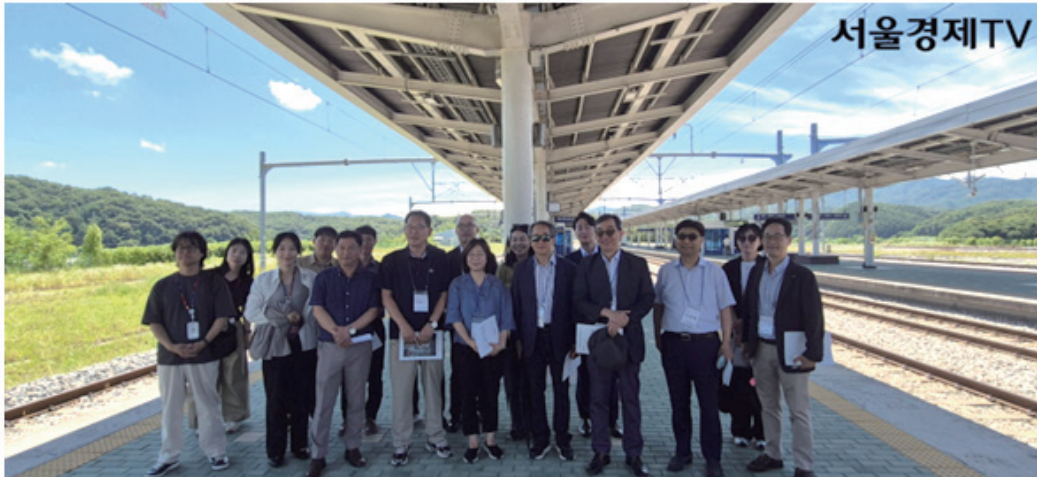
서울경제TV

(주) 서울경제티브이 > 뉴스전국강원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주요 현안 사업장 점검...“현장서 답 찾는다”

✉ / 기사승인 : 2026-06-23 15:01:03

- 서원주 의료시 연구 생태계·원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집중 점검
- 서원주역·옛 원주역·문화거점 방문...미래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 구상 논의



관련 사진.[제공=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강원순 기자

k10@sedaily.com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기석)가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원주역 일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주문화재단 ▲원주시문화공유플랫폼 ▲옛 원주역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도심 일원 등 7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구자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서원주 의료시 연구 생태계 조성’과 ‘도심문화거점 재생 프로젝트’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원들은 먼저 서원주역 일원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찾아 의료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서원주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주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고 의료시 연구 생태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24.	원주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시민참여 기반 시정 구호 확정 시 홈페이지 통해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전국매일신문

매일신문

HOME > 지방정치

원주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시민참여 기반 시정 구호 확정

윤 전봉우 기자 | © 승인 2026.06.24 18:23

민선9기 원주, 5대 목표 함께 제시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프로필 사진 제공)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원주시의 향후 시정 방향을 대표할 구호를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호는 정책 수립의 출발점을 시민 참여에 두고 행정과 주민이 공동으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민선9기 기초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의 뜻을 모아'는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만드는 원주'는 협력 기반의 시정 운영 방향을 각각 담았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시정 운영을 뒷받침할 5대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원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원주', 인구 유입과 활력 제고를 위한 '활력 원주', 도시 매력 강화를 위한 '매력 원주', 안전 강화 중심의 '안심 원주' 등이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25.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 민선9기 시정 밑그림 점검	강원일보

지역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 민선9기 시정 밑그림 점검

허남윤 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6-06-25 16:48:51 수정: 2026-06-25 16:48:51 지면: 2026-06-26 (11면)

전체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새 시정 출범 준비 막바지 점검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는 25일 오후 명륜1동 준비위 회의실에서 전체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시정 출범에 따른 막바지 점검을 했다.

【원주】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는 25일 명륜1동 준비위 회의실에서 전체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 분과별로 접수된 정책 제안과 자문 의견을 공유하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민선9기 원주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와 시민 중심 정책 방향,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준비위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분과별 회의,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답사 등을 통해 공약 과제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민선8기 연계사업 발굴 등 민선9기 시정 운영의 기초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제안된 의견들 역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과제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도 일자	기사제목	보도 매체
2026. 6. 30.	원주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활동 마무리, 민선9기 밀그림 제시 - 공약 실행체계·조직개편·시민참여 로드맵 발표	연합뉴스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활동 마무리...민선 9기 밀그림 제시

송고 2026-06-30 13:53

공약 실행체계·조직개편·시민참여 로드맵 발표...7월 시정 출범 연계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활동 마무리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공약 실행체계를 공개했다.

2. 사진으로 보는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2026. 6. 9. 준비위원회 출범식



2026. 6. 9. 준비위원회 위촉식



2026. 6. 15. 준비위원회 부서업무보고



2026. 6. 9. 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6. 15.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26. 6. 25.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2026. 6. 18. 준비위원회 분과회의(기획행정협력 분과)



2026. 6. 11. 준비위원회 분과회의(민생경제첨단산업 분과)



2026. 6. 18. 준비위원회 분과회의(민생경제첨단산업 분과)



2026. 6. 23. 준비위원회 분과회의(관광교통환경농업 분과)



2026. 6. 26. 준비위원회 분과회의(관광교통환경농업 분과)



2026. 6. 17. 준비위원회 분과회의(복지돌봄교육문화 분과)



2026. 6. 24. 준비위원회 분과회의(복지돌봄교육문화 분과)



2026. 6. 17.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방문



2026. 6. 22.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방문



2026. 6. 23. 준비위원회 현장 방문



2026. 6. 30. 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브리핑



2026. 7. 3. 준비위원회 백서편찬소위원회 전체회의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출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발간등록번호 72-4191000-100036-01

※본 책에 수록된 원고와 사진을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시민주권시대 원주의 출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준비위원회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